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23

군선교, 청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비전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및 한국교회 군선교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3).

☞ 비전203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2030 청년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민족복음화 통일한국 세계선교를 향한
비전2030실천운동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한국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청년선교와 민족복음화의 푸른 꿈과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비전2030실천운동을 통해, 부흥의 큰 길을 내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복음화와 인류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
사 시 공식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사역 합심기도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 방해는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2. 2030년까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위하여
3. 10만 명의 기독교장병 (신규 6만 명, 기세레자 4만 명)을 파송하기 위하여
4.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 사역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하게 하시며
5. 260여 군종목사, 650여 군선교사,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사역을 인도하시며
6. 장병들의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로 기독교문화가 확산되게 하시며
7. 모범 국민 육성 및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이루어 주시며
8. 군선교 거점교회를 통해 파송되는 장병을 양육하고 정착하여 군선교 후원과 지원을 위하여
9. 기독교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 훈련(다음세대, 미래세대, 차세대) 기독교청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며
10.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 머리말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요한복음 3: 16) 하나님의 일입니다. 특히 군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복음(Whole Gospel)을 모든 사람(Whole People)에게 모든 교회(Whole Church)가 힘을 다하여 전함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는 한국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결정적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청년세대를 살리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사는 길인 군선교의 사명을 받들도록 ‘제24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총신대학교 주기철 기념홀에서 갖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이지만,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코로나19 팬더믹의 여파는 아직도 여전하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복음전도가 어려워져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허나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에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는 ‘헬렌 켈러’의 격려는 우리의 군선교 현장에도 유효하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 20)고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비전2020실천운동’에 이은 ‘군선교 비전 2030실천운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오늘과 미래를 형성하는 복음의 기축토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으로 기쁜 것은 한국군선교신학회가 해마다 군선교 현장의 주 이슈들에 대해 깊은 신학적 연구로써 군선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연유와 맥락을 짚으면서 발간하는 「군선교, 청년」(23)이 나름의 실질적 대안과 깊은 영감과 통찰을 제시하여 준다는 점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2030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과 “인구감소시대의 청년문화의 동향과 미래 군선교 전망”을 비롯하여 심도 깊은 신학적 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바라기는 금번 ‘제24회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국군과 한국교회를 향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시편 23: 6) 은총의 소망을 깊이 느끼고 공유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광요셉 목사님이 이끄시는 한국군선교신학회가 군선교 일선에서 수고하는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그리고 군선교에 협력하는 한국교회의 귀한 신학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4회 한국교회 군선교신

학 심포지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들과 군선교연합회 사역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장 / 기독교군종교구장

김삼환 목사

● ● 발간사

한국군선교신학회는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화의 현장을 위해서 여러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연합하여 동역하는 귀중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안보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선교신학회는 조국의 평화를 최전선에서 수호하며 국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과 지휘관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음화 역사에서 군선교는 매우 독특하며 선두적인 모범을 보여 왔습니다. 일찍이 기존의 다른 어느 종교들보다 먼저 군목 제도를 도입하여 군 장병들을 복음으로 위로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고, 이로 인해 국군의 신앙 전력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 인구가 소수에 불과하던 시절에도 군대에서의 복음화 비율은 사회의 그것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에 군대의 공헌이 지대한 만큼, 한국 교회의 성장에서도 군선교는 큰 비중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21세기 사회는 거대한 문명의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에서의 복음 사역도 고려해야 할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군선교신학회는 멈출 수 없는 군복음화의 사명을 지속하고자 매년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연구 논문집인

「군선교, 청년」을 발간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군복음화에 열정과 관심을 지니신 여러 연구자들의 귀한 주제 발표와 옥고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제 발제자인 정비호 목사님의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 2030실천 운동’의 현실과 전망”은 국방환경이 국방개혁 2.0에서 국방혁신 4.0으로 변화하는데 부응하여 비전 2030 실천의 과제를 새롭게 모색하는 군중 사역 총괄자의 거시적 안목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주제 발제자인 권수영 교수님의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와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군대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경쟁에 익숙한 MZ 세대와 어떻게 소통하며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매우 시의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군복음화를 위한 군선교신학회 연구자들의 다양하고 심오한 논문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김상만 박사께서는 코칭 상담의 원리를 군 사역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연구를 보여 주셨고, 문시영 교수께서는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공동체적 덕 윤리를 조명하시며 군대라는 공동체에서의 복음 증거의 과제를 일깨우십니다. 이규철 박사께서는 군선교에 대한 오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중군인교회 성장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이용락 박사께서는 교회 갈등 관리 방법 연구를 통해 군부대 내의 교회들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십니다. 전요섭 박사께서는 군대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상해와 관련해서 군종 목사님들이 군인의 심리영적 전문가로서 최적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하십니다.

군복음화를 위한 군선교신학회의 영적, 지성적, 정서적 지원과 헌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군선교, 청년」 23호는 그와 같은 헌신의 작은 열매입니다. 아무쪼록 귀한 논문을 발표하신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지혜와 감동이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한국군선교신학회장
곽요섭

● ● 차례

- 비전2030 실천운동 공동기도문 ... 2
- 머리말 | 김삼환 목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장 / 기독교군종교구장) ... 4
- 발간사 | 곽요셉 목사(한국군선교신학회장) ... 7

심포지엄 논문

- 15 발제1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 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 | 정비호
- 45 논찬1 정비호의 논문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 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논찬 | 최석환
- 51 발제2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 | 권수영
- 66 논찬2 권수영의 논문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에 대한 논찬 | 나성한

연구위원 논문

- 77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 재고(再考):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을 중심으로 | 이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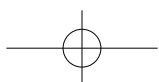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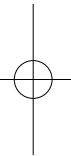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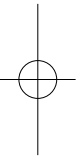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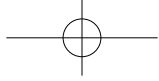
- 115** 코칭의 이해와 군예의 적용 | 김상만
- 137** 군 상황에서 도덕적 상해의 심리적 이해와
군종목사의 상담방안 | 전요섭
- 169** 복음의 증인: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를 중심으로 | 문시영
- 201** 교회갈등 관리 방법 연구 | 이용락

부록 1

- 232**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 238**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 242**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

부록 2

- 250**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현황(2002년~2024년까지)



심포지엄 논문

발제1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 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

| 정비호 |

논찬1

정비호의 논문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 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논찬

| 최석환 |

발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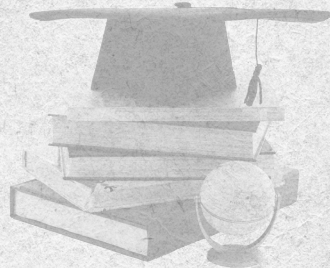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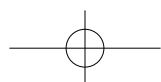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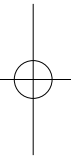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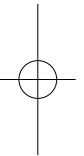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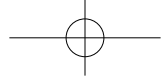
| 권수영 |

논찬2

권수영의 논문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에 대한 논찬

| 나성한 |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 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

The Progress and Prospects of 'Military Mission Vision 2030'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Military Structure

» 정비호 Th. M.*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방환경이 국방개혁 2.0에서 국방혁신 4.0으로 변화함에 따라, 군구조 변화에 따른 군사임무비전 2030이 추진과제로 진단하고, 2025년 중간평가를 통해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중심단어

국방개혁 2.0, 국방혁신 4.0, 군선교비전 2020, 군선교 비전 2030, 군 구조 변화

• 논문 투고일: 2024년 10월 1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10월 2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10월 2일

* 예)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중실장, 육군군종목사단장, 선봉대교회 담임

1.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국방부는 2023년부터 국방개혁 2.0에서 국방혁신 4.0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국방개혁 2.0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위협에 점진적 감소를 전제로 국방 전 분야 걸쳐 상비병력(부대수) 감축에 주안을 두었고, 국방혁신 4.0은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현실화)가 다가오면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갖춰 첨단전력을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이란 점이 다르다. 왜 4.0을 붙였는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무인로봇, 3D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을 적용한다는 의미와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80년대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 90년대 5개년 국방발전계획 → 2000년대 국방개혁 2.0 → 국방혁신 4.0)이라는 뜻이 담겼다.¹⁾

〈국방개혁 2.0 기본계획(2019)〉은 2040년까지 추진사항을 담고 있었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국방혁신 4.0 기본계획(2023)〉으로 바뀌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약칭: 국방개혁법)은 제2조에서 기본이념을 문민기반 확대,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 균형 발전,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선, 저비용·고효율 국방관리체제 혁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으로 명시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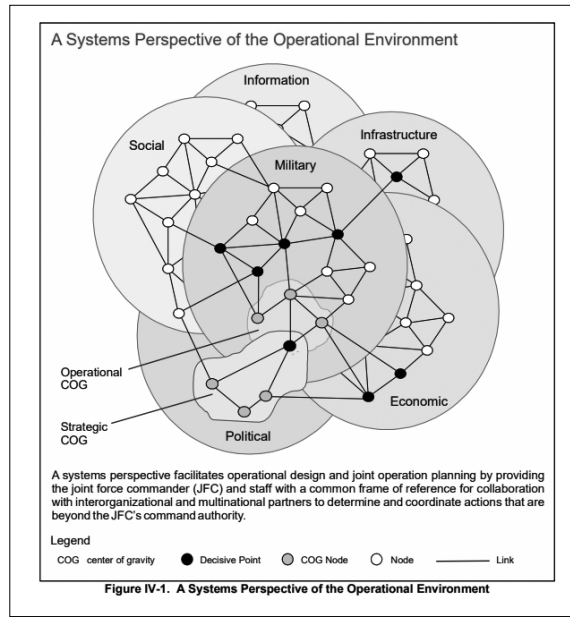
한 마디로 국방혁신 4.0을 정리하면, ‘경쟁우위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이다. 국방 전력이 갑자기 과학기술강군으로 탈바꿈할 수는 없기에 빠르게 혁신하며 변화하는 민간자원을 군이 적극 활용하

1) 국방부 국방개혁실, “국방혁신 4.0”(계룡: 국방출판지원단, 2023), 8-10.

2) 법률 제19073호(2022. 12. 13.)

는 대안이 최선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을 지켜봐도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으로 대응해야만 승리를 확보할 수 있다. 전쟁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외교-문화-종교를 비롯해 사회기반시설(infra structure)까지 중요하게 고려한다. 국가 방위는 실수가 패배로 이어지고 패배는 곧 국가소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국민 안보의식은 엄청나게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 작전 환경 개관 >³⁾



3) US Joint Chief of Staffs JP 3-0 "Joint Campaigns and Operations"(18 June 2022), 127.

국가 사이 전쟁에 있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전쟁은 지속비용 지불에 한계가 다가온다. 한반도는 복잡한 국제관계가 얽혀있는 지정학을 다뤄야 하고, 국가 응집력이 강력한 공산(전체)주의 국가들(중국-러시아-북한)을 상대하기에 대한민국 국방력은 치밀함과 정교함을 갖춰야 한다. 한반도 주변 국방환경 변화에 대해 어설픈 분석과 평가는 우리 스스로 복잡변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오류로 나타날 수 있다.

국가위기관리 대응도 오랜 시간 그 체제와 구성이 달라져 왔다. 국가 차원에서 헌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가이익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정권교체에 따라 국가안보전략과 안보정책의 근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상수화해야 한다.⁴⁾

2021년 10월 7일 국군중앙교회에서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을 한국교회를 향해 선포했다. 군선교 비전 2030은 추진기간 10년을 내다보고 설정했는데 선교전략에 있어서 벌써 상수화(常數化) 분수령을 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군선교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자꾸 코로나19 시기를 선교현장 침체 핑계로 삼으면 안 된다. 추진 기간 10년 절반에 다가서고 있다. 위기관리를 누가(어디서, control tower) 할 것이냐를 정립하지 않으면 전략(strategy) 없이 어설픈 전술(tactics)만 난립하며 혼란만 늘어난다. 군선교 비전 2030 추진본부로서 군종목사단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선교전략을 분석하고 평가할 시기이다.

국방혁신 4.0에 담긴 군 구조 변화를 짚어가면서 2021년 선포한

4) 장혁, 『한국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서울: 늘봄플러스, 2021), 259.

비전 2030에 대한 현실을 분석하고 다가올 분기점(2025년) 전망을 제시하겠다. 비전 2030은 국방혁신 4.0과 떨어트려 생각할 수 있는 단독 선교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히려 국방혁신 4.0 틀 안에서 추진해야 하는 군선교 비전이기 때문이다.

2. 군 구조 변화

1) 국방개혁 2.0에서 국방혁신 4.0으로

국방개혁 2.0은 병력 줄이기에 집중했고, 인구절벽 시대와 함께 국방인력 감축은 개혁과제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 국방혁신 4.0 내용을 담은 『국방백서(2022)』에는 상비병력 50만 명 감축(육군 36만, 해군 7만 5천, 공군 6만 5천)과 장군정원(2018년 466명→2022년 370명) 감소를 발표했지만⁵⁾ 지난해(2023년 말) 기준으로 이미 군 운영병력 규모는 47만 7,470명으로 상비병력 규모 50만 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비병력 규모 결정과 병사 간부 등 국방인력체계의 개편안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다.⁶⁾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행되기에 2024년도 통계에는 이미 정원(50만)보다 적은 병력규모가 반영될 것이다. 젊은층을 학생으로 구성하는 대학도 정원보다 모집이 안 되면 '미달'(未達)이라 표현한다. 국방인력이 정원에 못 미치는 결과는 국민들이 걱정하기 전부터 국방부에서 '도전과 기회'로 미래 국방환경을 분석했지만 돈(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피는 국회예산처는 국방혁신 4.0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5)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국방백서(2022)』 (계룡: 국방출판지원단, 2023), 129~130.

6) 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총괄과),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Ⅲ』 (서울: 디자인어백플러스, 2024), 296.

2030년대 중반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는 미래 상비병력 규모 판단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은 국방개혁의 전반적인 방향 목표 등 설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사항임에도 현재 미래 상비병력 규모 판단과 이에 기반한 국방인력구조 개편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미래 상비병력 규모에 대한 결정을 바탕으로 국방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⁷⁾

[상비병력 정원 및 운영병력 현황(2023년)] (단위: 명)

| 구분 | | 정원 | 운영병력 |
|------|-----|---------|---------|
| 국방인력 | 장교 | 68,437 | 68,249 |
| | 부사관 | 132,798 | 121,911 |
| | 병사 | 298,765 | 287,310 |
| | 합계 | 500,000 | 477,470 |

국방혁신 4.0이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도전요인으로 ‘기술패권 경쟁 심화’를 설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방 R&D 중 ‘미래도전 국방기술’·‘핵심부품 국산화’ 및 ‘핵심기술개발’의 규모 및 비중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⁸⁾

따라서 상비병력 규모 및 국방인력체계의 개편 결정을 바탕으로 국방혁신 4.0의 각 과제 과업이 명확한 목표설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는 각 군과의 협의를 통해 국방인력체계 개편 및 상비병력 규모 설정에 관한 개편안을 신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⁹⁾

7) *Ibid.*, 294-295.

8) *Ibid.*, 317.

9) *Ibid.*, 296.

(1)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미래 연합방위 및 전 영역 통합작전을 고려한 지휘구조 발전을 위해서는 합참과 각 군 본부 개편을 예고한다. 합참 전략기획본부 조직이 전략사령부로 창설(2024년 10월 1일)을 앞두고 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 부대구조 발전은 한국형 3축체계,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 부대개편, 다영역(multi-domain) 작전부대 창설 보강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2023년 9월 1일)로 이어졌다. 미래 적정 상비병력 규모 및 국방인력구조 발전은 작전소요와 병력공급 균형 규모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국방인력구조 재설계를 요구한다. 전력구조 또한 개념(High-Low Mix)이 달라진다.

(2)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및 예비전력 능력 확충: 전투원 숙련도 향상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훈련에 적용해 '가상모의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실기동 실사격 훈련 데이터 축적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KCTC)'을 확보하여 쌍방훈련 '마일즈 장비' 도입이 확대된다. 전군 표준화 교육훈련 관리를 위해 '국방교육훈련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상비병력 감소 대책으로 예비전력 확충은 지역방위사단 개편(예비군부대 구조 및 제도 개선)과 실버(고령)전력 검토와 함께 동원(예비) 전력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3) 과학기술 인재 육성: 핵, 미사일, 우주, 사이버, 양자역학, 전자 기스펙트럼 등 전문인력 육성과 관리가 제도로 보완되어 장병 과학 기술 역량 강화를 추구한다. 미래 핵심전력 운용능력을 위한 민간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활발한 협업(협약)을 이루게 된다.

2) 국방혁신 4.0(구조 개편)

국방혁신 4.0은 병력감소 대책으로 구조 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부대수가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국방인력 또한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단위 연결성과 통합성이 중요해진다. 부대수가 줄면 교회수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육군 곳곳에 지어진 대대급 교회는 부대개편계획에 따라 없어지기 전에 연결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교회 철거(遊休施設化)가 강제력으로 다가오기 전에 어느 지역, 어떤 형태로 연결해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1) 동맹전략을 통합성으로 적용: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6,000시간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380,000명에 이르는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를 지휘하는 사령관(제27대)으로 2024년 5월 취임한 파파로 제독(Admiral Samuel Paparo, 1964-)은 이렇게 동맹 및 억제 전략을 언급한다.

억제력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현대 억제 전략은 전통적인 군사력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경제 제재, 사이버 방어능력, 외교적 압박이 포함되며 모든 정부 기관에서 조율됩니다. 이러한 통합 억제력 접근법은 침략 의지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21세기는 억제력과 보장 전략에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의 부상, 탄도 미사일의 확산, 무인 능력의 발전, 비국가 행위자의 출현은 모두 전통적인 방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인공지능의 부상, 컴퓨팅의 발전, 세계 경제의 통합 심화 등 이 모든 것은 21세기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전쟁 비용이 이토록 높았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어깨에 지워진 심오한 의무입니다.¹⁰⁾

동맹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침략의지를 억제하려면 파파

10) <https://www.pacom.mil/Media/Speeches-Testimony/Article/3820295/adm-samuel-j-paparo-commander-of-us-indo-pacific-command-opening-remarks-at-the/>

로 제독의 말처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동맹관계 형성을 통한 억제 전략에도 돈이 쓰인다. 평화가 공짜였던 역사는 없었다. 군선교 현장에서 전개된 비전 2030은 기회비용과 함께 어떤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달라지면 국방환경 또한 변하기에 선교전략이나 정책 변환은 선택 아닌 필수이다. 비전 2030 추진 기간으로 어느새 절반을 쓰고 있다. 지금은 '거점교회'나 '결연교회' 개념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강력한 추진동력을 불어넣을 시기이다. 국방인력이 줄어드는데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대응하면 빈 교회 역시 늘어날 것이다. 육군/해군/공군을 따질 때가 아니라 과감한 연결과 통합으로 군 구조에 맞춰 선교 현장 역시 재편성(reconstitution)이 필요하다.

(2) 동시성(synchronization)을 민간 영역에 적용: 국방환경 변화는 민간 선교현장에 느린 속도로 전달된다. 민과 군의 변화 체감속도가 다르다.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이 교리 영역에 반영되면서 '동시통합작전' 개념이 세워졌고, 육군은 아미타이거 여단을 창설했다. 느려터진 지휘결심으로는 적 공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작전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합동다영역지휘통제(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JADC2)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선교 현장과 민간 영역에서 선교대응 속도 차이가 벌어질수록 공동화현상(cavitation)은 빠르게 다가온다. 군선교 현장에 빠르게 민간자원이 투입(지원)될 수 있도록 지휘결심 속도를 어떻게 높일까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3. 비전 2030 현실

1) 정확한 통계(DB) 부족과 구호(슬로건)

(1)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매년 10만 명을 한국교회로 파송하고 결연하는 선교 프로젝트이다. 비전 2020은 전군신자화와 민족복음화를 내세웠고, 진중세례운동으로서 460만 명 이상 수세 결과를 이뤄냈다. 통계 정확성을 어떻게 분석 및 평가할 것이냐를 뒤로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선교에 집중한 쾌거이고, 군선교가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여했다는 논리 또한 탄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이다. 비전 2020에 이어서 비교적 짧은 10년 동안 추진하는 비전 2030은 100만 명 숫자를 제시했다. 100만 명 파송은 선교 방향성으로서 가슴 뛰는 구호이다. 그러나 다가온 2025년은 이미 추진에 대한 중간평가 시기이다. 추진 기간 절반이 갔는데, 파송 인원은 100만 명의 1%인 1만 명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100만 명보다 앞에 나오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를 더 중요하게 강조하더라도 복음 회심과 양육 통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빅데이터의 가치는 정제(sorting, filtering) 과정으로 높아진다. 추진 5년차 중간평가를 2025년에 시행하면서 비전 2030 통계에 주목해야 한다. ‘군선교 비전 2030’ 홈페이지(<https://www.vision2030.or.kr>)에 세례, 양육, 파송 통계를 올려 공유하고 있지만 구국성회 결연축제 통계가 희망일 뿐이다.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는 통계(DB) 분석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에서 발행한 『서울남연회 백서(1990~2022)』는 선교전략이나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문서다. ‘제5장 통계로 본 서울남연

회의 변화'는 분류된 통계자료가 어떤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는지 다루고 있다.¹¹⁾

(2)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세례-양육-파송 결연): 국방개혁 4.0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과정에 변화를 요구한다. 병 급여 인상에 실망한 초급간부들이 빠르게 국방인력에서 이탈하고 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외쳐왔던 한 국교회는 초급간부에게 선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방인력 가운데 이들 청년층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이다. MZ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를 체험하도록 돕지 못하면 한국교회로 연결은 어렵다. 이제는 부대 규모에 따라 지역 통합 선교지를 세워야 한다. 한국교회와 연결하기 위한 거점교회 선정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정작 군선교 현장에 먼저 선교 거점이 마련되어야 했는데 늦었다. 군단이든 사단이든 지역으로 묶여 통합할 수 있는 선교구조를 만들어야만 양육과 파송을 지속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전 2020과의 차별성은 사라진 채 세례 명맥만 겨우 유지할 것이 예측된다. 현재 군선교 현장에서 병사보다도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는 초급간부이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요구는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지혜문학에서 관찰된다. 지혜문학과 율법서는 의미상 차이를 보인다. 지혜문학에서 경계표의 주인은 사회적 약자로, 지혜문학은 '고아와 과부'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경고한다. 예언서에서 예언자도 '고아와 과부'의 경계표가 옮겨지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예언자는 그것을 옮기는 주체를 '유대 지도층'이라 말하며, 지도층이 '고아와 과부'를 내몰고 있는 현실을 경계표의 이동으로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법정은 강자의 폭력을 합법화하는 데

11) 서울남연회 백서발간위원회, 『서울남연회 백서』 (서울: 예인미술, 2022), 395-419.

이용되고 있다. 그들은 합법적 테두리에서 행동하는 듯하지만, 예언자는 강자의 권력 수단으로 전략해버린 불공정한 재판을 비판한다(이사야 10: 2).¹²⁾

육군군종목사단은 지역군종목사단을 11개 지역으로 재편하면서 통합선교 중심지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스도께로 다가서기 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도록 접촉선을 만들고 연결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관계는 ‘사이버 망’(cyber-connection)일 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한 선교 열매로 평가하기 어렵다. 온라인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지만 대안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을 가상 세계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성경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영(성령)에 이끌리셨으나 사람을 꾸준히 만나러 다니셨음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시기나 바울의 선교 활동에서 만남 없는 선교란 없었다. 선교 현장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니 ‘전장의 사자’로 불렸던 패튼 장군 말에 귀를 기울이자.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다음 주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A good plan, violently executed now, is better than a perfect plan next week.”¹³⁾

2) 평가 및 분석

(1) 실행본부 조직진단:

기독교군종교구(MEAK) 조직으로서 실행본부(총 12명: 본부장 1, 부 본부장 1, 사무총장 1, 실행위원 9명)는 어떤 임무와 기능으로 5년을 보

12) 민경구,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서울: IVP, 2024), 159.

13) George S. Patton Jr., *War as I Knew I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95), 354.

냈는지 그 정체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누가,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한다는 것인지 기독교군종교구(MEAK)는 조직진단 및 분석평가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비전 2030은 군종목사단이 기획하고 설계한 선교 프로젝트지만 비전 2020 세레운동과 단절된 것이 아니기에 기독교군종교구(MEAK)는 실행본부 위상과 효용을 검증해야 한다. 실행본부 인원과 조직, 사업과 예산, 기능과 실적을 추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 추진본부(군종목사단) 조직진단:

육군군종목사단장이 본부장을 맡아서 4개 분과(세례-전도■양육-파송-홍보)를 조직하고, 광림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 후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영상예배 자료를 올렸고, 비전 2030 통계(DB)를 작성하여 공유했다. 육군군종목사단장은 본부장을 맡아 비전 2030을 추진하면서 정확한 통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군종목사단에서 통계를 맡은 총무 군종목사들로부터 통계작성 행정이 부담스럽다는 불평이 나왔고, 육군군종목사단 실행위원회(2024. 1. 23.)에서 비전 2030 추진본부 분과조직을 구국성회 복음축제와 결연축제 TF로 개편 및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군종목사단장은 “비전 2030은 군종목사단 주도성과 추진력이 핵심인데 군종목사단이 한국교회로 파송한 장병 실적이 저조하다면 실패이다”라고 평가했다. “결국 군종목사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파송 이야기가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면 비전 2030 추진동력은 떨어진 것이고, 군종목사단이 기획하여 작성한 비전 2030 매뉴얼은 군종목사 스스로가 추진하지 못할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성찰했다.

육군군종목사단장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비전 2030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에서 명목상 이끄는) ‘조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위관급 군종목사들과 공감 및 소통하며 비전 2030 선교 방향에 동역하도록 이끄는 데 실패했다. 그들을 선교동력으로 통합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책임에서 중령급 이상 실행위원들은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 둘째, 매뉴얼 작성과 제작에 공을 들였으나 초기(코로나 19 상황으로 실제 추진기간은 2023년부터로 적용)에 현장에서 ‘거점교회’에 대한 소모성 논쟁(청년 정착을 위한 조건)으로 파송과정(심의)은 진행되지 못한 채 ‘거점교회’ 개념 토의와 선정 조건을 두고 이리저리 혼선이 발생했다. 결국 방향성을 명확히 담지 못한(理想的) 매뉴얼은 추진속도 엔진이 아니라 정비점검 매뉴얼로서 시동(始動)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 셋째, 추진본부로서 군종목사단(특히 육군군종목사단)은 갑작스런 리더십 교체(비전 2030이 아닌 ‘군인교회 총회’ 논쟁에서 서우정 목사로부터 정비호 목사) 때문에 추진본부 지휘 통제(지역 군목단과 분과 조직 양극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넷째, 비전 2030 선포식 이후 기도와 후원을 진중세례운동(비전 2020)만큼 선교자원으로 한국교회로부터 얻어내지 못했다. 이 부분은 한국교회로 100만 장병을 파송하겠다는 구호가 파급력 있는 공감과 설득으로 연결되지 못한 결과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국교회도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군선교 현장을 살피거나 도우려는 연합선교가 힘을 잃고 있다. 비전 2020(진중세례운동)보다 더 강력한 선교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책임은 실행본부(MEAK)와 추진본부(군종목사단) 모두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에서 중간평가 연도를 2025년으로 설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무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분석과 평가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선정해야 구체적이고 명확해진다. 비전 2020은 진중세례운동이었기에 수세인 원으로 그나마 추진성과를 따질 수 있었으나 비전 2030은 어떤 추진실적을 점검할 것인지 아직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내세울 만한 추진결과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아직 중간평가 시기가 멀었다 여유를 부리는 것일까? 선교 현장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간과 공간인데 성부-성자-성령 삼위일체는 멀찌감치 팔짱 끼고 구경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개인들과 맺으시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은 그분의 성육신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을 통한 순종 안에서 그분과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분께 접붙여지고 그분 안에 머문다. 아버지와 아들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핵심적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으시는 관계에 대한 모든 진술은 단수형이며, 각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성령이 이루신다(요한복음 14:1, 23). 요약하면, 사람들을(그리고 나머지 창조 세계를) '삼위일체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그들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계시고 창조 세계와 함께함으로써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기 위해 내려오신다.¹⁴⁾

(3) 비전 2020 세례인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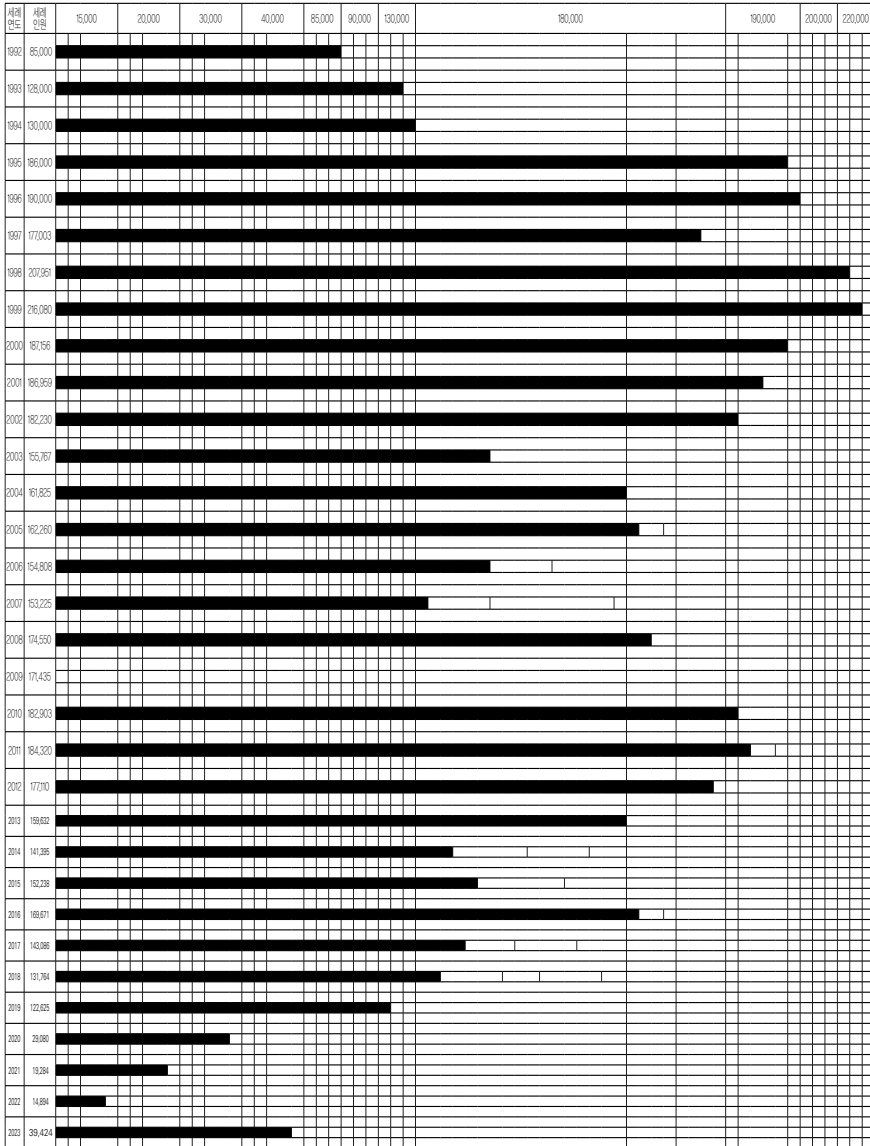
비전 2020이 진중세례운동이었기에 현재까지 '수세인원' 통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사실, 비전 2030은 진중세례운동의 세례인 숫자(군에서 세례 받았던 그 많은 기독교인은 어디로 갔을

14) 미로슬라브 볼프·라이언 매커널리린츠, 『하나님의 집』 백지운 옮김 (서울 IVP: 2024), 232-233.

까?)를 문제 삼으며 그 비판으로 비전 2030을 설계했다. 군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로, 이어서 세계 복음화까지 꿈꾸었던 진중세례운동은 '전군 신자화'와 '1인 1종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세계기독군인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만큼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세례인 숫자 논란은 잠들지 않았다.

비전 2020을 진중세례운동으로서 부정평가 할수록 비전 2030의 정당성도 설득력을 잃는다. 왜냐하면 비전 2030은 세례를 군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으로 기초했기 때문이다. 복음 전도와 회심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한다는 추진운동은 그럴듯한 구호로 채워지지 않는 현장이 있었다. 1992년부터 2023년까지 수세인원 누적 통계만 하더라도 460만 명을 넘었다. 숫자로만 따지는 것이 억지일 수 있으나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한 군선교 현장이 460만 명 결실로 나타났다. 그러니 비전 2020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적 평가는 비전 2030 뒤로 미뤄도 결코 늦지 않다. 비전 2030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왜 비전 2020 불꽃을 집착하는가. 460만 명 진중세례인 숫자를 세계와 한국 선교사에서 다시 타오르기 어려운 부흥과 선교 열매로 해석하고 넘어가자.

〈 연도별 수세(受洗) 실적 현황 〉¹⁵⁾



15)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제53차 정기총회 보고서』(2024. 3. 7.), 160.

비전 2020은 진중세례운동으로 추진했고, 1992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를 분석해보면 1999년 216,080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00년대부터 소폭 감소하다가 2007년도 샘물교회 탈레반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 153,225까지 감소했다. 2019년까지 10만 명 이상(122,625명)을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 상황에서 20,000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3년에 40,000명 가까이 회복했다.

(4) 중간평가 집중:

2025년은 비전 2030 분기점이다.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검혀하고 솔직하게 실행본부와 추진본부가 군선교 현장 동역자들을 모아 추진평가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 형식은 토론회이든, 세미나이든, 포럼이든, 공청회이든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겠지만 2024년이 지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행본부와 추진본부는 평가하는 주체가 되기보다 평가받는 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추진평가를 누구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함께 협의하며 다뤄야겠으나 ‘그들이 뭘 추진했는지’를 평가할 때 ‘그들이 거기에서 빠지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실행본부와 추진본부는 분석관 또는 평가관 임명이나 위촉을 권위 있게 계획하는 방법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 복음과 회심에 집중해 양육과 파송까지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군중목사단의 호기(豪氣)는 매뉴얼에만 담겨 있던 말뿐이었던지 반드시 검증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전통적인 전도 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돌아볼 때, 우리는 새로운 전도방식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만남 전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회심’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과정 전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

다. 참된 전도는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다.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해 있는 전도 방식에서 탈피해 비록 생소하지만 새롭고 효과적인 전도 방안을 모색해보자.¹⁶⁾

구약시대 당시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 거하는 교인들 역시 진정으로 회심해야 한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에게서는 회개하는 역사가, 그밖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구약성경에서 ‘회심’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이키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셋길로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바른 길로 돌아서는 ‘회심’이 필요하다.”¹⁷⁾

4. 비전 2030 전망

1) 중간평가 이후 추진동력

(1) 추진본부(군종목사단):

비전 2030은 설계과정부터 군종목사단 주도였다. 그러나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차를 바꾸는 것보다 동력엔진을 점검해봐야 한다. 처음부터 주행능력이나 빠른 속도와는 무관하게 화려한 디자인만 강조한 ‘컨셉카’인지, 생산해서 타고는 있는데 결함으로 리콜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인지, 사는 집보다 비싼 값을 지불해야 탈 수 있는 몇몇 특권층의 럭셔리 품목이었는지 분석과 평가에 따라 추진동력(엔

16) 리처드 피스, 『신약이 말하는 회심』, 김태근 옮김 (서울: 좋은씨앗, 2021), 407.

17) *Ibid.*, 450.

진)으로서 군종목사단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육군군종목사단장 리더십 교체(2024. 10. 10.)와 함께 엔진에 속도가 붙을지 기대해보자.

진중세례를 통해 전군신자화와 민족복음화를 추구했던 비전 2020은 460만 명 이상 군인들에게 진중세례를 베푸는 기록을 2020년도까지 남겼다. 이후 비전 2030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를 내걸고 양육과 파송에 집중하려 한국교회를 향해 선포식까지 펼쳤으나 코로나19라는 상황 앞에서 파송은 어려웠고, 양육조차 멈춰버렸다. 온라인 콘텐츠로 돌파구를 만들기도 했지만 2022년 전반기 파송실적은 거점교회 16명(기존 출석교회 연결 323명)에 그쳤다.¹⁸⁾

육군군종목사단은 ‘거점교회’에 대한 개념을 선교현장에서 공감 및 소통하는데 한계를 느꼈고, ‘파송’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으며, 비전 2030 매뉴얼이 선교현장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한 이상론(理想論)이었음도 인정하였다.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하더라도 비전 2030 추진본부로서 소중한 선교시간(3년)을 별다른 파송 추진 없이 보낸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2024년 육군군종목사단장은 제33회 6.25 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를 기회로 삼았고, 추진위원회(TF)를 조직하여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획을 시도했다. 참석한 청년층 눈높이에 맞춰 오산리 기도원에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했고, 전문 뮤지컬 공연팀에게 ‘ABBA’ 무대를 마련했다. 육·해·공군 위관 군종목사에게 선명한 복음을 제시하도록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대상으로 역량을 준비시켰다.

18) 육군군종목사단, “군선교 비전 2030 추진결과 그래프(2022년 전반기).” <<http://vision2030.or.kr/board/?no=388&page=1>>

또한 결연축제를 기획하여 청년선교에 관심 있는 한국교회 50곳을 구국성회 참석 장병들과 만나는 접촉선을 만들었다. 오산리기도원 통일로에 교회마다 텐트(홍보부스)를 설치하였고, MZ세대 젊은이들이 축제장처럼 한국교회와 결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어려웠던 파송이 '구국성회' 특별집회와 만나서 한국교회에게 찾아오는 선교현장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 무려 504명(MEAK 결연 276명, 현장 부스 결연 173명, 기신자 결연 55명)이 한국교회와 선교 접촉선으로 연결되었다. 복음축제와 결연축제로 기획한 결과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타났고, 파송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25년 제34회 구국성회를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KMCF)와 협력하여 준비하면서 더욱 보완 및 발전시킬 과제들을 정리했고, 2024년 4분기부터 일찌감치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례이든, 전도이든, 양육이든, 파송이든 선교대상에게 다가서지 않고서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 선교역사는 가만히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들고 조선 땅을 밟은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졌다.

(2) 자리가 아니라 선교 본질에 충실:

사람이 조직을 만들지만 조직만을 지키려다 사람이 죽는다. 실행본부 또는 추진본부는 비전 2030 조직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선교 열정이 식으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자리 차지와 다툼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났던 문제였다.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 정치를 구현하도록 설계된 교회에 대한 바울의 비전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들의 식사는 그리스도인답기보다 고린도인답았던 것이다. 바울은 그들의 모임이 지금 그리스도의 정치가 아니라 고린도의 정치를 반영한다고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좌

석을 재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식사를 하는 공동체'를 책망한 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상기시킨다.¹⁹⁾

선교 현장에서 주도권은 열정을 지닌 선교사들이 지녀야 한다. 하나님 마음을 품고 군에 있는 영혼을 다루지 않는 이들은 '세력화'를 위해 '조직화'를 추구한다. 비전 2030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교 프로젝트가 되려면 자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발걸음이 필요하다.

이 폐쇄적인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시각을 기이하게 왜곡시킨다. 이때 그들은 문화적으로 사소한 문제들에 집착하는 한편 중대한 신학적 사안들은 간과하곤 한다. 이런 풍조의 영향 아래, 평범한 지도자들이 마치 위대한 역량과 중요성을 지닌 듯이 부각된다. 그 자체로는 별것 아닌 이들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만큼은 전설적인 존재로 높임 받는 것이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모든 견해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듯이 부풀려지기 쉽다. 추종자들이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위까지 잠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 내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된다. 그 공동체의 성격이 그리스도 대신에 인간적인 지도자나 문화에 의해 규정될 때,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간직하기 위한 경계의 표지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요새를 견고히 구축하고, 그릇된 존재로 여겨져야만 하는 다른 집단들과 필연적으로 대립하게 된다.²⁰⁾

(3) MZ세대 공감과 이해: 시각(영상)정보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 그들의 문화에 능통한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들과 같은 시대를 호흡하며 문화 깊숙이 스며드는

19) 마이클 로즈, 『그리스도인의 정의란 무엇인가?』 김진선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24), 342-343.

20) 마이클 리브스, 『복음주의 바리새인』, 송동민 옮김 (서울: 복있는사람, 2023), 48-49.

이들에게는 '정년 연장'보다 '공감능력'이 우선이다.

스마트폰 기반 생활에 의존해 살아가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콘텐츠에 노출되는데, 그중 대부분은 알고리즘을 통해 선택되어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알림을 통해 우리 삶 속으로 밀고 들어온다. 그것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며, 그중 상당수는 우리를 신성 차원에서 아래로 끌어내린다. 만약 그 차원에서 0 이상의 수준으로 대부분 삶을 보내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입력 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아야 한다.²¹⁾

국방환경이 아무리 첨단과학기술군을 들먹여도 생명은 인공지능(AD)가 대체할 수 없다. 선교 현장은 의료 현장 이상으로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한 영혼의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젊은이들은 그들 문화에서 경험하는 공동체를 간절히 원한다.

경험은 크고 작은 모든 동물들, 어찌면 무생물 자체도 포함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의식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디지털컴퓨터에는 없으며, 심지어 그것이 방언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기계는 가짜 의식을 거래할 것이고, 아마도 사람들 대부분을 속일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진화한 인공지능과 인공적으로 설계된 인공지능의 대결이 임박한 지금, 살아있는 삶에서 느낌의 중심적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²²⁾

국가에 있어 군대가 왜 중요한지는 역사와 철학이 검증했다. 군 선교는 국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전사를 다루는 현장이

21) 조너선 하이트, 『불안 세대』, 이종호 옮김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2024), 320.

22) 크리스토프 코흐, 『생명 그 자체의 감각』, 박제운 옮김 (파주: 아르테, 2024), 323.

다. 비전 2030이 마무리될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한 영혼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

예외적인 특권을 부여받은 군대의 지위는 전쟁 갈등의 예외상태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군대의 항상적인 훈련의 자연스런 결과이다. 이 갈등이 들어서면, 이는 (국가의) 자립성을 위협에 빠트리기 때문에, 현존 군대에 축적된 민초의 전체힘이 도전을 받게 된다. 즉 감탄을 자아내는 국가 조직의 필연성과 이 강력한 측면으로 다른 모든 가용한 힘들이 본능적으로 뻗어 나오는 것이 도전을 받게 된다. 오랫동안 강의실이 닫혀 있어도 국가의 존립이 위협에 처하지는 않는다. 반면 군대의 해체는 짧은 기간 동안이라 해도 국가에 적대적인 모든 외적이고 내적인 요인들이 풀려나 그 기초를 뒤흔든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사실적인 국민 무장은 경제 붕괴와 사회의 침하를 의미할 것이다.²³⁾

군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빠르게 이 시대와 소통하며 반응하는 신세대 같으나 파편화를 겪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 영혼은 쪼개졌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그들 영혼의 분열증을 회복시킨다는 믿음으로 5년을 지켜내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뉴스와 정보를 얻는 출처인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인지 편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온라인 세계는 동일한 콘텐츠를 우리에게 더 많이 제공하는 반향실이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것이 되었건 확증 편향을 더 강화한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반대되는 생각이나 정치적 견해에 노출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 웹 세계는 개인화된 수많은 거품들로 쪼개지고 있다. 서로를 연결하는 인터넷(internet)이 아니라 갈가리 쪼개지는 스플린터넷(splinternet)으로 변해가고 있다.²⁴⁾

23) 에른스트 카프, 『기술철학 개요』, 조창오 옮김 (서울: 그린비, 2021), 342.

24) 루이스 닥트넬, 『인간이 되다』, 이충호 옮김 (서울: 흐름출판, 2024), 349.

(4) **군인교회 재편성:**

군선교 현장은 곳곳에 세워진 군인교회를 선교 기지로 세웠다. 1004 군인교회는 옛말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인력 감소는 교회라는 건물(종교시설)에 영향을 줄 것이다. 대대급 작은 규모 교회들은 연결성과 통합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그 교회들이 익숙했던 문화 현상이다.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모인 곳으로 통합 연결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령 시절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파병 경험을 지닌 군종목로서 생명 살림 사례를 소개하겠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악의 영아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이 지역 의사들이 어린이의 예방접종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백신을 이슬람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해서 이슬람 신 알라의 뜻을 전복시켜려는 미국의 계략으로 포지셔닝해서 지역 내에서 백신에 대한 저항을 초래했다. 이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공중보건부는 문화 유물로 눈을 돌렸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약령으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부적 역할을 하는 구슬 팔찌를 손목에 묶어주는 전통이 있다. 공중보건부는 이 유물을 면역 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가공했다. 팔찌에 색으로 구분한 구슬을 배치해 아이가 어떤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의사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노란색 구슬은 B형 간염 백신, 파란색은 독감 백신 등 각 색의 구슬은 각각 다른 예방접종을 의미했다. 백신을 맞을 때마다 의사는 그에 해당하는 구슬을 아이 팔찌에 부적처럼 추가해 문화 유물을 의료 기록으로 만들었다. 아프가니스탄 부모들은 그들의 행동 자체를 바꾸지 않았다. 그저 나쁜 영혼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부적을 사용해 그들의 신념과 이념을 행사했을 뿐이다. 하지만 유아들이 계획대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공중보건부는 수천 명에 달하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²⁵⁾

25) 마커스 콜린스, 『문화의 중력』, 이상미 옮김 (서울: 시그마북스, 2024), 48~49.

대대급교회를 살리려면 ‘군선교사협의회’가 아니라 대대급교회 연합(통합)이 살 길이다. 어느 부대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군종목사단이 제시하지 못하면 비전 2030이 끝나기 전에 텅 빈 비전 2030 결과물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가 자꾸 품지 않고 내치면 공동체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교회는 순결해야 하지만, 순결을 지키는 것이 배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 형성기에, 유대교는 선택받은 백성의 순수성과 순결을 강조하느라 인종의 경계를 넘지 못했다.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배타적 유대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기독교는 그 경계를 넘어 이방인을 향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역으로 배타성을 순결이라는 단어로 치환하여 정당화하고 있다. 순결을 무기 삼아 다름을 억압하는 기제로 쓰는 것이다. 그것은 책임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이라 할 수 없다.²⁶⁾

(5) 한국교회 결연(파송) 동참 및 호응:

제33회 기독교장병 구국성회(2024)에서 한국교회와 참석 장병 결연 가능성은 의미있게 확인되었다. 다만 이런 대형집회는 기회비용이 쓰여야 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매년 기도원 사용을 비롯해 여러 후원을 베풀었지만 불편한 식사와 숙소 문제는 MZ세대 장병들에게 해를 거듭할수록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군인교회가 직접 결연이나 파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국성회는 적극 활용할 선교 시간과 공간이 아닐 수 없다. 더 확장성을 갖고 한국교회에 청년선교 관심을 촉구하는 미디어 홍보를 추진한다면 5년 동안 파송 선교열매를 맺을 수 있다.

논자는 이를 위한 다음 몇 가지 선결과제를 제안한다.

26) 최중원,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 (서울: 비아토르, 2024), 171-172.

첫째, 거점교회 선정에서 홍보교회 참여로 전환이 필요하다. 비전 2030은 초기에 너무 완벽하게 양육한 자원으로 파송을 설정한 나머지 파송은커녕 양육에 대한 부담마저 커졌다. 복음 전하고 진중세례를 베풀기에도 벅찬 군인교회가 온전한 양육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비전 2020 선교 열정은 이미 과거 역사로만 남았다. 병역자원 감소는 사단급 신병교육대 진중세례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비전 2020의 핵심이었던 진중세례식은 육군훈련 연무대교회, 학생군사학교 문무대교회, 부사관학교 소망교회 등 관문 선교 중심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청년 선교에 관심 갖고 만남 자리에 접촉선을 만들고자 홍보 역량을 갖춘 교회를 찾아서 참여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마다 청년공동체 모임을 확보해줘야 한다. 초급간부에 대한 선교정책은 파격을 넘어 소속감과 동질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군인교회 구조와 콘텐츠로는 그들을 지역모임으로 끌어들이기 어렵다. '마중물공동체'와 같은 모델을 유일하게 여기지 말고 지역별 공동체 모임을 결성해줘야 한다.

셋째, 브리스길라-아굴라 프로젝트는 육군미자립선교위원회를 후원하는 교회로 연결해야 한다. 육군교회는 매년 10억에 이르는 예산을 대대급 미자립교회 선교 후원에 쓰고 있는데 한국교회 동참을 늘리고, 육군교회 부담을 줄여 비전 2030을 위한 선교 예산으로 집중투 자할 시기이다.

바울이 유대인 정체성의 경계 표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장벽을 만들려는 일부 반대자의 전략에 대해 깊이 우려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

하는 것을 꺼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사회적 평등주의가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진리”였다. 사회적 배타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에 반대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몸은 계급, 피부색, 성별,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권에서든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은 복음의 진리와 양립할 수 없다.²⁷⁾

(6) 군선교신학 군종분야 전문성 강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을 지켜보며 군종목사단은 진중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분석하며 ‘선교신학’으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는 전문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군종목사단이 “전장윤리” 같은 군종교리나 신학주제를 뽑아내어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군종목사를 신학대학 강단에 세워 한국교회로 군선교신학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군선교신학회는 이미 전문위원 구성으로 입지를 굳혔으나 군종목사가 학문적 전문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해 전문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 선교 현장에서 신학 없는 열정은 위험을 만들었음을 교회가 증언한다.

구원을 “죄들”이나 “빛”(복수형)의 해결로 보는 관점과 악(악한 자)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해방으로 보는 관점 사이에서 선택은 분명 예수님이 주기도를 만드실 때 직면했던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죄들을 해결하시는) 대리적 죽음이나 (예수님이 악의 세력을 해결하시는) 대표성을 띤 죽음이나 해방하는 죽음 가운데 하나를 억지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²⁸⁾

27) 티모시 조지, 『갈라디아서』, 노승환 옮김 (서울: 깃드는숲, 2023), 239.

28) 사이먼 게더콜, 『대속을 다시 생각하다』, 이철민 옮김 (서울: IVP, 2024), 161.

논자는 육군군종목사단장으로서 2024 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을 통해 다음 2025군선교신학 심포지엄의 주 발제자로 '그레고리 A. 보이드'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이다. 그의 신학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전장 윤리'는 설 자리가 없다고 조심스럽게 단언한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전사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설명하는 그의 신학은 책으로만 읽기에는 아쉬움 그 자체이다. 군선교신학회의 사정상 어렵다면 한국군종목사단장으로서 그를 초대하여 그의 고견을 듣고 싶은 신학자이다. 누구를 불러,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군종목사 가운데 신학 전문성(특히 전쟁이나 평화, 한반도 통일 관련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은 바깥에 맡겨둘 사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꾸준히 키워낼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레고리 A. 보이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승리자 그리스도 속죄 모델은 악의 세력들과 비폭력적이며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예를 기독교 신학의 핵심에 두지만, 만족 속죄 교리는 성자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성부의 손에서 고난 당하신 “구속적인 폭력 신화”를 중심에 둔다.

만약 어떤 집단이, 하나님이 폭력에 개입하심으로써 인류와 창조 세계가 직면하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런 폭력 사용이 그들 역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따라야 할 “경건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십자군 전쟁과 종교 재판 그리고 이를 뒤따랐던 수 세기에 걸친 크리스천에-대한-크리스천들의 폭력은 분명하게 이런 비극적인 진리를 예증한다.²⁹⁾

29) 그레고리 A. 보이드, 『전사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류호영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2), 543-544.

Abstract

The progress and prospects of 'Military Mission Vision 2030'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military structure

Bee Ho Jung

As the defense environment is changing from Defense Reform 2.0 to Defense Innovation 4.0, Military Mission Vision 2030 was diagnosed as a progres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military structure, and a new outlook was proposed through an interim evaluation in 2025.

Key Words

Defense Reform 2.0, Defense Innovation 4.0, Military Mission Vision 2020, Military Mission Vision 2030, Military structure change

논문 기고자 Email

beehoya@hanmail.net



정비호의 논문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 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논찬

A Comment: The Progress and Prospects of ‘Military Mission Vision 2030’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Military Structure

» 최석환 Ph. D.*

연구자 정비호 목사님께서 ‘국문초록’에서 밝힌 것처럼,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 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은 국방환경이 ‘국방개혁 2.0’에서 ‘국방혁신 4.0’으로 변화함에 따라 2021년 10월 7일 국군중앙교회에서 개최된 2030년까지 매년 10만 기독 장병을 한국교회로 파송하고 결연하는 선교 프로젝트인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에 대한 중간 평가와 전망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이에 논찬자는 연구자에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 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에 대하여 몇 가지 논평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연구자는 국방혁신 4.0에 담긴 군 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국방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군선교 비전 2030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며, 도래할 2025년 분기점 전망을 제시한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공헌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연구자가 피력한 것처럼 군선교 비전 2030은 국방혁신 4.0과 떨어트려 생각할 수 있는 단독 선교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히려 국방혁신 4.0 틀 안에서 추진해야 하는 군선교 비전이기 때문이다.

* 공향벨엘교회, 전)한국군종목사단장

둘째로, 연구자는 상기 논문을 작성하면서 박학다식한 식견으로 군 구조변화, 비전 2030현실, 비전 2030 전망에 대한 매우 체계적인 논지들을 탁월하게 제시했다고 논평하고 싶다. 특히 연구자는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은 선교전략에 있어서 벌써 상수화 분수령을 넘고 있다며,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선교전략을 분석하고 평가할 시기임을 강조함으로써 군선교를 위한 적절한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고조시킨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셋째로, 연구자는 통합성과 동시성을 강조하면서 연결과 통합으로 군 구조에 맞춰 선교 현장 역시 재편성이 필요하며, 지금은 ‘거점교회’나 ‘결연교회’ 개념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강력한 추진동력을 불어넣을 시기이며, 육군, 해군, 공군을 따질 때가 아니라 과감한 연결과 통합으로 군 구조에 맞춰 선교 현장 역시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넷째로, 연구자가 비전 2030 현실을 직시하며 실행본부 조직진단, 추진본부인 군종목사단 조직진단, 비전 2020 세례인원 분석, 중간평가 집중 등을 논하면서 비전 2030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성찰하였으며, ‘고아와 과부 같은’ 같은 약자인 초급간부에 선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에 찬사를 보낸다. 비전 2030 실천운동의 추진 기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파송인원은 100만 명의 1%인 1만 명에도 턱없이 모자라며, 비전 2030 슬로건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를 더 중요하게 강조하더라도 복음 회심과 양육 통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은 온당하며, 그러하기에 연구자가 국방개혁 4.0에 따른 군구조 개편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과정에 변화를 요구하며 한국교회는 초급간부에게 선교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강

조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연구자는 비전 2030을 전망으로 추진본부(군종목사단)의 동력엔진 점검, 선교 본질에 충실, MZ세대 공감과 이해, 군인교회 재편성, 한국교회 결연(파송) 동참 및 호응, 군선교신학 군종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설득력 있게 논한 것은 이 논문의 백미이며, 이중 발전적 방향으로서 부대 규모에 따라 지역 통합 선교지를 세워야 함을 제안한 것은 대단히 창의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다. 군단 이든 사단이든 지역으로 묶여 통합할 수 있는 선교구조를 만들어야만 양육과 파송을 지속할 수 있다는 논리이며, 군선교 현장에 먼저 선교거점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육군군종목사단은 지역군종목사단을 11개 지역으로 재편하면서 통합 선교 중심지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에 논찬자는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 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정비호 목사님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면서, 사족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로, 비전 2030 실천운동 선포식을 준비하며 매뉴얼 작성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한 한국 군종목사단과 기독교군종교구(MEAK)와 실행본부의 헌신을 연구자가 평가와 분석에 앞서 먼저 논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비전 2030 선포식은 2021년 10월 7일 국군중앙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비전 2020 실천운동이 시기적으로 종료된 지 만 2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기에, 당시 군선교 리더십들이 선교전략적 차원의 비전2030 실천운동을 혼신의 노력 끝에 작성한 것임을 먼저 논했다면 금상첨화가 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기독교군종교구(MEAK) 전국 지회별로 결연축제를 기획하여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연구자는 제33회 6.25 상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를 기회로 삼고 추진위원회(TF)를 조직하고 결연축제를 기획하여 청년선교에 관심 있는 한국교회 50곳을 구국성회 참석 장병들과 만나는 접촉선을 만들어 504명(MEAK 결연 276명, 현장 부스 결연 173명, 기신자 결연 55명)을 결연시켰던 사례를 감격스럽게 제시했다. 이와 같은 실적과 파송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면 기독교군종교구(MEAK) 전국 지회와 각 군의 군종목사단과 연구자가 논했던 통합선교 중심지들이 연합하여 정기적인 결연축제가 개최되기를 제안한다. 이는 연구자가 논한 군선교 현장과 민간 영역에서 선교대응 속도 차이가 벌어질수록 공동화현상(cavitation)은 빠르게 다가오기에 군선교 현장에 빠르게 민간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휘결심 속도를 어떻게 높일까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와 같이 군선교 현장에 적시에 그리고 속도감 있게 민간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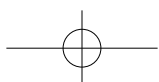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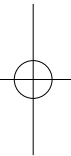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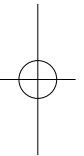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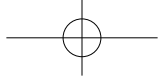
셋째로, 정기적인 비전 2030 추진평가 토론회가 매년 개최를 기대한다. 연구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2025년은 비전 2030 분기점이기 때문에 실행본부와 추진본부와 군선교 현장 동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간평가를 2024년이 지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간평가도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얻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추진평가 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비호 목사님의 역작인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 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간략한 논평을 마침에 있어, 2024한국군 선교신학회심포지엄에서 ‘비전 2030 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

래'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주신 한국군선교신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 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을 심도 깊게 연구하신 정비호 목사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논문 기고자 **Email**

sh9410@gmail.com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

The MZ Culture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Future Prospects for Military Mission

» 권수영 Ph. D.*

국문초록

이 논문은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들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겪는 문화적 충돌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다룬다. MZ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협력보다 경쟁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왔다. 이러한 특성은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에 기반한 군대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며, 특히 초급간부와 병사들 사이에서 심리적 압박감과 소통 문제로 이어진다.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폭력 대화(NVC)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장교와 병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군대 내 선교 활동에서도 MZ세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중심단어

MZ세대, 군대 문화, 초급간부, 비폭력 대화(NVC), 소통 리더십,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 논문 투고일: 2024년 9월 13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9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30일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인구 감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청년 문화는 이전 기성세대 문화와는 매우 큰 차이점을 보인다. 2030 청년들은 최근 미디어,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에 걸쳐 이전 세대와의 이질감을 드러내는 소위 'MZ세대'라는 통칭으로 불리곤 한다(강유림, 김문영, 2022). 고객들의 소비 생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나 신용카드사 등에서는 이들의 욕구와 심리를 분석하는 비즈니스 보고서들을 제시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장나연, 주진영, 신규리, 2022). MZ세대 인구는 2021년 기준으로 총 인구의 34.7%를 차지하며, 경제활동인구 대비로 보면 45%에 다다를 정도로 비중이 높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2030 청년들, 그 중 남성이라면 이전 문화와의 충돌로 인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그 곳은 다른 아닌 군대이다. 20대 남자 청년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병영 생활은 징병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개인의 욕구 취향과 감정을 중요시해 온 개인주의 성향을 고수해 왔던 MZ세대들에게 군대에서 겪는 새로운 문화는 불편한 경험이자, 고통을 주는 경험일 수도 있다.

개인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X세대 부모 아래서 양육된 MZ세대 청년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단체생활을 한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임성윤, 2023). 가정마다 자녀가 1~2명에 불과하고 핵가족에서 성장하여 협력과 배려보다는 경쟁을 통한 승자독식 문화에 보다 익숙하다. 게다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에서도 단체생활을 할 기회가 훨씬 줄어들었다. 수학여행 등 외부활동이

취소되었고 교회에서의 수련회처럼 다함께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도 대부분 사라졌다.

이러한 성장환경으로 인해 민족, 국가,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과 내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 경향이 더욱 짙어져 병영 생활에서도 병사들의 개인주의적 행태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24시간 내내 전우들과 함께 생활하고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일과를 보내야 하는 병영 환경은 기존 세대가 겪은 장병으로서의 경험보다 심리적 압박감이 더욱 높은 강도로 경험될 수 있다.

군대 문화를 연구하는 전문 필자들은 그 다양한 특징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군대문화의 특징은 무엇보다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2가지 특징은 2030세대가 지닌 일반적인 특징과는 정확하게 반대의 성격을 띤 문화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필자는 문화적 충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20대 장병들이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병영 경험을 자신의 삶의 성장 공간으로 만들고, 군선교의 시각에서 보다 영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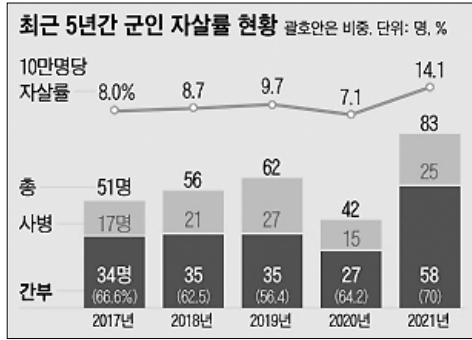
II. 장병과 장교와의 소통, 어떻게 가능할까?

국방개혁 2.0의 인력구조 재설계안에서는 2022년 기준 총 병력 50만 명 중 장교와 부사관을 대략 19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병은 대략 30만 명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20대인 Z세대 병사와 39세 이하인 M세대 병력까지 포함하면, 대략 40만 명을 선회하는 인

원이 된다. 흔히 우리가 MZ세대 장병이라고 말하면 보통 20대 초, 중반의 병사들만 떠올릴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초급간부들 역시 대부분 MZ세대에 속한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맥락상 MZ세대는 2030세대를 말하지만 사회학적 출생연도 구분에 따르면 80년 대 초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40세를 넘었다. 한국 나이로 18세부터 42세까지 포함되어 우리 군 병력의 대부분이 MZ세대에 속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국회입법조사처, 2019).

필자는 2024년 1학기에 개설한 대학원 수업 <코칭과 상담>에서 현 대한민국 군대 문화 안에서 코칭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발제를 요청한 바 있다. 현직 장교를 포함한 대학원생들(김호세, 손용은, 한규진, 강석희, 2024)은 현재 군대 내 문화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바로 밀레니얼(M) 세대라고 불리는 초급간부들의 소통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들과 Z세대 장병들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군대 내 문화 충돌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이다(윤인중, 2023).

흔히 정신건강의 지표로 활용되는 자살률을 살펴보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2022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에서 자살한 인원은 총 308명이다. 이 중 병사는 105명이고 간부는 189명이다. 그리고 군무원이 14명이다. 병사 자살 건수의 1.5배가 넘는 간부의 자살 건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에서도 다층적인 노력을 통해 병사 자살자 수는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나, 간부의 자살자 수는 꾸준히 늘어왔다. 현 병력 총원 중 간부가 40%, 병사가 60% 정도임을 고려하면 간부의 인원이 병사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자 수는 1.5배나 높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이미 군대 내에서 문화적 충돌과 불통과 연관된 간부의 자살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지 오래되었음을 방증하는 수치다(정명열, 2021).

특히 간부 자살자 189명 중 70%가 넘는 인원은 소위 '초급간부'로 분류되는 낮은 년차 직업군인들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초급간부는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등 통상 근속이 10년을 넘지 않은 간부들인데, 이 중에서도 전체의 40% 가량은 하사다. 하사는 간부 중 가장 계급이 낮고, 평균 연령도 2019년 기준 23.1세로 가장 어리다. 초급간부들이 자살하는 주된 이유로 대개 복무부적응을 꼽는다. 복무부적응의 가장 큰 요인은 상관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질책, 상급지휘관의 폭언 및 욕설, 업무미숙에 의한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상관의 폭언으로 인한 두려움과 우울증 등 관계에서 오는 부분

이 크기에 군 당국은 이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간부로서의 큰 포부를 가지고 군 생활을 시작한 초급간부들이 그들이 지휘하는 장병들과 안정적인 병력관리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군 생활 경력이 짧은 것에 비해 병사들에 대한 지휘 책임은 매우 과중하기 때문이다(정성완, 2023).

초급간부와 장병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일은 군대 내 전체 자살률은 물론 각종 사고율 감소와 안정적인 병력 관리를 위해서도 유의미하다. 과거의 병사 집중적인 병력관리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넘어서 병사와 간부 사이의 사각지대로서 취약 계층인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리더십 코칭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III. 각자의 욕구와 감정을 조율하는 비폭력 대화

각 군은 장병들의 복무 부적응 해소와 자살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심리건강 프로그램인 회복탄력성 교육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병사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간부는 실질적인 시행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2005년 시범운영 이후 장병의 심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9월 기준 총 638명의 상담관이 활동 중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군 자살사고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체 이용자 중 간부 이용률은 14.6%에 그쳐 병사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군 내부 상담 결과가 향후 장기선발, 진급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강화 권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이에 국방부는 2020년부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익명 심리상담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총 1,852명의 간부가 EAP를 신청했지만, 실제 상담 인원은 359명에 그쳤다. 국방부는 올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상담 대상 인원을 1천 명으로 확대했으나,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EAP 신청자 수만 이미 1천 명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된 인원을 정해 놓고 선착순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신청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간부 자살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 해결에 치중하지 않고 표면적인 증상에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직되고 위계적인 군 문화 속에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와 소통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지휘관의 언행으로 초급간부는 군 생활 적응 과정에서 막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순간 조직 안에서 부적응자 혹은 무능력자로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초급간부들은 진급 혹은 평가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정신과 진료나 심리상담을 꺼려할 수 있다. 그러나 군 조직은 이러한 문제를 지휘부의 소통 방식 혹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적응을 하지 못하는 초급간부의 ‘나약함’을 원인삼아 이들에 대한 ‘부대적응교육’ 혹은 ‘국방 헬프콜’ 제도, ‘민간심리지원 사업’ 등의

보여주기식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배주현, 2029).

대한민국의 군 리더십 교육은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교육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채 각 군별 혹은 각 과정별로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하급 교육기관 간에 리더십교육의 연계성이나 체계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군 조직의 초급간부가 경험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을 향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급간부와 장병 사이의 건강하고 친밀한 소통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위해 코칭 실습은 심리 상담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비폭력 대화'로 알려져 있는 소통 방식은 2030세대처럼 개인주의 성격을 가진 이들이 겪는 욕구 불만과 정서적 경험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지휘관과 장병 사이에 활용 가능한 대화법이라고 제안하려 한다. 비폭력 대화는 1960년대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마셜 B. 로젠버그(Marshall B. Rosenberg)에 의해 개발되었다. 비폭력 대화는 원어로 'Nonviolent Communication'라고 부르고 줄여서 NVC라고 부른다.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가를 의식하도록 알려줌으로써 타인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대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Rosenberg, 2004).

특히 권위주의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군대 문화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자신 및 타인의 바람(욕구), 그리고 그 바람이 무너질 때 느끼는 감정을 다룰 수 있기에 아주 유용할 수 있다. 비폭력 대화는 총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요소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본다. 네 가지 요소는 '관찰(Observation)', '느낌(Feeling)', '욕구

(Need), ‘부탁(Request)’을 말하고 두 가지 측면이란 ‘솔직하게 말하기 (Expressing Honestly)’와 ‘공감으로 듣기(Empathic Listening)’이다. 다시 말해 비폭력대화란 자신이 말할 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적용하여 솔직하게 말하고, 타인의 말을 들을 때에도 이 네 가지 요소 들을 고려하며 공감하며 듣는 일이다.

비폭력대화를 훈련한 초급간부는 장병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솔직한 관심을 보이도록 도와주어 장병들의 마음으로부터 연결된 소통을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 자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때, 장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어 마음속에 숨어있던 연민이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 속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고 로젠버그는 설명한다. 대학원 발제 과제를 위해 비폭력 대화를 활용한 코칭 교육을 초급간부들에게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한 대학원생들은 장병에 대한 연민 (compassion)에 대한 성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문화 충돌의 현장에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초급간부와 장병 모두 성장이 가능한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IV. MZ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선교 전략 만들기

비폭력 대화(NVC)의 반대되는 소통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때 폭력 대화는 그저 폭언이나 욕설이 포함된 대화만을 일컫지 않을 것이다. 비폭력 대화(NVC)의 정신에 의하면, 반대의 성격을 띤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앞서는 대화이다. 그래서 잘못된 책임은 늘

상대방이다. 군대와 같은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에서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일 수 있다.

이에 비해 비폭력 대화는 자신의 욕구 중심으로 대화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다. 그럴 때 상대방은 상처를 받지 않고 상대방의 본심과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꺼내어 조율할 수 있다. 이전 군대 문화를 경험한 기성세대에게는 이런 방식의 소통은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군대 문화에는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군대에서는 연민보다는 강력한 통제나 지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2030 세대가 군 기초 병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초급간부와 장병의 소통과 연대는 군 병력 증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비폭력 대화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기 보다는, 권위주위와 집단주의 군 문화 가운데서 2030 세대 자신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2030 세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떤 선교 전략이 필요할까? 만약 20대 초반의 장병이 군인 교회에 온다면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원할까? 아마도 이들은 자신의 주도성을 확인하고, 통제에 복종하는 행동보다 자신의 자율적인 욕구로 즐거움을 얻는 방식일 것이라고 말하지 모른다. 필자는 선교 전략에도 이런 이들의 문화적, 혹은 심리적 특성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그간 선교 전략은 이들이 병영 생활을 하는 동안 복음을 접하고 세례 교인이 되어 제대하도록 돕는 일이었다면, 현재 문화 충돌을

경험하는 2030 세대 장병에게 여전히 적절한 방식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중 예배와 다양한 집회에 출석을 요청하거나 이를 명령하는 목회 방식도 이들이 가진 청년 문화와 심리적 특성에 맞게 재고해보자. 군대 문화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는 2030세대가 가진 문화적, 혹은 심리적 특성과는 대치되는 구태의 방식일 수 있다.

최근 군인 교회에서 새로운 풍속도에 대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젊은 장병이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데, 성인예배를 드리는 대신 초등학교 교사 신청을 하여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례였다. 군종장교나 간부들은 교회에 출석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은 원하지만, 간부들이나 군인가족들과 함께 성인예배를 드리지 않고 구태여 피하려는 태도로 여겨 언짢게 여길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심리는 기성세대의 판단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일부러 기성세대와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태도이기 보다는 사회에서 드러내지 못한 자신의 욕구를 주장하고 그 욕구에 대한 충족감을 느낄 때 자신이 스스로 성장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인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자신이 주도성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매우 수동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그냥 피곤한 몸을 장의자에 기대어 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동을 위한 교사로 지원하는 일은 훨씬 자신의 욕구와 의지가 필요한 주도적 행위이다.

성인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통제를 받는 일이다. 적극적인 간부 집사님은 곧은 자세를 요청하고, 심지어 조는 장병들을 깨우러 다니기까지 한다. 소극적 참여자로 성인예배에 몸만 와 있으려 해도 군대 문화에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 오히려

러 2030 세대가 사회에서 하지 못했던 리더의 역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오히려 병영 생활 중 최고의 성장기회를 얻는 리더십 발휘 현장이 될 수도 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과외를 해 본 대학생 경험이 있는 장병을 제외하면(이런 숫자도 결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 20대 초반의 장병들에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이끄는 경험, 그들과 친밀한 소통을 만들어내는 경험은 소중한 인생 기회의 창으로 여기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통제’가 아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이들은 자신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담을 전공한 한 군인 가족은 이들 20대 초반의 장병들에게 군대 문화에 걸 맞는 매뉴얼에 입각한 요청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아동이나 청소년과 시간을 보낼 때, 전적으로 교사로 자칭한 장병들에게 전권을 줄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통제가 개입되면, 이런 2030 세대들에게는 창의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때로는 자신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아이들과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고 했을 때, Z세대와 알파세대가 엄청난 소통의 시너지를 내더라는 것이다.

V. 나가는 말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군대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엄청난 홍역을 치룰 수밖에 없다. 특히 한 자녀 가구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아서, 20대 초반 장병들이 대인 관계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타인과 깊은 의사소통과 공감에 쉽지가 않다. 사

회에서도 단체보다는 홀로 생활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겨 소위 ‘나 홀로’ 활동을 즐기며 SNS를 통한 비대면 수평적 인간관계를 추구해 온 세대이다. 당연히 권위주의와 수직적인 집단주위를 배척하는 성향이 있는 세대가 단체 병영 생활을 한다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초급간부 역시 이런 개인주의 성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초급간부는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 장병들에게 중요한 소통의 창구일 수 있다. 하지만 초급간부가 상위 지휘관들과의 불통으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장병보다 더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필자는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못지않게 20대 초반 장병들과의 연민의 소통을 강화하는 ‘비폭력 대화’(NVC)의 소통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소통 방식의 특징은 자신 안에 있는 욕구를 먼저 살피고,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면에 발생하는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기에, 2030 세대에게 매우 유익한 소통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군복무 중인 청년 세대를 위한 선교 전략을 세울 때도 이들이 가진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방법이 중요할 수 있겠다. 이들의 욕구를 먼저 살피고, 이들이 통제된 군대 문화 가운데서도 주인공처럼 자신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만들어 교회로 초대한다면, 군대를 그저 문화 충돌과 갈등의 공간이 아닌, 세대 간 따뜻한 연민의 소통을 경험하고 스스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은혜의 공간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참고문헌

강유림, 김문영(2022),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2010년 -2020년의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 24권 1호, 81-94.

국회입법조사처(2019), **국방개혁 2.0과 국방운영개혁: 국방운영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국회간담회.

김호세, 손용은, 한규진, 강석희(2024), **간부에서 간부까지: 초임간부의 부대 내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2024년 대학원 <코칭과 상담> 세미나 발제자료.

배주현(2019), **군 간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인중(2023), **MZ세대 입대장병이 바라본 군 간부와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성윤(2023), MZ 세대의 개인주의 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청소년문화포럼**, 제73호, 97-106.

장나연, 주진영, 신규리(2022), MZ세대의 자기에성향, SNS 이용동기, 과시적 여가소비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6권 3호, 53-64.

정명열(2021), 군(軍) 예비간부의 고립적 사고와 우울이 군(軍) 예비간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군사회복지학**, 14권 1호, 63-84.

정성완(2023), **육군 초급간부의 의사소통유형과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 연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Rosenberg, M. (2004), **비폭력대화**, 캐더린 한 역, 서울: 한국NVC출판사.

Abstract

The MZ Culture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Future Prospects for Military Mission

Soo Young Kwon

This paper focuses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and explores the cultural conflicts they experience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as well as communication strategies to mitigate these issues. The MZ generation tends to have a strong individualistic orientation, having grown up in environments that emphasize competition over cooperation. These traits often clash with the military's collectivist and authoritarian culture, leading to psychological stress and communication difficulties, particularly between junior officers and enlisted soldiers. The paper suggests Nonviolent Communication(NVC)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emphasizing its potential to facilitate smooth commun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officers and soldiers. Based on this, the study argues for the need for new strategies in military ministry that respect the autonomy of the MZ generation.

Keywords

MZ Generation, Military Culture, Junior Officers, Nonviolent Communication (NVC), Communication Leadership,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논문 기고자 Email

sykwon@yonsei.ac.kr

권수영의 논문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에 관한 논찬

A Comment : The MZ Culture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Future Prospects for Military Mission

» 나성한 Th. M.*

1. 요약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하는 2030 청년들,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의 특별한 문화적 특성이 기존의 군대 문화와 어떤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MZ세대의 문화와 군대문화의 특징을 말하며, 이 두 문화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MZ세대의 청년들은 민족, 국가,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과 내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 경향이 그들의 성장배경 하에 더욱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MZ세대의 문화와 충돌을 경험하는 군대문화의 대표적 특징 두 가지는 권위주의와 집단주의이다. 이러한 군대문화가 MZ세대들에게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큰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연구자는 이 두 문화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군선교 현장에서 MZ세대와 함께 할 수 있

• 논문 투고일: 2023년 10월 3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10월 3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10월 3일

* 군종 6기,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 기지교회

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주장한다.

연구자는 군대가 MZ세대들인 초급간부들과 병사들의 군대 내 스트레스 관리에 치중하는 것보다 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자살 및 각종 사고율 감소와 안정적인 병력관리를 위한 유의미한 대처라고 말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자는 초급간부들과 병사 사이의 소통을 위한 ‘비폭력 대화’의 기술을 제안한다. ‘비폭력 대화’란 자신이 말할 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적용하여 솔직하게 말하고, 타인의 말을 들을 때에도 이 네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며 공감하며 듣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군대 내 문화 충돌로 인한 어려운 상황과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MZ세대인 초급간부와 장병 모두 성장이 가능한 소통의 방식이 될 것이라 연구자는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MZ세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선교 전략을 제안한다. 그것은 바로 ‘통제’가 아닌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교 현장으로의 전환이다. 병사들의 욕구를 먼저 살피고, 이들이 통제가 강한 군대 문화 가운데서도 주인공처럼 자신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만들어 교회로 초대한다면, 군대를 그저 문화 충돌과 갈등의 공간이 아닌, 세대 간 따뜻한 연민의 소통을 경험하고 스스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은혜의 공간으로 삼을 수 있음을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 피력하였다.

2. 긍정적인 면

이 연구는 먼저 MZ세대로 불리는 군대 내 초급간부와 병사들의 청년 문화와 군대 문화의 충돌로 인한 실제적 현상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MZ세대 문화적 특

성이 그들의 성장배경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이들의 개인 주의적 성향이 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잘 분석하였다. 특히 그들이 집단문화를 더욱 낮설어하게 된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언급한다.

대한민국 군대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 기간, 코로나 확진 혹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격리를 위한 통제가 심화되었고, 오랜 시간 휴가와 외출이 제한되어 장병들의 심리 상태는 급격히 힘들어지고 있었다. 이런 통제 상황은 민간보다 강력한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장병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모든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상황 발생 직전 군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도입되었기 때문이었다. 2019년초 시범 운영 후 그해 중순부터 전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이 허가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각종 언론에서도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을 내보냈고, 정보·보안 문제 상황 혹은 협동심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군대는 많은 고심과 연구 끝에 MZ세대 장병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군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점이 더 많다고 여겨 전면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하기로 한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우연적으로 터지게 되었다. 만약 군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미리 허가되지 않았다면 장병들의 심리적 건강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어 군대 내 코로나19 상황을 잘 버틸 수 있었다.

다만 연구자가 지적한대로 코로나 상황 속 MZ세대 장병들의 개

인주의적 경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스마트폰 속에서 개인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는 능력은 올라갔지만 타인과 대면하여 집단 내에서 소통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MZ세대의 문화적 특성이 군대의 오랜 관습과도 같은 권위주의와 집단주의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자의 주장은 군대 내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두 집단의 문화적 충돌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밀레니얼(M)세대라 불리는 초급간부들의 소통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들이 Z세대 장병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군대 내 문화 충돌을 줄이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리더십 코칭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초급간부들의 소통 능력을 높이고 이들이 장병들의 건강하고 친밀한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면 집단 내 문화 충돌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한다. 이를 위한 소통 기술로 연구자는 ‘비폭력 대화’를 제안한다. 논찬자는 대학원 재학 시절 ‘코칭과 상담’이라는 수업에서 연구자를 통해 ‘비폭력 대화’(NVC 대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다. 연구자의 제안대로 ‘비폭력 대화’방법은 관계 갈등 및 소통 단절이 심화되어 가는 장병들의 군생활 가운데 갈등의 완화와 해소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연구자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 방법은 논찬자가 속한 공군에서 더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교육되고 현장에서 즉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현재 공군은 매년 4회 심리상담 초급과정 교육, 매년 2회 심리상담 중급과정을 청구에 있는 보

라매리더십 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다(모든 교육 과정은 4박 5일간 이루어져 있음). 또한 매년 2회 코칭 초급 및 중급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초급 과정은 2박 3일, 중급 과정은 4박 5일로 이루어져 있음). 이 교육은 공군의 간부면 누구나 입과 가능하다. 심리상담 초급 과정은 군상담의 이해, 단기상담, 스트레스 이해, 심리적 탄력성, 자기인식, 부정적 사고 수정, 멘탈터프니스, 심리적 응급처치를 교육하고, 중급 과정은 발달심리, 가족상담, 사례개념화, 자신과 타인의 이해, 자기 심리적 탄력성, 멘탈 터프니스를 교육한다. 커리큘럼을 보면 연구자가 지적한 대로 군대 내 심리상담 교육은 주로 장병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예방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더십 코칭 초급 과정은 코칭의 이해, 경청, 질문, 피드백, 코칭 대화모델, 종합실습을 교육하며, 중급 과정은 코칭역량과 코칭관계, 코칭 프로세스, 경청, 질문, 피드백, 코칭 스킬, 실습으로 진행된다. 커리큘럼을 통해서 코칭 교육과정을 보면, 민간에서 배우는 교육과정과 거의 흡사하지만 중급과정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더 많은 실습 시간을 갖춰야만 현업에서 코칭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심리상담과 리더십 코칭 교육 과정을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심리상담과 코칭 능력을 갖춘 간부들을 양성해 나가는 것은 공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심리상담과 코칭 과정을 이수한 간부의 수는 병력 대비 아직까지는 너무 적은 수이며 이들이 각 현장에서 어떻게 상담과 코칭을 적용하여 장병들의 군생활을 돕고 갈등의 해결자로 활약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심리상담과 코칭의 기술이 단 기간 내에 습득하여 현장에 즉시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이수를 했다고 해

도 그건 심리상담과 코칭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조금 경험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는 단기간의 교육과정과 실습을 통해 체화되어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에 공군에서의 심리상담과 코칭 교육에서 ‘비폭력 대화’를 교육하고 실습하고 현장에서 적용해나가며 ‘비폭력 대화’가 적용된 현장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이 과정을 지속 발전시켜나간다면 문화 충돌과 소통의 갈등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연구자는 2030 세대의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을 지켜나가려는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선교 전략을 제안한다. 그것은 통제에 복종하는 행동보다 자신의 자율적인 욕구로 즐거움을 얻는 현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군대 내 예배와 모임이 병사들에게 통제의 연장선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연구자의 지적은 교회 내 성인 리더인 군종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논찬자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지점이었다. 병사들의 ‘자율성’을 극대화시키자는 연구자의 주장에 대해 염려와 걱정부터 앞서는 것은 이미 병사들의 문화와 맞지 않는 ‘꼰대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MZ세대들을 단순히 어리고 미숙한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들도 자신들의 창의성과 주체성이 발휘되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며 잘 해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해주고, 편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함께한다면 연구자가 제안한 대로 계속 새로워지는 군선교 현장 속에서 좋은 선교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

3. 아쉬운 면

이 연구는 초급간부와 장병들로 이루어진 MZ세대와의 군대 내 소통 방안과 이들을 위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아쉬운 점과 보완점이 필요하다.

비록 현대사회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지만, 왜 군대 내에서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문화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더 깊은 선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군대생활은 전시 상황이 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군대의 모든 훈련과 일상은 다 전시 대비를 위해 이루어진다.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군인들은 이 목적 안에서 군의 문화와 환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견고하게 조직화되고 발전한 군대는 언제나 과거 경험한 전쟁을 반추하며 강력한 군대를 만들지 않으면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하에 지금의 군대문화를 형성시켜왔다. 이런 배경 아래 군대는 권위주의와 집단주의가 다른 어떤 곳보다 강력한 특수한 문화적 특성이 갖게 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 내에 전쟁을 직접 경험한 간부들은 없지만 그래도 간부들은 전시 대비 태세라는 목표 아래 군인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에 속해있어서 이러한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지만 문제는 의무적으로 입대해서 군생활을 하는 초급 간부와 병사들은 다른 간부들과는 달리 전시 대비 상황과 무관한 사회에 이미 훨씬 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군 입대 후 겪게 되는 문화적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문화적 충격과 충돌은 계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연구자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는 심화되고 있는 세대 및 계층 간의 문화적 충격과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방안이 되지 만 연구자가 지적한대로 이 대화 방식은 군대문화에는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연구자가 언급한대로 군대는 연민보다는 강력한 통제나 지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전시 대비 태세라는 강력하고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굳게 자리 잡힌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는 군대에서 절대 없어질 수 없는 문화라는 선(先)이해를 가진 후, 그렇다면 어떻게 ‘비폭력 대화’ 방법을 이런 군대문화 안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하며 적용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의 해결은 실제 전쟁 상황을 때때로 경험하는 다른 나라 군대에서, 예를 들어 미군이나 연합군 등에서 적용된 사례들의 피드백이 보완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군대의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는 대한민국 군대만의 문화가 아니다. 그건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은 더욱 그러하다. 또 군대 안의 세대 간 문화 충돌로 인한 갈등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비폭력 대화’ 기법이 적용되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다른 나라의 군대의 사례가 보완되면, 특히 미군과 연합군의 사례가 있다면 더욱 ‘비폭력 대화’는 더욱 정책적인 적용과 확산이 쉬워질 거라 생각한다.

연구자는 MZ세대 장병들을 위한 군선교 전략으로 ‘통제’가 아닌 ‘자율성’을 주는 선교 현장을 만들 것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군종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그동안 군교회들은 기독교병사들을 교회의 관리와 돌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만 여겨왔다. 물론 기독교병사들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이러한 섬김을 군대 내 또 다른 '통제'라고 느낄 수 있다는 연구자의 견해를 군선교 관계자 및 군교회 리더들은 깊이 숙고해봐야 한다. 비록 그들이 군교회의 리더들보다 종교적 지식이 얇고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 현장을 제공하여 '통제 당함'이라는 편견의 답을 허무는 것이 지금의 군선교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서 논찬자는 연구자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 기법을 군선교 현장에 있는 리더들-군종목사, 군교회 임직자, 기독교병사의 교사 등-이 먼저 필수적으로 교육받고 실습을 거쳐 군교회를 소통의 공동체로 만들어감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렇게 군선교 현장의 리더들이 MZ세대를 향한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과 같은 마음의 눈높이에서 대화하여 소통하는 연결자들이 된다면 점점 어려워져 가는 복음 전파의 현장을 특별한 은혜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선교가 시작될 것이라 전망한다.

논문 기고자 Email

nassung1206@gmail.com

연구위원 논문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 재고(再考):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을

중심으로

| 이규철 |

코칭의 이해와 군예의 적용

| 김상만 |

군 상황에서 도덕적 상해의 심리적 이해와 군종목사의 상담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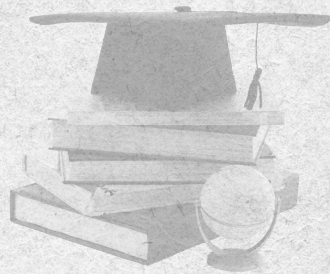
| 전요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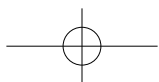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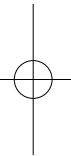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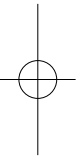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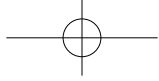
복음의 증인: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를 중심으로

| 문시영 |

교회갈등 관리 방법 연구

| 이용락 |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 재고(再考): 「한국군 선교신학회 논문집」을 중심으로

Review on the Growth Plans for Military Church: Focusing on The
Journal of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 이규철 Ph. D.*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을 중심으로 진중군인교회의 성장방안과 관련한 여러 요인과 방법론들을 검토한다.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은 결코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복잡적이며 통합적인 방안적용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한국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군선교사단이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안팎으로 다변하는 군선교 현장을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반 방안들을 모색하고 적용해 나가는 부단한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심단어

진중군인교회,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비전2020실천운동,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

• 논문 투고일: 2024년 7월 24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7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5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장, 안동성결교회

1. 들어가는 말

진중군인교회의 '성장'¹⁾은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인 '군(軍) 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²⁾의 핵심관건이다. 진중군인교회가 회복하고 성장하면 한국군 복음화, 나라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인류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체의 선교 사명을 이루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진중군인교회성장방안과 관련하여 한국군선교연합회

1) 선교사적으로 '교회성장'(Church Growth)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는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이다. 맥가브란은 '전도와 선교'라는 전통적 개념 대신 '교회'와 '성장' 개념을 합쳐 '교회성장'이라 명명했다. 맥가브란에 따르면, 교회성장은 잃어버린 자들이 발견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방황하는 자들은 교회로 돌아와 말씀의 꿀을 먹을 때 교회는 증대된다. Donald A. McGavran, 『교회 성장 이해』, 전재욱·김종일·이요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7), 32; 『교회성장론』에 따르면, 교회성장은 일반적으로 '양적으로 교인수가 증가하는 것, 신앙의 질적 내적 향상, 교회의 지리적 확장' 등 세 측면을 포괄한다. 이종윤·전호진·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3), 248.

2) 「비전2030실천운동」 지침서(MANUAL)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한국군종목사단, 2021), 5-42. '군(軍) 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은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세례(침례)를 주고, 양육 및 관리하여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가장 본질적인 군선교 3대 사역에 중점을 두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고 전망하여 수립한 건강한 선교전략과 목표 아래, 육·해·공군 군인교회와 군선교연합회,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과 한국교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해가고자 하는 연합 군선교 실천운동"이다. '군(軍) 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의 핵심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군선교 VISION 2030 핵심개념〉

1.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백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2. 군종목사와 군인교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 실행, 추진되는 선교캠페인
3. 육/해/공군 각 군의 선교 상황에 맞는 프로젝트 추진
4. 한국교회와(거점교회중심으로) 함께 진행하는 협력선교사역(청년사역)
5. 실질적인 열매로 이어지는 선교 캠페인(허위수치, 허위보고 없는 군선교)
6. 선교에 도깨비방망이 없다. 꾸준하게 진행해 온 프로그램 지속추진(매우 다양)
7. 지속적인 비전 업(열린 구조)-군종목사모임(상시적인토론, 전략수립, 추진평가), 정기적인 성도교육, 임직교육 포함 등
8. 육군의 경우, 군선교 비전 2030 추진본부 조직이 육군 군목단 전체 조직으로 발전.

〈비전 2030 파송사역 개요〉

1. 파송목표-매년 10만 명(육/해/공, 신규세례자 6만 명+기세례자 4만 명) 군인교회 연간 평균 100명 파송 목표
2. 파송대상-군인교회 내 모든 신자 장병
3. 파송시기- 6개월 전부터 온라인 사전파송 가능/ 전역이후 실제 파송
4. 평가 ① 매월 군인교회 파송 현황 집계/중합: 지역군목단→ 추진본부(파송분과)
 - ② 매분기/매년 파송 현황 중합, 평가, 전망(2030년까지 지속)
5. 핵심추진분야-거점교회확보(MEAK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본부)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가 논의하여온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인 「군선교 신학」과 「군선교, 청년」에 게재된 학술논문에 반영되고 제언된 진중군인교회성장방안을 재고(再考)한다. 그리고 「군선교 신학」과 「군선교, 청년」에 표명된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의 핵심 요인인 진중군인교회 성장의 당위성과 그 필요충족방안을 통전적으로 평가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2.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에 등재된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 관련 논문 재고(再考)

1) 2004년 ‘임성빈’의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 기독교문화의 관점에서”³⁾는 ‘21세기 새로운 세대의 문화와 병영문화 변혁을 위한 교회의 역할’⁴⁾을 모색한다. 이는 21세기의 병영문화가 병영에 거주하는 N세대(Net Generation)에 속하는 이들의 문화⁵⁾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논자는 진중군인교회의 주 구성원인 N세대를 섬기는 교회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더 섬기며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영역

3) 임성빈,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 기독교문화의 관점에서,” 「군선교신학」 1 (2004): 264-289.

4) *Ibid.*, 287.

5) 임성빈은 N세대의 문화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집약한다. 첫째 매우 독립심이 강하다. 둘째 지적인 개방성이 뚜렷하다. 셋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포용성이 강하다. 넷째 아주 새로운 것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혁신에 익숙하다. 다섯째 자기 선호도에 따라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섯째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도 강하다. 일곱째 새로운 것이나 무엇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성급하다. 여덟째 매우 빠른 속도감을 즐긴다. 그렇다고 이들의 속도감을 대책 없는 성급함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을 선교의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통전적 영성 즉 몸과 영혼, 세상과 교회와 같은 이원론적 도식을 극복하는 온전한 성경적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문화적 삶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 넷째, ‘개혁된 교회, 항상 개혁되어야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지표에 현대교회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진중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⁶⁾

평가하면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에 대한 임성민의 논고는 N세대 장병선교의 접촉점으로서의 문화를 모티프로 삼아야 한다는 통찰이다. 동시에 진중군인교회가 비전2030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를 매개로 한 복음의 접촉점 형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사려 된다.

2) 2004년 ‘김상만’의 “군인교인 신앙성장을 위한 목회상담 임상사례”⁷⁾는 “군인교회 프로그램의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예술심리치료를 통한 목회상담의 한 시도”⁸⁾이다. 김상만은 ‘표현예술 치료 프로그램’⁹⁾을 통해 신앙심 함양을 꾀하고자 했는데, 예술치료를 통해서

6) *Ibid.*, 288-289.

7) 김상만, “군인교인 신앙성장을 위한 목회상담 임상사례,” 『군선교신학』 2 (2004): 351-364.

8) *Ibid.*, 352.

9) 논자가 실행한 표현예술 치료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 이름그림, 관계그림, 현재와 미래, 지점토파티, 카테일파티, 집단 그림, 동작과 그림, 셀프그래프, 원그림/셀프박스’ 등으로 구성된다. 표현예술 치료 프로그램 과정은 다음과 같이 120분간 진행된다.

- 1) 준비찬송 한 곡 내지 두 곡/3분.
- 2) 기도/2분.
- 3) 설교(성경말씀/개인경험/역사적 조명/현실 문화적 이해)/5분.
- 4) 강의(예술치료 이론/목회상담 이론)/10분.
- 5) 각 회기 프로그램 실시/90분.
 - 1) 형상화 작업: 미술도구(크레용/파스텔/지점토/색연필/물감)
 - 2) 상징화 작업: 개인의 생각을 표현 및 작업
 - 3) 의사소통: 팀 안에서 각자의 느낌, 의미, 상징 등을 발표하게 하고, 피드백을 함
 - 4) 관계성: 전체 앞에서 각 조별로 발표하게 하고, 질문을 통해 상호이해
- 6) 전체 정리 및 질문/5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보다 더 성숙한 신앙심을 갖는 결과를 산출했다”¹⁰⁾고 보고한다. 이에 김상만은 신앙적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치료가 진중군인교회와 분노자살 군무이탈을 예방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제언한다.

3) 2005년 ‘정두영’의 “군인교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교회 발전”¹¹⁾은 “단순한 군인교회 성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군인교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모델은 무엇인가 하는 것”¹²⁾을 살펴보는 데 집중한다. 무엇보다도 정두영은 ‘교회발전 모델’¹³⁾을 분석하면서, “군인교회들은 군대 조직체계 네트워킹과 더불어 연합과 네트워킹 교회발전 모델을 도모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¹⁴⁾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셀 가정교회 조직으로 된 목장운영과 평신도 목자훈련을 도모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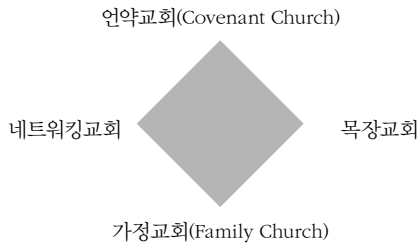
7) 함께 통성 기도/5분

10) *Ibid.*, 362.

11) 정두영, “군인교회 발전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교회 발전,” 『군선교신학』 3 (2005): 307-382.

12) *Ibid.*, 310.

13) *Ibid.*, 379. 정두영이 제시하는 교회발전 모델은 다음 도형과 같다.



14) *Ibid.*, 377.

목장교회발전을 도모한 언약교회를 세워 네트워킹 교회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¹⁵⁾고 진중군인교회 발전을 제안한다.

4) 2006년 이종윤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하여”¹⁶⁾는 ‘군선교 현장에 상존하는 제반 문제점들’¹⁷⁾을 해소하고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성경적 전도전략을 분석하고 제안한다. 먼저 이종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비전 성취 과정인 일명 ‘홍해 작전, 여리고 작전, 가나안 정벌 작전, 그리고 갈렙의 지도력에 기반 하는 성경적 전도전략’을 모색한다. 이종윤이 모색한 ‘홍해 작전, 여리고 작전, 가나안 정벌 작전, 그리고 갈렙의 지도력에 기반하는 성경적 전도전략’은 ‘말씀작전’과 ‘기도작전’으로 압축된다. 이종윤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말씀작전과 기도작전에 기초한 실질적 선교 방안들¹⁸⁾을 제시한다. 또한 이종윤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주안점을 대대급 단위 교회에 맞추어 실질적인 선교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⁹⁾

15) *Ibid.*, 379.

16) 이종윤,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하여,” 『군선교신학』 4 (2006): 43-79.

17) *Ibid.*, 45. 이종윤의 분석에 의하면, 군선교 현장은 내외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진중세례자의 소수만이 신앙생활을 유지, 군인교회와 군선교회 그리고 민간교회와의 연계성의 미비, 진중세례를 받는 장병들의 숫자가 다소 감소하고 질적으로 퇴보하는 경향, 군목 등 지도자가 부족하여 군인교회의 체계적인 양육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군 구조개편과 병역자원감소 등 군 환경의 변화, 기독교의 진중세례가 타종교의 선교 및 포교에 동기 부여와 거센 도전을 유발, 이단 및 소수 종교가 군내 침투와 군중 파송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여러 종교와 종단들의 군선교 과열현상 유발, 국가 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종교 활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 등이 강화되고 있다.

18) 이종윤이 제시한 실질적 전도전략들은 “한국 교회의 연합과 일치, 특별기도회, 소그룹 성경 공부, 진중세례의 활성화, 대대급 단위의 교회 설립, 군선교 일반 사역자 파송 및 교육 훈련 과정 개설, 비전부흥회, 지도력 세미나 실시” 등으로 집약된다. *Ibid.*, 45-72.

19) *Ibid.*, 76.

종합해서 볼 때, 이종윤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는 군선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성경적 전도전략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고 사료된다.

5) 2006년 ‘민상기’의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민간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²⁰⁾는 성공적인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해 군선교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민상기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군선교를 후원하는 민간교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 다섯 가지 실행의지를 요청한다. 첫째, 군선교 회원교회의 담임목사의 관심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둘째, 군선교 전담교역자 및 담당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비전2020실천운동 관련 자료의 보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비전2020실천운동에 따른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을 위한 유기적인 지원 능력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전교인의 기도와 성원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군선교를 후원하는 민간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논한 민상기의 논문은 비전2020실천운동뿐만 아니라 군(軍)선교비전2030 실현을 위해서도 긴히 요청되는 의제(agenda)임을 일깨우는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6) 2007년 ‘김현택’의 “신세대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집단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²¹⁾는 군

20) 민상기,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민간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4 (2006): 369-403.

21) 김현택, “신세대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집단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5 (2007): 354-384.

내 신세대 장병간의 갈등관계 및 의사소통의 차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는 기독교적 접근 대안을 적극 모색한다. 김현택은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성격유형 검사 도구인 MBTI와 교류분석의 마음그림검사(자아상태)인 Ego-gram을 활용하여”²²⁾ 신세대 장병(공군방공포병 장병)들을 분석한다. 특히 김현택은 이를 바탕으로 신세대 장병을 돕는 군중활동의 방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²³⁾의 군중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장병들을 도와주는 상담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군중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신세대 장병에 맞는 예배와 설교 그리고 각종프로그램이 연구개발 되어야 한다. 넷째, 교회와 세계를 위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군중활동이 필요하다.²⁴⁾ 종합하면, 이상에서 살펴본 김현택의 제언은 ‘군(軍)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의 전도/양육 의제인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를 구현하며 진중군인교회의 성장을 위한 통찰을 시사해준다고 사료된다.

7) 2009년 ‘김진섭’의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²⁵⁾은 “군선교 현장에 여성 사역자를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선교 결실의 물꼬를 터는 진중교회 양육사역에 진력하자는 것과 신학대학원의 1/3을 점유하는 여성 신학생으로 하여금 사역지가 없어 목회지

22) *Ibid.*, 356.

23) 김현택이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중활동은 ‘군 복무 패러다임의 전환’과 연계된다. 김현택은 많은 장병들이 피동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그 결과 전역 후에도 소극적 인생을 살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김현택은 장병들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리더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Ibid.*, 378.

24) *Ibid.*, 358.

25) 김진섭,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군선교신학』 7 (2009): 34-72.

가 아닌 곳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군선교 현장에 적극 투입하자는 선교 전략을 제시²⁶⁾한다. 김진섭의 논고에서 진중군인교회성장방안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민간교회에서 전도를 위해 훈련된 평신도 여성 사역자를 군선교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²⁷⁾이다. 민간 평신도 여성 사역자를 군선교 현장에 투입하자는 김진섭의 제안에 대해 이규철은 민간교회에서 훈련된 평신도 여성 사역자를 군선교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단은 각 사관학교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도 어머니, 기도 아버지’ 활동을 모델로 삼아 군인교회 여성 성도들에게 제자화 교육을 시켜 군선교의 동역자로 삼는 수고를 더하기를 촉구²⁸⁾한다. 이는 군대문화와 좀 더 친숙한 양질의 군인 교회 여성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매우 유효한 진중군인교회성장방안 개연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8) 2009년 ‘주연중’의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²⁹⁾는 군선교에 있어서의 여성 사역자의 일반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남성적인 공동체인 군에서 어머니로서의 여성 사역자

26) 이규철,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찬,” 「군선교신학」 7 (2009), 73-74.

27) 김진섭은 민간교회에서 훈련된 평신도 여성 사역자를 군선교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은 양육여건이 열악한 대대급 진중교회 목회자를 도와 ‘세례장병’ 양육분야를 이들이 맡는 것인데, 그럴 경우 양육자 부족과 각종 자원이 제한되고 정서적으로 무미건조하기 쉬운 군선교 현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한다. 김진섭,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66.

28) 이규철,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찬,” 76.

29) 주연중,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 「군선교신학」 7 (2009): 77-108.

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효과적인 여성 사역을 위한 세 가지 제언³⁰⁾으로 귀결에 이른다. ‘김성봉’은 주연종의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에 대해 “아직 현실적 여건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훈련을 거친 여성 사역자들이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같은 상담자로서 남자 군선교 담당자들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³¹⁾고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복음으로 훈련된 여성 사역자를 군선교 현장에서 적극 활동케 하는 것은 ‘군(軍)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의 전도/양육 아젠다를 구현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9) 2011년 ‘안명준’의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³²⁾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복음전파와 선교와 구제의 역동성을 잃어가게 하는 부흥의 저해 요인들을 규명한다. 이런 점에서 진중군인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역자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안명준에 따르면, 성경적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온 세상에 넓히는 영적 운동’³³⁾이다. 안명준이 지목한 교회의 성경적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믿음보다 이성을 강조, 도전의식과 거룩한

30) 효과적인 여성 사역을 위한 주연종의 제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여성사역은 여성 다워야 여성의 감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둘째, 남성들이 병영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남성사역자와 동역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1) 김성봉,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찬, 『군선교신학』 7 (2009): 112.

32) 안명준,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 『군선교신학』 9 (2011): 234-255.

33) *Ibid.*, 236. 안명준은 성경적 부흥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며,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땅 끝까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라고 귀결 짓는다. 그런데 안명준에 의하면, 죄의 세력이 강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위기의 현상이 나타난다. 곧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멀어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된다. 동시에 호세아 4: 6의 지적처럼 헛된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파괴된다. *Ibid.*

열정의 상실, 말씀 연구에 소홀함, 개혁의 거부, 기복신앙, 기독교 세계관의 부재, 다양한 전도방법의 부재, 목회자의 위기, 공동체 의식의 파괴³⁴⁾ 등이다. 이에 안명준은 “무엇 때문에 부흥을 원하는가… 그것이 나의 존재의 부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부흥의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 된다는 경고에 겸손해 지지 않을 수 없다”³⁵⁾고 토로 하면서 진중군인교회의 회복과 성장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독려한다.

10) 2012년 이종윤의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의 실천적 방안”³⁶⁾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 10: 25-37)를 모티프로 삼아 군내 사고예방과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건강한 병영 만들기를 도모하는 ‘선샤인 캠페인’(sunshine campaign, 선한사마리아인)의 성서적 원리와 실천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이종윤은 선샤인캠페인을 ‘자비사역’으로 규정한다. 이종윤은 선한사마리아인이 보인 자비의 모범(paradigm)을 그리스도인의 표시로 긍정한다.³⁷⁾ 여기에 더하여 이종윤은 ‘디아코니아’(diakonia)를 자비사역의 신학적 구동원리라고 규명하면서, ‘말씀사역과 행위사역의 필수성’을 해명한다.³⁸⁾ 특히 이종윤은 말씀선포를 강조한다. 이는 말씀의 들음이 믿음을 산출하고(롬 10: 16-18) 믿음이 선한 행실을 낳기 때문이다(약 2: 1-23).³⁹⁾ 그리고 이종윤은 “외인으로부터 사권의

34) *Ibid.*, 239-254.

35) *Ibid.*, 255.

36) 이종윤,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의 실천적 방안,” 「군선교신학」 10 (2012): 11-47.

37) *Ibid.*, 16.

38) *Ibid.*, 20.

39) *Ibid.*, 25-30.

관계로, 사킴에서 친지의 관계로, 친지에서 친구의 관계성을 통해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신뢰의 풍토를 만드는⁴⁰⁾ 실천적 방안으로서 ‘stop, look, listen’을 선샤인 캠페인의 기축기제(機軸機制)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⁴¹⁾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윤의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교회의 실천적 방안”은 병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복음의 실천기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과 진중군인교회 성장을 갈망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종윤의 이 논문은 깊은 영감을 준다고 사려 된다.

11) 2012년 ‘오희준의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교 장병 양육 연구”⁴²⁾는 ‘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군선교의 일선 현장인 대대급 교회에서의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통한 바른 신앙관 확립 방안’을 살핀다. 오희준에 따르면, 산돌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장병 양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부대에 배치를 받고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이다. 이 새신자 프로그램

40) *Ibid.*, 31.

41) *Ibid.*, 31-34. 이종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발견되는 ‘선샤인 캠페인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그리스도의 사랑), ② 정확한 진단: 가까이 접근하여 상태 확인(관심표현), ③ 응급조치: 기름, 포도주를 붓고 싸맨(문제해결), ④ 계속치료: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 계속 돌봄(지속적 관리), ⑤ 사후관리: 주막주인에게 비용 부담하고 계속 돌볼 것 주문(끝까지 책임). 아울러 이종윤은 선샤인 캠페인에 있어 ‘천사 역할 실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① 인사하기: 먼저 접근하는 당신이 천사(웃으며, 눈을 맞추고, 악수하며, 이름을 부르며 정중하게), ② 경청하기: 공감하는 당신이 천사(이입감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③ 동행하기: 함께 하는 당신이 천사(위기의 순간에 헬퍼로서), ④ 칭찬하기: 격려하는 당신이 천사(낙심 중에 소망을 갖도록), ⑤ 선행하기: 구원을 베푸는 당신이 천사(생명구원을 열심히).

42) 오희준,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교 장병 양육 연구,” 『군선교신학』 10 (2012): 245-270.

을 통하여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장병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둘째, 동아리 활동을 통한 양육 프로그램이다.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동아리 활동에 하나의 동아리로 등록하여 38주 동안 기초과정, 성장과정, 성경개관과정, 성숙과정으로 4단계의 양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과정은 순환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중간에 참여해도 어려움이 없다.

셋째, 생활관에서의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이다. 평일 자유시간에 각 포대에서 군중 및 신우들의 인도로 소그룹 활동을 진행한다.⁴³⁾

오히준에 따르면, 동아리 활동과 소그룹 활동에 의한 양육 프로그램 시행은 <2825부대 신자 현황 조사>에서 보듯 전반적으로 혁혁한 결과를 양산하였다.

<표1> 2825부대 신자 현황 조사⁴⁴⁾

| 구분 | 합계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무교 |
|-------|-----|------------|-----------|-----------|-------------|
| 2009년 | 381 | 92(21.14%) | 24(6.29%) | 31(8.13%) | 234(61.42%) |
| 2010년 | 378 | 155(41%) | 37(9.78%) | 45(11.9%) | 141(37.3%) |
| 2011년 | 342 | 169(49.4%) | 34(9.9%) | 34(9.9%) | 105(30.7%) |

종합하면, 오히준의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교 장병 양육 연구”는 신앙 환경이 넉넉하지 않은 대대급 군인 교회지만 군선교사들의 진중한 사역과 신실한 군중병들을 비롯한 신우회원들의

43) *Ibid.*, 257.

44) *Ibid.*, 264. 오히준은 전수결과가 꾸준히 증가한 요인을 2가지로 꼽는다. 첫째,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세례 받고 부대에 배치된 장병들이 교회에서 실시한 새신자 양육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 둘째, 동아리 활동을 통한 성경공부와 주 중에 각 포대에서 군중병이나 신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양육 받음으로써 신앙이 성장 하여 전수 조사 시 자신이 기독교 신자임을 드러냈기 때문. *Ibid.*, 265.

충성된 헌신이 결합되어 장병들의 군복무기간 지속적으로 양육에 힘쓰다면 대대급 군인 교회 또한 능히 질적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확증해준다.⁴⁵⁾ 이런 점에서 오희준의 연구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의 핵심적 추동력인 대대급 군인교회의 실질적 성장방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다고 평가된다.

12) 2013년 ‘이규철’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⁴⁶⁾는 “군종목사를 파송한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민족복음화 선교 전략인 비전2020실천운동의 전반적 추진방향이 비전2020실천운동 발족 당시에 설정한 본질적 가치와 부합되는지”⁴⁷⁾ 가늠해 본다. 이규철의 분석에 따르면, 비전2020실천운동은 전군신자화로 대변되는 진중세례운동이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승화되어 민족복음화라는 대(大)사명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⁴⁸⁾ 그런데 이규철은 대대급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긴밀히 협조하여 진중(대대)교회별로 순회 부흥사를 파견한 일일 부흥회를 개최하는 방안”⁴⁹⁾을 제안한다. 이규철의 이 제안은 성공적인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을 성취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영적 모멘텀을 줄 수 있다고 전망된다. 이에 한

45) ‘홍석균’ 또한 오희준의 논의 맥락과 일치하는 주장하에 ‘저녁 예배 시간을 활용한 강의식 양육, 젊은 청년들에게 맞는 체계적인 양육 과정으로 훈련’할 것을 제안한다. 홍석균,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 사역 모델에 관한 연구,” 『군선교신학』 10 (2012): 293-319.

46) 이규철,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군선교신학』 11 (2013): 138-167.

47) *Ibid.*, 140.

48) *Ibid.*, 166.

49) *Ibid.*, 166. 이규철은 대대교회별 특별 집회는 장병들의 영성 강화와 함께 결신한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영적 사기를 진작시켜 장병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견한다.

국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이 협력하여 영적 활력과 성장이 필요한 진중교회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사려 된다.

13) 2014년 이종윤의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⁵⁰⁾은 군인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예배가 “맥도날드(McDonald)처럼 대중적이고 싸구려의 시시한 소위 Mc-Worship으로 전락했다”⁵¹⁾는 문제의식 아래 성경적 예배로의 변화를 논한다. 한국교회의 예배와 설교와 찬양과 관련하여 이종윤이 지적한 문제점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많은 한국교회들이 예배에 참가하는 회중의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한 나머지 예배와 집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⁵²⁾ 둘째, 대부분의 한국교회에 신학적 교리 설교가 부재

50) 이종윤,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군선교신학』 12 (2014): 11-37.

51) *Ibid.*, 36.

52) 이종윤은 예배 격식이나 절차의 필요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집회 형식의 예배를 우려한다. 이종윤에 따르면, 집회는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과 서부개척기에 있었던 ‘변방예배’(Frontier worship)에서 유래한다. 조나단 에드워드(1703-1758, 제1차 대각성운동)나 찰스 피니(1792-1875, 제2차 대각성운동)가 대표적 인물이다. 예배 전통 가운데 설교 사역이 뜨거워지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지만 천막을 치고 야영 집회를 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탈예전적인 심한 갈등들을 유발했다. 왜냐하면 예배분위기는 기도, 찬양 심지어 성경봉독까지도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 행위로 격하시키고 그 외 모든 것은 경험이나 회심의 황홀경을 함께 하도록 강조하는 위험한 경지를 보편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종윤에 의하면, 1884년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참석하고 경험했던 집회의 기도, 찬송, 성경봉독보다 설교가 전부라는 변방예배를 그대로 이 땅에 이식했다. 이 변방예배가 한국교회의 예배 모델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예배의 전부라고 알고 있다. 더욱이 한국교회는 성경을 우리말로 처음 번역할 때 ‘예배’라는 개념을 멀리했다. 무려 한 세기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 임혀진 개역성경(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경배, 섬김’ 등으로 번역했다. 신약의 경우 예배라는 개념은 14회에 불과하다. 영어권 흠정역(KJV)이 worship이라는 단어를 구약 115회, 신약 75회 사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예배라는 이름을 난발하고 있다. 돌 예배, 생일예배, 회갑예배, 개업예배, 축하예배, 기공예배, 출판 예배 등 이런 것들이 예배에 대한 무지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종윤은 한국교회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이슈라고 지적한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event), 특히 하나님의 창조 은총과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람들이 감격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Ibid.*, 14-15.

하며 특히 주석적 강해설교가 약화되고 있다.⁵³⁾ 셋째,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음악에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⁵⁴⁾ 이에 이종윤은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진중군인교회의 문제이기에 ‘예배신학과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신중히 제안한다.⁵⁵⁾

종합하여 보면, 이종윤의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은 오늘의 예배 갱신의 신학적 당위성⁵⁶⁾을 논한 직설(直說)이라고 사료되기에, 진중군인교회 사역자 또한 예배의 부흥을 위해 진지한 영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4) 2014년 ‘김동연’의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⁵⁷⁾은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전력 단위부대인 대대급 교회의 활성화를 모색한다. 김동연은 대대급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대급교회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사역하는 군선교교역자(군선교사)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동역이 필요하다⁵⁸⁾고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대급교회 활성화방안을 압축하여 제안한다.

- 첫째, 군선교교역자의 보임 안정이 필요.
- 둘째, 부대 지휘관의 신앙전력화 의지와 세심한 관심 필요.
- 셋째, 신실한 군종병들과 기독교장병들의 헌신.
- 넷째, 심령이 가난한 장병 중심 활동.

53) *Ibid.*, 21-30. 이종윤은 목회자의 사역 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역은 없다는 전제하에 강해설교의 아웃라인(outline)을 제시한다.

54) *Ibid.*, 17-21.

55) 이종윤은 “성경적 예배 회복을 위해 현대예배에 첨가된 새로운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혁할 것, 설교는 가급적 강해설교를 하며, 은사와 직분에 따른 절제와 경건의 권위와 가치를 다시 세우자”고 역설한다. *Ibid.*, 33-35.

56) 이종윤에 의하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The most momentous), 가장 긴급한 것(The most urgent), 가장 영광스러운(The most glorious) 성도의 행위’이다. *Ibid.*, 37.

57) 김동연,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군선교신학』 12 (2014): 91-117.

58) *Ibid.*, 100-106.

- 다섯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용.
- 여섯째, 기독교간부 및 군인가족들의 봉사 권장.
- 일곱째, 신교대 세례자의 추적 관리 및 양육-민간교회와의 네트워크 동역은 필수적.
- 여덟째, 대대 지휘부와의 좋은 유대 관계 형성과 부대 유익을 제공.
- 아홉째,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동역 필요⁵⁹⁾

정리하면, 대대급교회가 활성화되면 군내 악성 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으며 장병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⁶⁰⁾이라는 김동연의 전망은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을 가속화하는 실질적 방안 중 하나라고 사려 된다.

15) 2015년 ‘이규철의 “대대급 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 체계의 표준화 방안”⁶¹⁾은 대대급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배 형태와 교육체계에 관한 표준화를 제안한다. 이는 대대급 교회의 예배형태와 신앙교육이 “군인교회의 환경과 군선교교역자의 목회적 방침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⁶²⁾이다. 이규철은 대대급 교회의 예배와 신앙교육의 현 주소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진중군인교회에서의 예배 형식은 『군인교회 예식서』에 준해서 기획하고 내적 일치를 겸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진중 교회들의 예배 형식의 다양화를 극복하고 진중 교회의 일체성을 강화하며 복음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는 토대를 굳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진중군인교회에서의 기독교 장병 양육 체계의 미약성과 통전성의 미비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공적 수행, 특히 대대급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59) *Ibid.*, 107-115.

60) *Ibid.*, 115-116.

61) 이규철,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 체계의 표준화 방안,” 『군선교신학』 13 (2015): 75-120.

62) *Ibid.*, 77.

따라서 대대급 교회를 포함한 진중 군인교회에 이미 보급되어 있는 제반 교재를 이용한 기본 유형을 표준점으로 삼아 각급 군인 교회가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양육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⁶³⁾

대대급 교회 활성화를 위해 예배 형식과 장병 양육 교육 체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이규철의 제언은 내실 있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유효한 내적 성장 방안이라고 사려 된다.

16) 2015년 ‘전요섭’의 “대대급부대 세례신자 양육방안에 관한 연구-통신교육을 중심으로”⁶⁴⁾는 “진중세례를 통해 신자화된 병사에 대하여 대대급 부대에서 통신교육을 통해 세례신자를 양육할 것을 제안”⁶⁵⁾한다. 무엇보다도 전요섭은 “육군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시행되는 진중세례를 긴박한 특수상황 및 응급상황으로 이해하고 선(先)세례 후(後) 양육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타당성”⁶⁶⁾을 긍정한다. 특히 전요섭은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들을 신앙으로 양육함에 있어 ‘비접촉성 영상매체를 이용한 원격학습(distance learning)으로서의 통신교육’⁶⁷⁾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전요섭은 세례신자 양육방안으로서의 원격교육인 통신교육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집약한다.

통신교육은 비용대비 교육효과가 크고, 학습자의 집중도가 높고, 교육기회와 대상을 최대화 할 수 있으며, 이동이 통제된 집단에서 교수자-학습자 간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하고, 소집

63) *Ibid.*, 115-116.

64) 전요섭, “대대급부대 세례신자 양육방안에 관한 연구-통신교육을 중심으로,” 『군선교신학』 13 (2015): 300-319.

65) *Ibid.*, 317.

66) *Ibid.*, 317.

67) *Ibid.*, 308.

교육의 부담을 해소해주는 장점이 있다. 통신교육관리자는 대대급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군 민간성직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민간성직자는 군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으므로 관리책임을 맡아 군중조직과 MCF조직을 활용하여 통신교육학습자인 세례신자들을 권면, 독려,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지지 연결망 형성은 병사들로 하여금 좌절을 쉽게 극복하게 하고, 자살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다.⁶⁸⁾

통신교육을 활용한 대대급부대 세례신자 양육방안에 관한 전요섭의 제언은 세례 신자를 건강하게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의 전도양육 방안으로 채택하여 좀 더 깊은 실행방안을 연구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7) 2016년 ‘이종윤’의 “오늘의 설교의 개혁”⁶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운동’⁷⁰⁾을 모티프로 삼아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에게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의 당위성과 실제적 측면⁷¹⁾을 강조한다. 이종윤은 “강해설교는 성경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영적 의미를 찾아 거기서부터 성경진리를 찾아 제시하는 것으로서 명령께서 설교자의 삶에 먼저 적용시키시고 그 설교자를 통해 그의 회중에게 적용 시킨다”⁷²⁾고 강해설교의 의의를 집약한다. 이종윤에

68) *Ibid.*, 317.

69) 이종윤, “오늘의 설교의 개혁,” 「군선교신학」 14 (2016): 8-29.

70) *Ibid.*, 9.

71) *Ibid.*, 18-26.

72) *Ibid.*, 21. 이종윤에 의하면, 현대 교회에서 강해설교가 점차 사라지는 주된 이유는 성경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 때문이다. 오늘날의 시대에 강해설교가 필요한 것은 강해설교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해설교가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깊이 있게 하고 회중을 도우며 성경 전체를 취급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제공하며, 설교자에게 토요일 밤의 고민을 없게 해주는 큰 유익을 끼친다.

따르면, ‘성경중심의 설교’(Bible-centered preaching)는 성경 본문과 현실세계의 두 지평의 융합(to fuse)을 찾는 강해설교자의 과제이다.⁷³⁾ 특히 이종윤은 복음의 설교자들에게 ‘강해설교자로서의 실제적 준비’를 다음과 같이 집약한다.

- 첫째, 빈 마음으로 묵상하라.
- 둘째, 성경 본문을 충분히 읽어라.
- 셋째, 분명하게 기록해라.
- 넷째, 뜨겁게 기도로 익혀라.
- 다섯째, 자신이 설교한다는 것은 잊고 설교하라.⁷⁴⁾

정리하면,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등가적 당위성이 있다고 역설한 이종윤의 “오늘의 설교개혁”은 대대급교회를 직접적으로 사역하는 군선교사와 군중목사, 그리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심비를 크게 두드린다.

18) 2016년 이종윤의 “파트너십과 합작을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자-군중목사와 군선교 교역자의 관계정립을 위하여”⁷⁵⁾는 진중군인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군중목사와 군선교교역자들의 파트너십의 당위성을 논한다. 무엇보다도 이종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몸 된 교회의 분열은 세계 선교의 방향을 방

Ibid., 12-16.

73) *Ibid.*, 23. 이종윤에 의하면, 강해 설교자에게는 성경본문을 설교자의 경험 속에서 재번역(retranslate)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곧 시대 상황에 따라 관심과 이슈와 문화의 제반(諸般) 스펙트럼(spectrum)이 다르지만, 설교자는 성경의 세계와 청중이 살고 있는 세계 사이를 연결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이 말씀의 의미와 함의를 찾아 그 말씀을 적절하게(relevance)선포해야 한다.

74) *Ibid.*, 24-25.

75) 이종윤, “파트너십과 합작을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자-군중목사와 군선교 교역자의 관계정립을 위하여,” 「군선교, 청년」 15 (2016): 10-15.

해하는 주요인”⁷⁶⁾이기에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연합’⁷⁷⁾을 힘써 지켜 나갈 것을 역설한다. 특히 이종윤은 복음 선교의 현장에서 영적 연합을 이루는 실제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크리스천 사역, 구조, 제도 등은 붕괴되고 파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합작을 격려하는 모든 노력들은 강하게 격려되어야 한다.

둘째, 군선교 현장의 현실들을 감안할 때 세계 복음화와 특히 군종목사와 군선교 교역자의 파트너십과 합작은 같은 목적을 갖고 사역하는 관계로 더욱 강화하되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고 상호협력 해야 한다.

셋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룹(Task Force)참여자들과 교회내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들은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전자통계를 실시간(on-line)으로 교환하고 상호 의논해야 한다.

넷째, 내재적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 한다. 다섯째, 파트너십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 교회의 역할 또한 필요하다.

여섯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넓게 퍼진 세상에서 전보와 격려를 서로 더불어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일곱째, ‘웹 사이트(Web site)로 상호 이상(理想)을 나누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합작과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덟째, 부대별 파트너십 제고(提高)가 필요하다.

아홉째, 군목과 군선교교역자의 연합수련회(연합기도회)를 통해 동역자의식을 함양하고 동일 목적 수행을 위한 파트너십 합작을 이루어야 한다.⁷⁸⁾

76) *Ibid.*, 11.

77) 이종윤의 분석에 따르면, 요한복음 17: 20-23의 그리스도께서 강조한 연합은 하나님 백성과의 연합을 말씀한 것이지 세상과의 연합을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기반한 연합은 세 차원이 있다. 첫째, 모든 교회가 모여 이루는 연합운동인 ‘구조적 연합’(Structural Unity). 둘째, 자신과 비슷한 교회끼리 모여 이루는 연합운동인 ‘담은폴 연합’(Confirmity Unity). 셋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연합(요 17: 21)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와 영적연합을 이룬 이들과 이루는 성경적 영적 연합(Spiritual Unity). *Ibid.*, 12.

78) *Ibid.*, 13-15.

종합하면, 이종윤의 “파트너십과 협작을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자-군종목사와 군선교 교역자의 관계정립을 위하여”는 진중군인교회에서 사역하는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파트너십이 관건임을 재인식케 한다.

19) 2016년 ‘안만국’의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 연구”⁷⁹⁾는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안만국에 따르면,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공히 ‘군종활동에 대한 현실적 책임과 권한’⁸⁰⁾ 이슈를 공유하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안만국은 제대별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한다.

표1) 제대별 파트너십 강화 방안⁸¹⁾

| 제대 | 파트너십 강화 방안 |
|----------------|--|
| 군사령부급 이상 ~ 국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종 목사단 대표와 군선교교역자 대표 간 수시 간담회 개최 (군선교 정보 제공, 애로사항 청취, 파트너십 강화 등) - 각각의 수련회 시 대표자 초청 대화의 시간 마련 - 연도 말에 군선교사 초청 위로 및 격려 예배 실시 (군종 목사단 및 KMCF 연합) - 6. 25 구국성희 시 군선교교역자 참여기회 확대 - 장기적으로 통합 수양회 개최 |

79) 안만국,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 연구,” 『군선교, 청년』 15 (2016): 16-45.

80) 안만국에 따르면, 군종목사는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선교교역자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 군선교교역자가 대대급교회를 맡아 사역한다고 해도 군종목사는 군 조직 안에서 (재정 사용문제, 외부 교회 초청 행사, 정기 예배 외 특별 행사, 부대원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군선교교역자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군선교교역자들이 군 지휘계통 군종목사의 지도를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경우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들의 심리적 관계성과 사역을 수행함에 갈등과 긴장이 유발될 개연성이 있다. *Ibid.*, 34.

81) *Ibid.*, 41.

| | |
|----------------------------|--|
| <p>군단급 부대 (지역 군목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민간 성직자 소집 교육 시 현역과 연합행사 마련 (세미나, 체육 활동 등) - 분기 1회 연합 부대 안전 기도회 개최 (사단별 순회) - 군단 교회에서 군선교교역자 초청 헌신 예배 실시 - 군단 내 군목 및 군선교교역자 연합 수련회 개최 (연 1회) |
| <p>사단급 부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 MCF 조찬 기도회 동역 (전 사역자 참석, 설교 기회 제공 등) - 대대단위 순회 부대 안전 기도회 개최 (월 1회) - 사단 교회에서 대대급교회 예배 지원 (월 1회) - 사단 내 군목 및 군선교교역자 연합 수련회 실시 (연 2회) - 사단 군목 주기적으로 예하부대 방문 지도 및 격려 |
| <p>각 교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조찬 기도회 정례화 (월 1회) - 수시 대표 간담회 개최 - 장기적으로 통합 수양회 실시 |

정리하면, 군종 목사와 군선교교역자의 동역자 파트너십을 강조한 안만국의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 연구”는 비전2020실천운동과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의 핵심 필드인 진중군인교회 사역자들의 내적 평강을 이루고 진전의 모멘텀을 부여하는 기축 요인이라고 사려 된다.

20) 2018년 ‘이종윤·이규철’의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⁸²⁾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바탕으로 한 ‘비전 21세기 실천운동’을 전망하면서, 진중군인교회의 성장과 관련하여 ‘현존(Presence)의 리더십’에 기초한 ‘복음의 접촉점’⁸³⁾ 강화와 ‘복음의 전진을 위한 영성 네트워크 강화’⁸⁴⁾를 제언한다. 특히 이종윤과 이규철은 비전2020실천운동

82) 이종윤, 이규철,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군선교, 청년」 한국군선교신학회논문집 17 (2018): 15-45.

83) *Ibid.*, 40.

84) *Ibid.*, 41-44.

에 이어 전개될 군선교를 ‘비전21세기실천운동⁸⁵⁾’으로 특화하되, 비전21세기 실천운동이 다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HEART운동’으로 승화되기를 제안한다.

H-Honoring God(예배) /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E-Equipping the Saints(제자) /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A-Awakening the Next Generations(차세대) / 다음세대를 깨워 리더로 세우는 것

R-Restoring Relationship(섬김) /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85) *Ibid.*, 34. 표2) 비전2020실천운동과 비전21세기실천운동 비교

| 구분 | 비전2020실천운동(1998년~2020년) | 비전21세기실천운동(2021년 이후) |
|----------|--|---|
| 기한 | 2020년 | 주님 오실 때까지 |
| 목표 | 3,700만 기독교신자의 나라건설 |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
| 전략 | 〈역할부담 / 고전 3: 6-9 / 지속〉 - 바울: 군인교회 (전도세례) - 아볼로: 일반회원교회 (후원) | 〈ABC 3-Pr 원리적용(보완)〉 - 열렬한 기도(Ardent Prayer) - 성경적 설교(Biblical Preaching) -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Consistent Program) |
| 전술 | 전도·세례·양육·연결 (4대전술) | 전도·세례·정착·양육·연결 (5대전술) |
| 전략 부대 | 훈련소·신교대·교육사·훈련단(지속) | 대대급교회 부흥강조 (보완-) 수세자의 자대정착 |
| 주체 (군현장) | 군종목사 | 군종목사 + 군선교교역자 |
| 신자카드 | 녹색카드 | 한국교회 교적부와 지역교회 연결카드 이원화 |
| 지역 교회 연결 | 9:1 비율로 부대주소 없는 상태로 연결 | 100%부대주소 있는 녹색카드만 연결 백색카드 (부대주소없음)는 희망하는 교회만 연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웰컴티켓, 웰컴패스포트 시행 |
| 특기 사항 | ◎ 2020년 이후에는 “비전21세기 실천운동”으로 명명함(현재는 비전2020실천운동). | |

T-Taking the Gospel to All Nations(선교) / 복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⁸⁶⁾

정리하면,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는 군선교가 “주님의 마음(HEART)과 사랑의 은총이 현존하며 살아 역사하는 우리 시대의 ‘땅 끝’ 현장이기에 진중군인교회와 한국교회 모두 다시 일어나 함께 나아가야 할 사명⁸⁷⁾”이라는 점을 다시 일깨운다.

21) 2019년 ‘정세준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한국교회 청년사역의 양육 네트워크 운동을 중심으로”⁸⁸⁾는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 “선교의 통일적 방향 구현에 기여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분산된 힘과 자원을 결속시켜 군선교에 집중하도록 한 성과를 거두었다⁸⁹⁾”고 평가한다. 한편으로 정세준은 “비전2020실천운동이 세례 장병을 군인교회와 한국교회에 연결시키도록 한 결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후속 양육 사역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인해 신학적 방법론적 난관을 초래했다⁹⁰⁾”고 비판한다. 이에 정세준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한계를 직시하고 전도와 양육을 아우르는 균형적이고 온전한 선교를 모색함에 있어 양육 네트워크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에 ‘예스 미션 사역’(Young People Evangelization Special Mission)⁹¹⁾ 활성화를 제안한다.

평가하면, 정세준이 주목한 네트워크 운동은 “활력이 떨어진 운

86) *Ibid.*, 44.

87) *Ibid.*, 45.

88) 정세준,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한국교회 청년사역의 양육 네트워크 운동을 중심으로,” 「군선교, 청년」 한국군선교신학회논문집 18 (2019): 79-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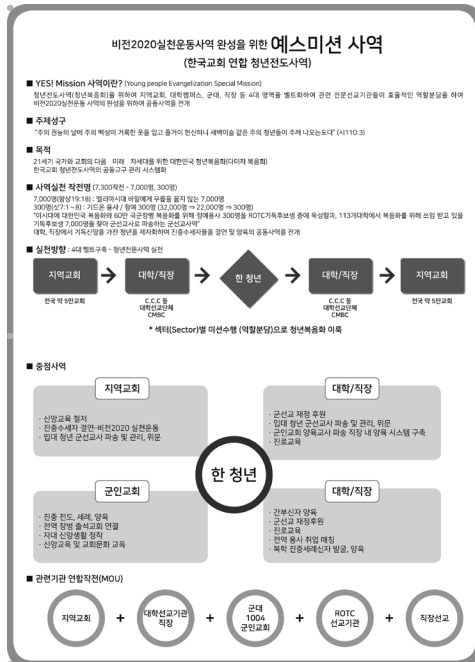
89) *Ibid.*, 79.

90) *Ibid.*, 79.

91) 정세준은 예스미션 사역을 다음의 그림으로 집약한다. *Ibid.*, 99.

동 및 조직의 돌파구”로서 제격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생산 가능한 선교 구조 형성을 위해 군 기독교안부들을 전도와 양육의 주 대상으로 설정하고, 지역교회와 군대를 넘어 대학과 직장까지 선교 벨트로 묶어 역할 분담을 시도하는” 에스미션은 선교 전략적 타당성과 적시성이 담보되기에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의 훌륭한 추진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22) 2020년 ‘주연중’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⁹²⁾은 비전 2020실천운동을 “군선교 70년사, 한국기독교 130년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집단개종 및 청년 선교의 물꼬를 튼 일대 사



92) 주연중, “비전2020실천운동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군선교, 청년」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19 (2020): 15-28.

건⁹³⁾으로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군선교를 위해 반성적 성찰을 한다. 특히 주연중은 “한국교회와 군선교가 분리되어 존재 할 수도 없고 분리 되어서도 안 되기에” 군선교를 위한 ‘지원교회로서의 한국교회’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선교현장 사역자의 사명감을 재무장하는 내적 결의를 이렇게 촉구한다.

지금까지 군선교는 현장을 지키는 군종목사와 군선교 교역자, 그리고 후방 지원 교회와 교역자, 성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접철되었다고 확신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밀도가 높은 헌신은 현장 사역자인 군종목사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종목사는 ‘자애로운 성직자’와 ‘유능한 참모장교’라는 이중신분을 유지하며 거룩한 이중성, 지혜로운 장교단의 일원으로서 헌신해 왔다. 게다가 천주교와 불교, 그리고 원불교 군종장교들과 함께 한 지붕 네 가족이라는 질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더 나아가 요즘에는 신천지와 기타 이단 종파들의 준동과 공격적인 포교 활동으로 인하여 영적인 위기와 함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그래서 우리는 현역 군종목사의 노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의 반성적인 성찰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참모장교인지 성직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처신이나 보직과 진급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는 일부 극소수 군종목사의 자세는 아쉬운 부분이다. 육군훈련소나 부사관 학교 등,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부대가 선호하는 사명자의 사역지가 되어야 하는데 가끔 오히려 기피 보직이 되어가는 분위기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군선교와 세례식을 이벤트나 퍼포먼스처럼 여기고 행사를 치르듯 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는 한번쯤 군종목사단 내부에서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인데, 본말이 전도 되어 오히려 복음 보다는 세례인원에 더 집착하는 모습이 있다

93) *Ibid.*, 15.

면 이 또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⁹⁴⁾

동시에 주연종은 역동적인 군선교를 위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혁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군선교연합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정책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이다. 모든 현장 사역자가 다 정책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도적인 뒷받침은 그야말로 현장이 아닌 후원 그룹에서 해야 한다. 기업으로 말하면 ‘R & D’ 연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군선교연합회의 오늘을 보면 군선교의 내일을 알 수 있다. 군선교의 ‘내일’은 ‘오늘’ 군선교연합회의 책임이다. 군목단과 함께 실사구시적인, 꼭 필요하고 선교적 열매가 있을 그런 일에 집중하고 매진해야 할 것이다.

주연종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은 애국(愛國)과 애군(愛軍)으로서의 군선교의 당위성과 가치를 제고함에 있어 군선교 현장 사역자들의 사명감 고취가 관건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이며 혁신적 조치를 역설한다고 평가된다.

23) 2020년 ‘이규철’의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⁹⁵⁾는 「군선교 신학」에 발표된 이종윤의 23편의 논문을 평가하고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으로서의 비전21세기실천운동에 대한 신학적 제언을 검토한다. 군선교에 관한 이종윤의 논의를 주목하는 것은 군선교에 관한 그의 신학적 성찰이 “비전2020실천운동뿐만 아니라 포스트비전

94) *Ibid.*, 24-25.

95) 이규철,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 「군선교, 청년」 한국군선교신학회논문집 19 (2020): 405-456.

2020실천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신학적 성찰을 주는 상수이기 때문⁹⁶⁾이다.

이종윤에 따르면,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은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적과 추구 열정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거룩한 구속사(Heilsgeschichte)이다.⁹⁷⁾

이에 이규철은 이종윤의 신학적 통찰에 기반 한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 첫째, 청년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사랑 복음운동으로서의 군선교 사명 재인식 강화 필요.
- 둘째, 신앙적 가치 재인식과 변혁하는 선교
- 셋째, 비전21세기실천운동을 위한 선교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 넷째, 복음의 접촉점 강화와 군종목사와 군선교교역자들의 영성 함양
- 다섯째, HEART운동⁹⁸⁾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가 이상에서 집약한 제언들은 성공적으로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핵심 역량이자 진중군인교회 성장을 위한 기본방안이라고 사려 되기에 세밀히 검토하여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24) 2022년 이규철의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⁹⁹⁾은 한국군선교의 근원적 기축토대가 되고 진중군인교회의 근본적 존

96) *Ibid.*, 405.

97) *Ibid.*, 454.

98) *Ibid.*, 443-452.

99) 이규철,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 「군선교, 청년」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21 (2022): 259-319.

재의의를 부각시키는 한국군 신앙전력화 정책을 평가한다. 이규철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신앙을 통해 장병들의 사고예방과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이루며 전군(全軍)을 필승의 전력으로 승화시키고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애국애족의 시대사적 비전이다.¹⁰⁰⁾

이규철은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한국군 신앙전력화가 이룬 성과를 다음과 같이 집약한다.

군내적(軍內的)으로 군중병과에서는 장병들의 신앙심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키고 순교적 신앙심을 순국의 정신력으로 고양시켰다. 또한 신앙전력화를 군중병과의 존재이유와 사명으로 삼아 장병정신전력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군외적(軍外的)으로는 군복무를 마친 장병들이 신앙의 인격으로 무장된 애국시민이 되어 총력안보태세 구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국군장병들에게 신앙을 통한 정신전력증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연합방위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통해 현실적인 자주국방정책을 뒷받침하는 ‘무형전력’의 핵심인 정신전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¹⁰¹⁾

정리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은 “국군의 심리적 안정과 사명감을 고양시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예군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기제”로 귀결된다.¹⁰²⁾ 이 점에서 군 지휘관들과 위정자들은 애국애족의 시대사적 비전인 신앙전력화의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군 지휘관들과 위정자들은

100) *Ibid.*, 259.

101) *Ibid.*, 259.

102) *Ibid.*, 317.

진중군인교회의 성장이 신앙전력화로 귀결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진중군인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휘조치들을 취하여야 할 당위가 있다고 사려 된다.

25) 2023년 ‘전요섭의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¹⁰³⁾은 미군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과 동향 분석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한국군 군종목사의 타당한 역할을 모색한다. 먼저 전요섭은 ‘군복을 입은 성직자’인 군종목사가 군인과 목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작금에 이르러서는 ‘군인, 목사, 상담자’라는 삼중적 지위로 인식 될 만큼 상담적 임무가 부각되는 현실을 주목한다.¹⁰⁴⁾

전요섭은 한국 군종목사들에게 상담자로서의 자기인식의 당위와 상담의 유효성 인식 제고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국군 군종목사들도 대민업무에서 더욱 전문성이 강조된 상담전문가로서 종교관련 민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군종목사는 심리영적 치유를 위한 상담전문가로서 군종목사는 불안, 공포가 팽배한 군의 극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비전투손실을 막고,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음전도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는 심리영적 문제에 노출되어있는 장병들에게 상담능력을 발휘하여 위로와 안위를 제공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도록 목사 고유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군종목사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배와 설교에서는 물론, 상담을 목사 고유의 사명 감당 기회, 전도의 기회, 구원 사역의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¹⁰⁵⁾

103) 전요섭,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 「군선교, 청년」 한국군선교신학회논문집 22 (2022): 107-133.

104) *Ibid.*, 109-127. 전요섭에 의하면, 군종목사에게 요구되는 상담자 역할은 크게 세 부분으로 집약된다. 첫째,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 역할 내의 역할 갈등. 둘째, 심리영적 치유를 위한 상담전문가로서 군종목사. 셋째, 복음전도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이다.

105) *Ibid.*, 131.

이에 전요섭은 “국방부나 각 군 본부 군종실 등 정책부서에서 군종목사가 심리영적 상담전문가로서 장병상담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¹⁰⁶⁾고 사계(斯界)에 촉구한다. 진중군인교회는 군복무로 인해 심신이 괴로운 장병들의 영혼의 안식처이기에 군종목사들과 군선교교역자들의 상담자로서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진중군인교회의 성장을 위한 실제적 일환이라고 평가된다.

3. 평가와 제언

이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에 대한 한국군선교신학회의 「군선교 신학」과 「군선교, 청년」에 게재된 학술논문은 ‘예배, 교육, 세례, 장병양육, 설교, 상담, 대대교회 활성화 방안’ 등 진중군인교회 성장에 필요한 여러 요인과 방법론들이 담겨져 있다. 이제 이 살펴본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과 관련한 제 논문들이 진중군인교회 성장으로 귀결되는 신학적 시사점을 집약해보자.

첫째, 군선교의 가치 재인식

군선교의 본질적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은 진중군인교회성장과 관련한 논의의 기본 전제이자 선결과제이다. ‘이필섭’은 군선교 현장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일터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집약한다.

첫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원병 제도를 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모든 젊은 이들이 군에 모이도록 해 주었다. 둘째,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 모이는 군대에서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복음

106) *Ibid.*, 129.

을 전할 수 있도록 군목제도를 허락해 주었다. 셋째, 대대급 부대 이상의 모든 부대 울타리 안에 진중군인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전군적으로 1000 교회가 세워져 있다. 넷째, 260여 명의 군목으로 1000교회를 다 담당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600여 명의 군선교사를 진중군인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다섯째, 지역교회들이 인적 물적 자원으로 진중군인교회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해 주셨다.¹⁰⁷⁾

이필섭의 이 집약은 군선교 현장인 한국군 진중군인교회가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방증한다. 더욱이 이필섭은 군에서 세례 받는 장병들은 이 땅의 미래 주역들이기에 이들이 진중군인교회에 머무는 동안 잘 양육되도록 도와주어야 할 당위가 있기에 이렇게 강조한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도서 3: 1)라는 말씀을 기억하자. 우리는 날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통일이 오고 안보위협이 감소되면,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군대가 지원병 제도로 바뀔 것이며, 지금과 같은 황금어장의 군선교 현장은 사라질 것이다.¹⁰⁸⁾

‘최병수는 “성경은 건강한 교회성장에 관한 많은 원리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에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성서적인 근거와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¹⁰⁹⁾고 역설한다. 비전2020실천운동과 뒤이은

107) 이필섭, “군선교를 위해 준비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군선교신문』 2024. 4. 40, 6.

108) *Ibid.*, 6.

109) 최병수는 교회성장의 성경적 이해와 관련하여 다음 다섯 가지 핵심 테제(THESE)를 분석한다. 첫째, 땅에 충만함과 번성을 명령하심. 둘째, 잃어버린 자의 구속을 통한 회복. 셋째,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수행. 넷째, 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재생산. 다섯째, 유기적이고 통전적인 교회성장. 최병수, “교회성장의 이해를 통한 건강한 교회성장 방안 연구,” 『개혁주의교회성장』 10 (2017), 170-176.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으로 특화되는 군선교는 “군과 민족, 인류 복음화에 이바지하므로 국가적으로는 모범국민 육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 애족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고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화 운동이요, 교회로는 복음화 된 통일 조국 건설이라는 21세기 기독교 운동”¹¹⁰⁾이다. 한마디로 군선교는 청년을 살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복음 운동이다. 군선교의 주 현장인 진중군인교회의 성장은 성경이 명하는 사명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린도전서 3: 6-7)는 바울의 선언은 군선교가 성경적이며 진중군인교회 성장이 성경적 귀결임을 방사한다.

둘째, 진중군인교회 주요 성장방안 재검고 및 재적용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코로나 상황 이후 작금에 이르기까지 진중군인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당연히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에 대한 신학적 분석논문 또한 전무하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다. 아직 한국군선교의 지평은 열려있다. 분명한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전도서 1: 9). 따라서 비전2020실천운동에서 논의되고 적용하며 활용하고 있는 주요 성장방안들을 재검고(再點考)하고 이를 시의적절 하게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에 재적용(再適用)해 나가는 지혜와 열정과 섬김이 요청된다. 여기에 더하여 MZ세대 병사들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복음의 접촉점(the point

110)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편, 「미래출석교인양육교재」(2002, 5), 27.

of contact)을 깊게 형성하는 종합적인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과 관련하여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진중군인교회 현장에서 있는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의 복음에의 헌신과 사랑의 열정이다. 특히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은 진중에 자리한 군인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고린도전서 13: 13)의 리더로서 누구보다도 긍정적 낙관적 믿음과 실력 구비가 요청된다. ‘존 고든’(John Gordon)에 따르면, 리더에게 있어 “낙관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 믿음은 버스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연료처럼, 리더가 결과를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다.”¹¹¹⁾ 이런 차원에서 진중군인교회의 회복과 성장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의 목회역량을 제고하고 내적 영성을 함양하고 위로하며 강화하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은 절대적으로 필요충족조건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의 극대화를 위해 군종목사단과 잘 협조하고 협의하여 유효한 모든 지원방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대대급교회를 섬기는 데 주력하는 군선교사와도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협력하여 진중군인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전파의 진전을 이루도록 견인차 역

111) 존 고든, 『인생 단어』, 황선영 역 (서울: KMAC, 2017), 72. 존 고든은 ‘헨드릭 오토 모터브 그룹’(Hedric Automotive Group)을 민간 자동차 판매 그룹중 가장 큰 조직으로 키웠고 ‘헨드릭 모터 스포츠’(Hendrick Motorsport)도 가장 많이 우승한 조직으로 이끈 ‘릭 헨드릭’(Joseph Riddick “Rick” Hendrick III)을 다음과 같이 집약한다. “첫째, 낙관적인 생각(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둘째, 믿음(자신을 믿어라). 셋째, 계획(매일 중요한 일을 알아야 한다.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라). 넷째, 투지(위험 부담이 높은 일을 감행할 때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라). 다섯째, 비전(크게 생각하고 크게 꿈꿔라. 항상 성공한 모습을 그려라). 여섯째, 태도(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없으니, 해낼 수 있다고 긍정하라). 일곱째, 목표(목표를 세워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도 세워라). 여덟째, 인내(끊임없이 도전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아홉째, 지식(실수를 받아들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열 번째, 열정(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라. 도전을 즐겨라). *Ibid.*, 71-72.

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진중군인교회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킨 군종목사들과 군선교사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 또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언

군 안에 세워져 있는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은 결코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복합적이며 통합적이다. 그러기에 한국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군선교사단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안팎으로 다변하는 군선교 현장을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반 방안들을 모색하고 적용해 나가는 부단한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주문한다.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으로 집약되는 한국군 내에서의 군선교는 군선교를 저해하며 진중군인교회의 제반 사역과 활동을 제약하는 다양한 도전에 수시로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복음에의 거룩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진중군인교회의 성장을 위해 치밀한 선교전략과 제 방안들을 적절히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복음의 전진을 이루리라고 전망된다.

진중군인교회의 지속적 성장은 진중세례운동을 가속화시키며 국가적 차원에서 모범적인 국민을 양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알곡 신자를 결정적으로 확보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선교이다. 따라서 변하는 군선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진중군인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백만장병을 한국교회로!’를 이루는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에 참여하는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천의 몫이라고 사료된다.

4.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군선교신학회의 「군선교 신학」과 「군선교, 청년」에 게재된 학술논문은 진중군인교회의 성장방안과 관련한 ‘예배, 교육, 세례, 장병양육, 설교, 상담, 대대교회 활성화 방안’ 등 진중군인교회 성장에 필요한 여러 요인과 방법론들을 담지하고 논변한다. 한국군과 함께하여 온 진중군인교회는 전군신자화로 대변되는 진중세례운동의 요람이고 비전2020운동에 이은 군(軍) 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의 기축토대로서 한국군 장병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앙적 정신적 구심점이다. 주지의 사실인 바 군선교 비전2030 실천운동이 펼쳐지는 한국군은 국내외 안보현안과 연동되어 있어 매우 역동적이다. 이런 점에서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은 결코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복합적이며 통합적인 방안 적용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한국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군선교사단이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안팎으로 다변하는 군선교 현장을 직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반 방안들을 모색하고 적용해 나가는 부단한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진중군인교회의 지속적 성장은 진중세례운동을 가속화시키며 한국복음화비전을 이루는 결정적 기축요인이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백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군선교 비전2030실천운동이 진중군인교회에서 추동력을 잃지 않고 실재하며 힘차게 실현되도록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천들이 협력하는 것 또한 이 시대 한국 크리스천의 몫이요 사명이다.

Abstract

Review on the Growth Plans for Military Church: Focusing on The Journal of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Kyu Chul Lee

This study examines various factors and methodologies related to the growth plan of Military Church, focusing on the papers of The Journal of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ilitary Church's growth plan is by no means linear, but requires comprehensive, complex, and integrated applica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the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which represents the Korean church, the Korean Military Chaplaincy Division, and the Military Missionary Corps to work in close cooperation to face the diverse military missionary scen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nd to strengthen their ceaseless execution ability by exploring and applying various corresponding measures.

Key Words

Military Church, The Journal of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VISION 2020 MOVEMENT, MILITARY MISSION VISION 2030 MOVEMENT

논문 기고자 Email

revphdlee2365@naver.com



코칭의 이해와 군에의 적용

Understanding Coaching and Its Application to the Military

» 김상만 Ph. D.*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칭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군에의 적용을 다루고 있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다루었다. 2장 '코칭의 정의'에서는 한국코치협회(KCA)와 국제코치연맹(ICF)가 정의하고 있는 코칭의 정의를 소개하였다. 3장 '코칭의 핵심 역량'에서는 KCA의 8가지 코칭 핵심 역량과 ICF의 4개 항목 총 63개의 코칭 핵심 역량 내용을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GROW 코칭 모델, WDEP 코칭 모델, 5R 코칭 모델, 비즈니스 8단계 코칭 모델을 소개하고, 코칭의 단계별 과정을 다루었다. 5장에서는 각각 세 개의 KCA와 ICF의 코칭 자격증을 소개하였다. 6장에서는 장병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들과의 코칭 실습 내용을 정리하였다. 7장에서는 코칭의 미래적 전망과 기대효과를 다루었다.

중심 단어

코칭의 정의, 코칭의 단계별 과정, 코칭 핵심 역량, 코칭 모델, 코칭 자격증

• 논문 투고일: 2024년 8월 20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8월 29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0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실행위원, 정책전문위원, 장로회신학대학교(Th.B., M.Div., Th.M.) 명지대 학교 예술치료학과(PD),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Th.M., Ph.D.), 예비역 군종목사(군종 52기, 소령전역), 현 수서교회 목사

1. 들어가는 말

“코칭의 이해와 군에의 적용”에 관한 필자의 단상을 담은 세 편의 칼럼을 군선교신문에 소개하였다.¹⁾ 칼럼을 통해 코칭의 정의와 필요성, 코칭 역량, 코칭 모델, 코칭 과정, 코칭의 활용과 적용 등을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칼럼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를 좀 더 확장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어떻게 군대 적용의 관점에서 코칭을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내용을 서술하려고 한다. 코칭은 군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는 심리상담의 영역을 잘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특히 현대 심리상담 이론이 지향하고 있는 “통합과 절충”의 결과물²⁾로서 “코칭”만이 갖고 있는 새로움과 독특함이 있다. 코칭이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기법으로서 자리매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할 것이다. 코칭은 최신 무기체계와도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하고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장병들이 코칭을 이해하고 잘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멋지게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이슈를 해결하고 인간관계 능력을 강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된 장병들이 코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군대를 세우는 신실한 청지기, 관계를 회복시키는 친밀한 파트너, 상대를 성장시키고 회복하게 하는 유능

1) 김상만, “코칭의 바다에 몸을 던져라”(군선교신문 2023. 9. 27. 7면), “최첨단 무기, 코칭을 활용하라”(2024. 4. 30. 6면), “장병 돌봄, 코칭으로 승부하라”(2024. 6. 28. 6면).

2) 권석만,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서울: 학지사, 2021), 6-17.

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³⁾ 이러한 코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군에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써 본고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코칭의 정의

말 그대로 코칭은 각 개인과 집단의 온전한 성장을 돕는 최첨단 무기이다.⁴⁾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군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것을 운용하는 장병의 심리적 돌봄이라고 답할 수 있다. 심리적 돌봄에는 신앙적인 자원과 더불어 상호 의사소통 능력 향상, 감정 조절과 관리, 위기 시의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된다. 이를 기계나 기술이 대처할 수 없다. 인간만이 갖는 고유의 대인 관계 기술에 속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돌봄을 통해 얻게 되는 안정감, 연대감, 동료애 등은 어떤 무기체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무형의 전투력이다. 이러한 요소를 개발하고 강화하는데 코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⁵⁾ 또한 코칭은 심리상담의 업그레이드판으로서 장병 돌봄을 위한 고속철도(KTX)와 같다. 왜냐하면 코칭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코칭은 개인 및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를 탐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종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이다. 코칭은 심리상담의 토양에서 자라고 성장하였다. 그래서 역사가 짧다. 그렇지만 심리상담의 한계를 극복하며 현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3) 김상만, “코칭의 바다에 몸을 던져라”(군선교신문 2023. 9. 27. 7면).

4) 김상만, “최첨단 무기, 코칭을 활용하라”(2024. 4. 30. 6면).

5) 김상만, “장병 돌봄, 코칭으로 승부하라”(2024. 6. 28. 6면).

드러내고 있다. 기업과 기관 및 교회 등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한국코치협회(KCA)와 국제코치연맹(ICF)은 철저한 코칭 교육과 코치 자격증 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코치를 양성하고 있다.⁶⁾ 한국코치협회는 “코칭은 개인과 조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수평적 파트너십”⁷⁾이라고 말한다. 국제코치연맹은 “코칭이란 고객의 개인적, 전문적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감을 불어넣고 사고를 자극하는 창의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고객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⁸⁾이라고 정의한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개발한 아가페-에포케 전문사역코칭 프로그램과 코칭스킬프로그램, Self-Analysis Coaching: SAC-A 전문코치를 위한 자기분석코칭, S3uper Leadership Coaching 등을 연구하고 개발한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는 “코칭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각 지체가 각기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전체를 위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개인과 그룹에게 감추어져 있는 능력을 발견하여 온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과정”⁹⁾이라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코칭을 정의한다. 코칭은 멘토링, 컨설턴트, 심리상담의 특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삶의 경험에서 획득한 지식과 방법을 전수하는 멘토링과 전문적인 지식과 자문을 하는 컨설턴트, 그리고 심리적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심리상담의 개념을 넘어서는 자아 발견과

6) 도미향 외, 『최신 코칭학개론』(서울: 신정, 2023), 20.

7) 한국코치협회(www.koach.or.kr) 코칭가이드, “코칭이란?”

8) 국제코칭연맹(coachingfederation.org) 홈페이지 내 코칭의 정의.

9) 권수영, 『아가페-에포케 전문사역코칭』(서울: 연세대학교 코칭아카데미, 2021), 9.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코칭만의 강점이 있다.¹⁰⁾ 코칭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코칭은 장병에게 변화와 성장의 경험을 갖게 하고 현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성공적인 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3. 코칭 핵심 역량

한국코치협회는 코칭 핵심 역량을 ‘코치다움’과 ‘코칭다움’으로 설명한다. 8가지 코칭 역량은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였다. 코치다움은 “코치로서 개인의 삶과 코칭 현장에서 코칭 윤리를 실천하며,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를 바탕으로 전문 계발을 해 나가는 것”으로, 코칭다움은 “코칭 현장에서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고, 적극 경청과 의식 확장을 통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¹¹⁾ 코치다움에는 윤리 실천,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전문 계발로 4가지 역량이 있으며, 코칭다움에는 관계 구축, 적극 경청, 의식 확장, 성장 지원으로 4가지 역량이 있다. 총 8가지 코칭 역량의 정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KCA 8가지 코칭 역량

| 역량군 | 역량 | 정의 |
|------|----------|--|
| 코치다움 | 1. 윤리 실천 | 협회가 규정한 기본 윤리, 코칭에 대한 윤리, 직무에 대한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를 준수하고 실천한다. |
| | 2. 자기 인식 | 현재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직관 및 성찰과 자기 평가를 통해 코치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한다. |

10) 도미향 외, *op. cit.*, 23-28.

11) 한국코치협회(www.koach.or.kr) 코치다움 코칭다움 8가지 역량

| | | |
|------|----------|---|
| 코치다움 | 3. 자기 관리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 및 개방적, 긍정적,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연행을 일치시킨다. |
| | 4. 전문 계발 | 코칭 합의와 과정 관리 및 성과 관리를 하고 코칭에 필요한 관련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전문 역량을 계발한다. |
| 코칭다움 | 5. 관계 구축 | 고객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신뢰감과 안전감을 형성하며 고객의 존재를 인정하고 진솔함과 호기심을 유지한다. |
| | 6. 적극 경청 | 고객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반영 및 공감하며, 고객 스스로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의도를 표현하도록 돕는다. |
| | 7. 의식 확장 | 질문, 기법 및 도구를 활용하여 고객의 의미 확장과 구체화, 통찰, 관점 전환과 재구성, 가능성 확대를 돕는다. |
| | 8. 성장 지원 | 고객의 학습과 통찰을 정체성과 통합하고, 자율성과 책임을 고취한다. 고객의 행동 전환을 지원하고, 실행 결과를 피드백하며 변화와 성장을 축하한다. |

코치다움과 코칭다움의 정의에 따른 각 역량별 핵심 요소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8가지 코칭 역량 핵심 요소

| 역량군 | 역량 | 핵심요소 |
|------|----------|---|
| 코치다움 | 1. 윤리 실천 | 1. 기본 윤리, 2. 코칭에 대한 윤리, 3. 직무에 대한 윤리, 4. 고객에 대한 윤리 |
| | 2. 자기 인식 | 1. 상황 민감성 유지, 2. 직관과 성찰, 3. 자기 평가, 4. 존재감 인식 |
| | 3. 자기 관리 | 1.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 2. 개방적, 긍정적, 중립적 태도, 3. 연행일치 |
| | 4. 전문 계발 | 1. 코칭 합의, 2. 과정 관리, 3. 성과 관리, 4. 전문 역량 계발 |
| 코칭다움 | 5. 관계 구축 | 1. 수평적 파트너십, 2. 신뢰감과 안전감, 3. 존재 인정, 4. 진솔함, 5. 호기심 |
| | 6. 적극 경청 | 1. 맥락적 이해, 2. 반영, 3. 공감, 4. 고객의 표현 지원 |
| | 7. 의식 확장 | 1. 질문, 2. 기법과 도구 활용, 3. 의미 확장과 구체화, 4. 통찰, 5. 관점 전환과 재구성, 6. 가능성 확대 |
| | 8. 성장 지원 | 1. 정체성과의 통합 지원, 2. 자율성과 책임 고취, 3. 행동 전환 지원, 4. 피드백, 5. 변화와 성장 축하 |

국제코칭연맹은 코칭 핵심 역량을 “1)기초 세우기, 2)관계의 공동 구축, 3)효과적으로 의사소통, 4)학습과 성장 북돋우기”로 4개 항목

총 63개 핵심 요소로 나눈다.¹²⁾

첫째 기초 세우기는 “1) 윤리적 실천을 보여 준다(7개) 2)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한다(8개)” 2개로 나뉘는데, 핵심 요소 15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기초 세우기

| 역량군 | 번호 | 핵심 요소 |
|---|----|---|
| 1. 윤리적 실천을 보여 준다.(코칭윤리와 코칭 표준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 1 |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코치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보여준다. |
| | 2 | 고객의 정체성, 환경, 경험, 가치 및 신념에 민감성을 가지고 대한다. |
| | 3 | 고객에게 적절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
| | 4 | ICF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핵심 가치를 지지한다. |
| | 5 | 합의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 | 6 | 코칭, 컨설팅, 심리치료 및 다른 지원 전문직과의 차별성을 유지한다. |
| | 7 | 필요한 경우, 고객을 다른 지원 전문가에게 추천한다. |
| 2.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한다.(개발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유연하고 고객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 8 | 코치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 고객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
| | 9 | 코치로서 지속적인 학습 및 개발에 참여한다. |
| | 10 | 코치는 코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찰훈련을 지속한다. |
| | 11 | 코치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상황과 문화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개방적 태도를 취한다. |
| | 12 | 고객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인식과 직관을 활용한다. |
| | 13 | 감정 조절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
| | 14 | 정신적, 정서적으로 매 세션을 준비한다. |
| | 15 | 필요하면 외부자원으로부터 도움을 구한다. |

두 번째 관계의 공동 구축은 “3)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11개), 4)신뢰와 안전감을 조성한다(6개), 5)프레즌스(Presence)를 유지한다(6개)” 3개로 나뉘는데, 핵심요소 23개는 아래 <표4>과 같다.

12) 국제코칭연맹(coachingfederation.org) 홈페이지 내 “코칭 핵심 역량”의 내용을 본 고의 의도에 맞게 표3-6까지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표4〉 관계의 공동구축

| 역량군 | 번호 | 핵심 요소 |
|--|----|---|
| 3.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고객과 협력하여 코칭관계, 프로세스, 계획 및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한다). | 16 | 코칭인 것과 아닌 것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에게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
| | 17 | 관계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 무엇이 제공되고 제공되지 않는지, 고객의 책임에 관하여 합의한다. |
| | 18 | 코칭진행방법, 비용, 일정, 기간, 종결, 비밀보장, 다른 사람의 포함 등과 같은 코칭관계의 지침 및 특이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
| | 19 | 고객과 함께 전체 코칭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한다. |
| | 20 | 고객과 코치 간에 서로 맞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갖는다. |
| | 21 | 고객과 함께 코칭세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찾거나 재확인한다. |
| | 22 | 고객과 함께 세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고객 스스로가 다뤄야 하거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분명히 한다. |
| | 23 | 고객과 함께 코칭 과정 또는 개별 세션에서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성공 척도를 정의하거나 재확인한다. |
| | 24 | 고객과 함께 세션의 시간을 관리하고 초점을 유지한다. |
| | 25 | 고객이 달리 표현하지 않는 한 고객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코칭을 계속한다. |
| 4. 신뢰와 안전감을 조성한다(고객과 함께 고객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든다.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를 유지한다). | 26 | 고객과 함께 코칭 경험을 존중하며 코칭 관계를 중요한다. |
| | 27 | 고객의 정체성, 환경, 경험, 가치 및 신념 등의 맥락에서 고객 이해 노력. |
| | 28 | 고객의 정체성, 인식, 스타일 및 언어를 존중하고 고객에 맞추어 코칭한다. |
| | 29 | 코칭 과정에서 고객의 고유한 재능, 통찰 및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 | 30 | 고객에 대한 지지, 공감 및 관심을 보여준다. |
| | 31 | 고객이 자신의 감정, 인식, 관심, 신념 및 제안하는 바를 그대로 표현하도록 인정하고 지원한다. |
| | 32 |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여준다. |
| 5. 프레즌스를 유지한다(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중심이 잡힌 자신감 있는 태도로 완전히 깨어서 고객과 함께 한다). | 33 | 고객에게 집중하고 관찰하며 공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유지한다. |
| | 34 | 코칭 과정 내내 호기심을 보여준다. |
| | 35 | 고객과 프레즌스(현존)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관리한다. |
| | 36 | 코칭 과정에서 고객의 강한 감정 상태에 대해 자신감 있는 태도를 함께 한다. |
| | 37 | 코치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코칭할 때도 편안하게 임한다. |
| | 38 | 침묵, 멈춤,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들거나 허용한다. |

세 번째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는 “6)적극적으로 경청한다(6개), 7)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11개)” 등 2개로 나뉘는데, 핵심요소 17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 역량군 | 번호 | 핵심 요소 |
|---|---|---|
| 6. 적극적으로 경청한다(고객의 시스템 맥락에서 전달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객의 자기표현을 돕기 위하여 고객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 | 39 | 고객이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객의 상황, 정체성, 환경, 경험, 가치 및 신념을 고려한다. |
| | 40 | 고객이 전달한 것에 대해 더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위해 반영하거나 요약한다. |
| | 41 | 고객이 소통한 것 이면에 무언가 더 있다고 생각될 때 이것을 인식하고 질문한다. |
| | 42 | 고객의 감정, 에너지 변화, 비언어적 신호 또는 기타 행동에 대해 주목하고, 알려주며 탐색한다. |
| | 43 | 고객이 전달하는 내용의 완전한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고객의 언어, 음성 및 신체 언어를 통합한다. |
| | 44 | 고객의 주제와 패턴을 분명히 알기 위해 세션 전반에 걸쳐 고객의 행동과 감정의 흐름에 주목한다. |
| 7.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강력한 질문, 침묵, 은유 또는 비유와 같은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의 통찰과 학습을 촉진한다). | 45 | 가장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고객의 경험을 고려한다. |
| | 46 | 알아차림이나 통찰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도전한다. |
| | 47 | 고객의 사고방식, 가치 욕구 및 원함 그리고 신념 등 고객에 대하여 질문한다. |
| | 48 | 고객이 현재의 생각을 뛰어넘어 탐색하도록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다. |
| | 49 | 고객이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공유하도록 초대한다. |
| | 50 | 고객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잘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
| | 51 | 고객의 욕구에 맞추어 코칭 접근법을 조정한다. |
| | 52 | 고객이 현재와 미래의 행동, 사고 또는 감정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도록 도와준다. |
| | 53 | 고객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내도록 초대한다. |
| | 54 | 관점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한다. |
| 55 | 고객이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도록 관찰, 통찰 및 느낌을 있는 그대로 공유한다. | |

네 번째 학습과 성장 복돋우기는 “8)고객의 성장을 촉진한다(8개)”인데, 핵심요소 8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학습과 성장 복돋우기

| 역량군 | 번호 | 핵심 요소 |
|--|----|--|
| 8. 고객의 성장을 촉진한다.(고객이 학습과 통찰을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코칭과정에서 고객의 자율성을 촉진한다.) | 56 | 새로운 알아차림, 통찰, 학습을 세계관 및 행동에 통합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한다. |
| | 57 | 새로운 학습을 통합하고 확장하기 위해 고객과 함께 고객의 목표와 행동, 그리고 책임 측정 방안을 설계한다. |
| | 58 | 목표, 행동 및 책임 방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고객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지한다. |
| | 59 | 고객이 잠재적 결과를 확인해보거나 이미 수립한 실행단계로부터 배운 것을 지지한다. |
| | 60 | 고객이 지닌 자원, 지원 및 잠재적 장애물을 포함하여 어떻게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고려하도록 한다. |
| | 61 | 고객과 함께 세션(세션과 세션) 사이에서 학습하고 통찰한 것을 요약한다. |
| | 62 | 고객의 진전과 성공을 축하한다. |
| | 63 | 고객과 함께 세션을 종료한다. |

4. 코칭의 모델과 진행 과정

코칭은 코칭 대화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코칭 대화 모델은 언어, 관계, 시스템, 심리, 학습 등 5가지 특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전체로서 작동된다. 코칭은 기능적인 대화이기에 기본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그 구조란 구성요소와 순서를 말하며 프로세스라고 한다. 즉 코칭 대화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조직화된 과정이 곧 코칭 대화 모델이다.¹³⁾ 코칭 프로세스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GROW 코칭 대화 모델이다. 4단계로 이루어진

13) *Ibid.*, 158-170.

GROW 코칭 대화 모델은 “1단계 해결 받고자 또는 이루고자 하는 코칭 주제와 목표(Goal)가 무엇인지 정하고, 2단계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실(Reality)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3단계 해결 방안(Option)을 3개 정도 탐색하여, 4단계 의지(Will)를 갖고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¹⁴⁾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7>과 같다.

<표7> GROW 코칭 모델

| 단계 | 내용 | 질문 |
|-------------|-------|--|
| 1단계 Goal | 목표 |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문제와 관련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
| 2단계 Reality | 현재 상황 |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무엇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까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
| 3단계 Options | 해결 방안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옵션이 있습니까? 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은 목표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각 옵션의 주요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택에 따라 행동하시겠습니까? |
| 4단계 Will | 의지 | 각 작업은 언제 시작할 예정인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언제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시겠습니까? |

GROW 코칭 모델은 기존의 심리상담 준비(worming up)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신뢰감(rapport) 형성 부분이 없어서 역시 경제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라 매우 실용적이라고 평가한다. GROW

14) 권수영, *op. cit.*, 31.

모델과 쌍둥이 모델이라고 하는 WDEP 현실치료 모델이 있다. 현실 치료는 William Glasser 가 창시한 행동의 선택이론에 바탕을 둔 심리치료법이다. 인간의 다섯 가지 기본 욕구인 생존, 사랑, 성취, 자유, 재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면적인 가상 세계 즉, “좋은 세계”를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좋은 세상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위, 사고, 감정, 생리적 반응으로 구성된 전체 행동을 선택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WDEP 모델을 사용한다. 1단계 내담자가 원하는 소망(Wants)을 분명하게 파악하게 하고, 2단계 그러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Did/Doing)을 선택했고,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지 자각하게 한다. 3단계 자신이 행하였거나 현재 하는 행동들이 소망을 충족시켜왔는지 또는 현재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Evaluation)하게 한다. 4단계 그렇게 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행동을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는 계획(Planning)을 세우도록 한다. 현실치료의 WDEP 모델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심신의 행복을 영위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법을 갖춘 매우 실제적인 치료모델이다.¹⁵⁾ GROW와 WDEP 코칭 대화 모델과 함께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5R 코칭 모델”이며 <표8>와 같다.¹⁶⁾

15) 김상만, “상담훈련생의 집단표현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경험 연구 자기 인식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9), 33.

16) 우수명, 『5R 리더십 코칭』(서울: 아시아코치센터, 2022), 1-50.

〈표8〉 5R 코칭 모델

| 단계 | 내용 | 질문 |
|-----------------|-------|---|
| 1단계 Relation | 관계형성 | <p>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오늘 기분을 색깔에 비유한다면 어떤 색깔까요? 이번 주에 기억나시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p> |
| 2단계 Relocus | 주제 | <p>오늘 어떤 대화를 나누면 고객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뭐가요? 이런 주제를 선택하신 구체적인 배경이 있다면 뭘까요?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가요? 주제를 실천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이 고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p> |
| | 목표 설정 | <p>그러한 주제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것을 통해서 열고 싶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객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고객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 가치와 고객님의 목표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고객님의 언어로 정리해 주시면 오늘 코칭 대화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한 줄의 목표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p> |
| 3단계 Reality | 현실 인식 | <p>목표가 다 이루어진 이상적인 상태를 10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 점정도 될까요? 그 점수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지금의 그런 상태가 고객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몇 점 정도 올라가면 만족스러울까요? 그 점수가 의미하는 건 뭐가요? 무엇을 하면 그 점수가 될까요? 방법을 몇 가지 정도 찾으면 그 점수가 될까요?</p> |

| | | |
|-----------------------|-------|--|
| 4단계 Resource | 해결 자원 | <p>과거에 목표와 관련한 성공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였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에 성공한 경험을 적용한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객님의 강점 중에 어떤 강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 새롭게 어떤 시도를 해 보시겠어요? 또 다른 시도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p> |
| 5단계 Responsibility | 상호책임 | <p>지금까지 3가지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을 고객님의 언어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어요? 언제부터 실행해 보시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점검해 보시겠어요? 누가 도와주면 또는 누가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코칭 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정리된 것이 있다면, 뭔가요? 그런 깨달음을 목표 실행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 준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p> |

1단계 관계형성(Relation)은 심리상담의 라포 형성과 같은 개념이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오늘 기분을 색깔에 비유한다면 어떤 색깔까요?, 이번 주에 기억나시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또는 간단하게 나눌 있는 소재로 코칭 대화를 시작한다. 2단계는 주제 및 목표 설정(Refocus)이다. 주제 찾기 질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누면 고객님의 유익한 시간이 될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뭔가요?, 이런 주제를 선택하신 구체적인 배경이 있다면 뭘까요?,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언제부터 그러셨어

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주제를 실천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이 고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등이다. 주제 찾기에 이은 목표 설정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러한 주제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객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하는데, 고객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 가치와 고객님의 목표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고객님의 언어로 정리해 주시면 오늘 코칭 대화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용을 한 줄의 목표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등이다. 3단계는 현실 인식(Reality)이다. 이 단계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목표가 다 이루어진 이상적인 상태를 10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 점 정도 될까요? 그 점수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지금의 그런 상태가 고객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몇 점 정도 올라가면 만족스러울까요?, 그 점수가 의미하는 건 뭔가요? 무엇을 하면 그 점수가 될까요?, 방법을 몇 가지 정도 찾으면 그 점수가 될까요? 등이다. 4단계는 해결 자원(Resource)이다. 과거에 목표와 관련한 성공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였어요?, 그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에 성공한 경험을 적용한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객님의 강점 중에 어떤 강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만약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 새롭게 어떤 시도

를 해 보시겠어요?, 또 다른 시도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등이다. 5단계는 상호책임 (Responsibility)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코칭 대화를 이어간다. 지금까지 3가지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을 고객님의 언어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어요?, 언제부터 실행해 보시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점검해 보시겠어요?, 누가 도와주면 또는 누가 격려하고 지지해 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코칭 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정리된 것이 있다면, 뭔가요? 그런 깨달음을 목표 실행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 준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등 5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경 코치는 “셀프 코칭으로 만나는 5R 대화법”에서 5R이 셀프 코칭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¹⁷⁾ 비즈니스 코칭에서는 8단계 코칭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1단계 “지지하기”를 중심축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2단계 “주제를 확인하라”, 3단계 “파급효과를 알게 하라”, 4단계 “계획을 세우게 하라”, 5단계 “실천 약속을 받아내라”, 6단계 “변명에 대처하라”, 7단계 “결과를 명확히 하라”, 8단계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코칭 대화가 진행된다.¹⁸⁾

5. 코칭 자격증

기존의 지원체계인 심리상담 또한 유용한 도구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상담사로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길고 상

17) 김상만 외, 『코칭과 산책하기』(서울: 상상, 2024), 106-131.

18) *Ibid.*, 52.

담사가 알아야 할 지식도 방대하다. DSM-5의 3백여 가지의 장애(Disorder)의 원인과 증상 및 치유법을 숙지해야 한다.¹⁹⁾ 뿐만 아니라 치유법에도 4백여 가지의 너무도 많은 이론들이 있다.²⁰⁾ 전문상담사가 되기 위해 상담학 관련 석사는 거의 필수사항이다. 전문자격 소양과 더불어 공신력 있는 학회에서 발행한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 반면에 경제학에 기반을 둔 코칭은 전문 코치가 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매우 실용적이다. 2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50시간 이상의 코칭 실습 시간을 갖추고 한국코치협회에서 실시하는 코치인증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1단계인 KAC(Korea Associate Coach) 인증 코치가 될 수 있다. 2단계는 KPC(Korea Professional Coach)로 60시간의 교육과 200시간의 실습 시간을, 3단계로 KSC(Korea Superior Coach)로 150시간의 교육과 800시간의 코칭 실습을 갖추고 협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진다.²¹⁾ 국제코칭연맹은 1단계 ACC(과 비교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코치 인증 과정

| 기관 | 자격증 | 교육시간 | 코칭실습시간 |
|--------|-----|------|--------|
| 한국코치협회 | KAC | 20 | 50 |
| | KPC | 60 | 200 |
| | KSC | 150 | 800 |
| 국제코칭연맹 | ACC | 125 | 100 |
| | PCC | 125 | 500 |
| | MCC | 200 | 2,500 |

19)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서울: 학지사, 2023), 6-16.

20) 권석만,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서울: 학지사, 2021), 6-17.

21) 한국코치협회(www.koach.or.kr) 홈페이지 내 코칭 자격증.

확언하건대 심리상담 자격증을 갖추는 것에 비해 기간과 내용이 짧다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초보자가 코칭 자격증을 갖추고 실제 코칭을 하는 것을 보면 바로 효용성이 검증된다.

6. 코칭 사례와 적용

코칭은 문제 해결 능력의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해와 타인과의 소통의 힘을 제공해 준다. 또한 각 개인의 현재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한 설계와 꿈을 갖게 하여 삶에서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된다.

필자가 1994년 중위 계급장을 달고 육군 군종목사로 임관 한 후 매년 평균 100여 명의 장병이 자살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단 한 명의 장병이라도 살릴 것인가?”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알게 된 것이 당시 심리상담과 예술치료였다. 2002년 군위탁장교로 선발되어 연세대학교에서 상담학석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첫 수업으로 듣게 된 예술심리치료가 언어소통이 부자연스러운 장병 대상 상담에 가장 유용하다는 나름의 판단에서 명지대학교 예술치료학과에서 미술치료전공과 심층심리치료전공으로 PD과정을 공부하였다. 코칭을 새롭게 접하면서 코칭은 심리상담의 업그레이드판으로써 장병 돌봄을 위한 고속철도(KTX)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코칭아카데미 비즈니스코칭 과정에서 리더십코칭, NLP 코칭, 비즈니스코칭, 인간관계코칭, 창조경영코칭, 코칭실습 등의 과목을 수강하였고, 선배코칭, 수퍼비전, 동료코칭 등의 실습도 하였다. 기업, 국회, 대학, 종교 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많은 동료들과 코칭 실습을 통해 친밀감을 갖게 되었고, 코칭스터디 모임을 통해 교

류하였다. 목사이자 전문 예술심리상담사인 필자에게 더할 나위 없
이 유용하고 품격 있는 코칭에 심취하였으며 군사역자들에게 코칭
을 보급해야 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한국코치협회의 KAC와 KPC 코칭 자격증을 갖춘 후 50여 명 350
시간의 개인 코칭을 이끌었다. 그뿐만 아니라 “5R 코칭 모델”로 장
병그룹, 목회자그룹, 중년여성그룹 등을 만나 집단코칭을 인도하였
다. 2인 1조로 편성해서 장병은 5개 그룹, 목회자는 6개 그룹, 여성
중년은 11개 그룹으로 5R 진행 순서에 따라 집단코칭을 진행 하였
다. 1단계 색 고르기를 통해 관계 형성(Relation)하고, 2단계 코칭 받
고자 하는 각자의 주제와 목표설정(Refocus)을 하게 하고, 3단계 현
실 인식(Reality)을 점수화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기준을 갖게 한 후,
4단계 해결자원(Resource) 3가지를 찾도록 하였다. 5단계 상호책임
(Responsibility)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장애물, 그리고 소감
등을 파트너와 소통하도록 하였다. 장병그룹은 보직 문제, 상급자와
의 갈등, 전역 후의 계획 등이, 농촌 목회자그룹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지속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한 일, 주변 목회자들과의 협력 등
이, 중년여성그룹은 자녀 문제, 교우들과의 관계 해결, 부부 갈등 등
이 주제와 목표로 설정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 개인이 자기
인식의 능력을 향상했을 뿐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참여자들과의 나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R 코칭 모
델로 50대 남성 고객과 12회기 매주 1회 4개월에 걸쳐 면대면으로
코칭을 진행하였다. 조직에 대한 부적응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초기 목표였고, 점점 더 자신의 내면 탐색과 자기 인식에 대한
목표로 전환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게 되었다. 과감하게 평생직장에

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새롭게 꿈꾸게 되어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었다.²²⁾ 온라인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12회기 코칭을 진행하였다. 거주환경, 대학진학, 군입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민을 코칭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고객은 현재 대학에 진학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다. 현재 장병, 목회자, 직장인, 학생 등 여러 대상과 개인 및 집단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코치들의 코칭 공부와 경험을 담은 “코치와 산책하기”에도 저자로 참여하여 장병 코칭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²³⁾ 코칭이 군대 내에 보급되고 확산될 때에 장병 돌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 장병 돌봄은 코칭으로 승부해야만 한다.

7. 나가는 말

경제학적 관점에서 심리상담을 보다 활성화한 ‘코칭’은 심리상담의 목적과 목표 차원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상담 이론이 지향하고 있는 통합과 절충의 결과물로서 독보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을 온전한 성장에 이룰 수 있도록 개인과 조직이 가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질문과 경청, 칭찬과 인정을 통해 감정과 사고를 자극하여 창조적이며 창의적인 내면의 힘을 끌어내게 하는 것이 코칭이 품고 있는 강점이고 힘이다. 또한 각자가 가진 잠재적인 능력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코치가 파트너로서 돕는 탁월함이 있다. 더 유능하고 만족스러운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22) 김상만, “장병 돌봄, 코칭으로 승부하라”(2024. 6. 28. 6면).

23) 김상만 외, *op. cit.*, 50-63.

온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 코칭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이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고 70%에 육박하는 MBTI 감각형(S형) 성격유형의 한국인에게 가장 친화적이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에 헌신하는 군목들을 비롯한 군사역자들에게 코칭은 더할 나위 없는 동반자가 아닐 수 없다. 코칭의 바다에 몸을 던질 때 비로소 코칭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Abstract

Understanding Coaching and Its Application to the Military

Sang Man Kim

This study deals with the application to the militar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coaching. Chapter 1, “Prologue,” deals with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this study. Chapter 2, “Definition of Coaching,”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coaching defined by the Korea Coaches Association(KCA) and the International Coaches Federation(ICF). Chapter 3, “Core Competencies of Coaching,” introduces KCA’s eight core coaching competencies, and introduces a total of 63 coaching core competencies in four items of ICF. Chapter 4 introduces the GROW coaching model, the WDEP coaching model, the 5R coaching model, and the business 8-step coaching model, and deals with the step-by-step process of coaching. Chapter 5 introduces three KCA and ICF coaching credentials, respectively. Chapter 6 summarizes the contents of coaching practice with various customers including soldiers. Chapter 7 deals with the future prospects and expected effects of coaching.

Key Words

Military Chaplain, Definition of coaching, Step-by-step process of coaching, Coaching core competencies, Coaching models, Coaching credentials

논문 기고자 Email

spalan77@hanmail.net



군 상황에서 도덕적 상해의 심리적 이해와 군종목사의 상담방안

Military Chaplain's Counseling Method on Moral Injury in Military
Situation

» 전요섭 Ph. D.*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군 상황에서 도덕적 상해의 심리적 이해와 군종목사의 상담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문헌연구이다. 도덕적 상해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 및 신앙, 가치가 권력자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조화 및 갈등으로 시작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정서적, 영적 피해를 의미한다. 도덕적 상해는 군대와 같이 견고한 수직 관계의 조직문화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 상해는 주로 상급자이며 권력자의 '돌봄 의무'와 피권력자의 '충성 의무' 위반이라 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군인의 심리영적 전문가로서 도덕적 상해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다. 도덕적 상해를 '돌봄 기반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종목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집단상담 방법도 좋으나, 소대단위의 심리교육 효과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개인상담은 가장 최적화된 도덕적 상해 극복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도덕적 상해를 입은 군인에게 심리영적 복원력을 위해서 기도 등 영적인 힘을 강화하고, 영적 지지상담이 필요하다. 도덕적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상에게 분노하는 것이 기본정서이지만 용서는 기독교 상담적, 심리영적 회복변인 가운데 주요한 것이다. 또한 죄책감의 해소를 위해 회개가 기독교상담적인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중심단어

기독교상담, 군종목사, 도덕적 상해, 군인, 심리치료

• 논문 투고일: 2024년 7월 23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7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5일

* 한국군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 교육학박사, 성결대학교 파이테이아교양대학 상담심리학 교수, 군종목사 43기 소령 예편

* 이 논문은 한국실천신학회에 발표한 Military Chaplain's Christian Counseling Method on Moral Injury(2024. 8. 31)을 기초로 일부 수정, 증보한 것임.

1. 여는 글

‘도덕적 상해’(moral injury: MI)는 정신의학의 신조어로 사용된 의학적 주제로 인식되어왔다. 또 도덕적 상해는 신체적 상해가 아니고, 비육체적인 문제이므로 심리학, 상담학 및 심리상담, 상담심리 또는 심리치료 분야의 주제이기도 하다.¹⁾ 도덕적 상해는 상해(傷害, injury)의 서술적 용어 ‘도덕적’(moral)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윤리도덕 및 철학에서 다루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사회관계에서 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회학에서 다루는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도덕적 상해의 궁극적 논의는 신정론(theodicy, 神正論)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학적 개념 없이 이 주제를 면밀히 다루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 도덕적 상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이 바로 군대이며, 전쟁터(battle field)라는 면에서 이는 군사학, 군사심리학 등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 주제는 작금까지 명백한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으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어지는 학제적인 용어와 개념이 되었다.

본디, 이 용어와 개념의 수립은 군대와 전장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Murray J. Davies는 전투에서 동료 전우가 피격당해 죽었을 때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전능하시다는 신이 이 윤리적인 우주에서 왜 비윤리적인 악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도덕적 상해를 입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²⁾ 종교 또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군인의 경우, 신(God,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더라

1) Brad E. Kelle, “Moral Injury and Biblical Studies,”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19/2(2021), 121-44.

2) Murray J. Davies, “Spiritual Wounds and Injuries,” *Health and Social Care Chaplaincy* 11/1(2023), 68-94.

도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피의 현장에서 죽거나, 상해를 입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물음으로 심리정서적 고통을 받는다.

군에서 한 병사의 도덕적 상해 노출은 주변 동료군인들에게도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정적 영향력을 주고, 조직에 쉽게 전이되거나 파급효과가 커서 곧바로 전투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평시에도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기상황이나 전쟁/전투 상황에서는 전투의지가 상실될 수 있는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 군인들에게 이에 대한 견고한 개념을 수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전투병과에서 지휘관이 설득력 있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며, 군종병과에서 특히 군종목사가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주제라 할 수 있고, 군종목사의 역할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보아야 한다.³⁾

아직 일반상담 및 기독교 상담분야에서는 도덕적 상해 상담전문가라고 할 만큼 수련 받은 상담자가 많지 않은 생소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도덕적 상해를 입은 군인에게 군종목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며, 그 상담방법은 어떠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과 방향이 요구되지만 자료나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다. 기독교상담에서는 이런 연구가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기에 그 정의와 개념을 군종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리가 필요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3) Seumas Miller, “Moral Injury, Moral Identity and ‘Dirty Hands’ in War Fighting and Police Work,” *Journal of Medicine & Philosophy* 47/6(2022), 723-34.

2. 찢는 글

‘도덕적 상해’라는 용어가 신조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사에서 도덕적 상해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작금에도 도덕적 상해라 인식할 수 있는 명백한 사건들이 다양한 집단에서 다양한 행태로 발생하고 있다. 도덕적 상해를 입은 대상자는 그로 인해 가볍게는 배신감, 실망감,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 혐오감, 갈등, 분노 등으로부터 심하게는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트라우마 등 심리정서적, 심리사회적, 심리영적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 상해를 당한 일부는 자살을 기도하거나 자살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는 상담학(심리상담, 상담심리, 기독교상담, 목회상담 등)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도덕적 상해에 대한 연구는 윤리학, 철학, 사회학, 신학, 심리학, 상담학 등의 분야에서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양질의 논문발표로 이어지고 있다. 도덕적 상해는 본래 전쟁/전투 맥락에서 발생한 개념으로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도덕적 상해에 대한 연구는 군과 관련하여 집중되어 있다.⁴⁾ Jeffrey M. Pyne 등은 “작금까지 연구된 도덕적 상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군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양질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⁵⁾ 이제 는 단지 전쟁/전투와 군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로 보지 않고 다양

4) Wesley H. Fleming, “Complex Moral Injury,”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1/2(2022), 1022-50.

5) Jeffrey M. Pyne, Joseph Currier, Kent D. Hinkson, Timothy J. Usset, Lynn A. Abeita, Paul Dordal, Taimur Kouser, Rania Awaad, Marcela C. Weber & Brandon J. Griffin, “Addressing Religious and Spiritual Diversity in Moral Injury Care: Five Perspectives,” *Current Treatment Options in Psychiatry* 10/4(2023), 446-62.

한 분야에서 학제적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이 용어와 개념이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의와 개념이 광범위하고, 학문분야별로 상이하여 아직 정확하게 개념이 확립되거나 통일된 것이 없으며, 상당히 복잡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다. 이 주제의 연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야 이를 다룰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독교상담 차원에서 조작적 정의와 개념을 수립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려는 것이다.

1) 도덕적 상해의 정의와 개념

(1) 용어의 정의

‘도덕적 상해’는 1994년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Jonathan Shay가 그의 저서 *Achilles in Vietnam*(1994)과 *Odysseus in America*(2002)에서 신조어로 처음 사용한 단어이다.⁶⁾ 두 책 모두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피해를 다루기 위한 도서이다. 그러나 이 때부터 도덕적 상해가 발생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도 발생했으나 당시에 이를 표현하는 적합한 단어가 없었고, 이 시기부터 사용하게 되었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초기 도덕적 상해에 대한 정의는 “리더십 부정행위의 결과로 인한 불의로서 위험이 큰 상황에서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의 배신이 있을 때 나타난다. 위험이 큰 상황에서 나타난다.”⁷⁾고 개념화되었다. 여기서 주요용어는 ‘배신’이다. 지도자가 응당히 취해야 할 도덕적 태도에 대한 배신인데, 이는 위선, 불의

6) Jonathan Shay, “Moral Injury,” *Psychoanalytic Psychology* 31/2(2014), 182-91.

7) Jonathan Shay & James Munroe, “Group and Milieu Therapy for Veterans with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hilip A. Saigh & Bremner Bremner, (e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oston: Allyn & Bacon, 1998), 391-413.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⁸⁾

도덕적 상해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 및 신앙, 가치에 어긋나는 일, 배신 또는 불의한 사건, 범법행위 등의 목격했거나, 배우거나, 그것의 지시나 압력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개념으로 점차 확대된다.⁹⁾ Seumas Miller는 이와 같은 경우를 표현하여 이른바 ‘더러운 손’(dirty hand)이라 하였으며, 그 뜻은 권력자, 권위자, 지도자의 불법을 행해주는 손으로 이용당하는 상태라 설명했다. 또한 Miller는 불법이지만 선한 결과를 위해 자신이 사용된 경우와 합법이지만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모두를 도덕적 상해로 보았다.¹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행자의 심리는 배신감, 실망감,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 혐오감 등의 정서이다.

일반상담이나 기독교상담을 막론하고 도덕적 상해의 시각으로 문제를 본다면, 대인관계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덕적 상해라 볼 수 있다. 도덕적 상해는 어떤 대인관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견고한 수직관계의 조직문화에서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성폭행, 괴롭힘, 폭력 그리고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일에 대하여 상사가 이를 행하거나 또는 이런 일을 문제 삼지 않고 덮으려고 하거나, 덮도록 요구 및 명령하는 것이 도덕적 상해가 될 수 있다.¹¹⁾

8) Daniel E. Berdida & Rizal N. Grande, "Moral Distress, Moral Resilience, Moral Courage and Moral Injury among Nurses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2/6(2023), 3957-78.

9) Lindsay B. Carey & Timothy J. Hodgson, "Chaplaincy, Spiritual Care and Moral Injury: Considerations Regarding Screening and Treatment," *Frontiers in Psychiatry* 9(2018), 619.

10) Miller, "Moral Injury, Moral Identity and 'Dirty Hands' in War Fighting and Police Work," 723-34.

11) Nikki Jamieson, Myfanwy Maple, Dorothy Ratnarajah & Kim Usher, "Military Moral Injury: A Concep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근래 이 용어는 가정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도 사용되는 광범위한 용어가 되었다. 부모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녀가 비윤리적, 부도덕한 행위를 목격했거나 당했을 때 도덕적 상해를 입게 된다. 가장 큰 도덕적 상해는 부모의 자살일 수 있다. 또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아버지는 그래서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심각한 도덕적 상해를 입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신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는 신체적 고통을 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심각한 도덕적 상해를 입게 된다.¹²⁾ 교회나 학교처럼 명확한 도덕집단에서는 도덕적 정체성과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날 때 다른 환경에서보다 도덕적 상해에 대해 매우 민감해지고, 예리한 시각이 발달하며, 크게 부각되고, 사건화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높은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가진 직업종사자가 도덕적 상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의 충격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상해는 대인관계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실망, 불신 등 ‘포괄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¹³⁾ 직업적 상황에서 상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부하 직원에게 도덕적 상해가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잘못된 행동이 학생들에게 도덕적 상해로 나타날 수도 있다.¹⁴⁾ 모든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의 위치에 있기 때

29/6(2020), 1049-66.

12) William P. Nash, "Commentary on the Special Issue on Moral Injur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2/3(2019), 465-70.

13) Teun Eikenaar, "Relating to Moral Injuries: Dutch Mental Health Practitioners on Moral Injury among Military and Police Workers," *Social Science & Medicine* 298(2022), 114876.

14) Jeremy Glazer, "A Devil's Bargain," *Teachers & Teaching, Theory & Practice* 28/1(2022), 118-29.

문에 하위에 존재하는 사람은 상위존재로부터 도덕적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미국 의학회에서 소개하는 도덕적 상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을 중시하고 회복하는 사명과 열망을 가지고 의학계에 들어선 레지던트 의사의 경우, 상사 또는 선배 등이 사람의 인격이나 생명을 무시하고 사람을 물건 다루듯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상사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목격하거나 당한 사람은 도덕적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대표적으로 도덕적 상해는 합법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의 불의, 부정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도덕적 상해는 어떤 사람에게 확립된 도덕적 신념 및 신앙, 가치, 기대 등을 위반하는 행위이거나 그를 목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¹⁶⁾ 도덕적 상해의 가벼운 상태는 도덕적 갈등이며, 도덕적 불일치이다. 자신의 도덕적 신념 및 신앙과 현실 간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도덕적 불협화음’(dissonance), 도덕적 갈등(conflict)이나 ‘도덕적 혼란’(disruption)은 도덕적 상해의 초기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좀 더 심각한 상태에 ‘도덕적 피해’(damage), 도덕적 상해(injury), ‘도덕적 상처’(wound), ‘도덕적 고통’(pain), ‘도덕적 트라우마’(trauma)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용어 ‘도덕적 상해’를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도덕적 상해는 주로 수직적 관계집단에서 나타나며, 그 가해자는 주로 상급자이며 권력자이다. 권력자의 ‘돌봄 의무’와 피권력자

15) Christian A. Archer, “Expanding Moral Injury,”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28/12(2022), 1199-1200.

16) B. T. Litz et al, “Moral Injury and Moral Repair in War Vetera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8(2009), 695-706.

의 ‘충성 의무’가 조합이 되면 바람직한 관계 및 조직, 집단이 되지
 만, 이 위반은 도덕적 상해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덕적 상해
 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 및 신앙, 가치가 권력자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조화 및 갈등으로 시작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정서적, 영적 피해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도덕적 상해는 권
 력자로부터 비윤리적, 비도덕적 사건을 당하는 경우로서 상급자 및
 권력자의 배신이 도덕적 상해로 이해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를 목격한 주변인이 가해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제재, 조
 정 및 바른 대안행동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상태, 회피 및 방
 관, 소극적 태도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 상해는 폭풍우로 인해 자신이 흔들려 무너져 내리는 현상
 으로 비유된다.¹⁷⁾ Larry K. Graham은 도덕적 상해를 일컬어 ‘나침
 반의 고장’으로 비유했다.¹⁸⁾ 나침반의 고장은 방향을 상실하게 만드
 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삶의 방향성 및 도덕적 지향성
 을 잃고 혼란을 겪게 된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2) 도덕적 상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현상 이해

도덕적 상해는 단지 윤리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사회적, 심
 리정서적, 심리영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현상들이 나타난
 다.¹⁹⁾ 자신의 도덕적 신념 및 신앙,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의 요

17) Zachary Moon, “Turn Now, My Vindication Is at Stake: Military Moral Injury and Communities of Faith,” *Pastoral Psychology* 68/1(2019), 93-105.

18) Larry K. Graham, *Moral Injury: Restoring Wounded Souls*, (Nashville: Abingdon Press, 2017), cp. 1.

19) Donna Ames, Zachary Erickson, Chelsea Geise, Suchi Tiwari, Sergiil Sakhno, C. Alexander, Chaplain G. Tyrrell, Chaplain R. Mackay, Chaplain W. Steele, Therese Van Hoof, Heidi Weinreich & Harold G. Koenig, “Treatment of Moral Injury in U.S. Veterans with PTSD Using a Structured Chaplain Intervention,” *Journal of Religion*

구로 인해 매우 불편한 증상이 발생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수치심, 죄책감이다.²⁰⁾ Sutherland도 이와 동일하게 도덕적 상해는 수치심, 죄책감, 위축이 최초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²¹⁾ 자신에게는 죄책감이 나타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분노의 심리정서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이다. 자신에게는 갈등이 나타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혐오감이 대표적 현상이고, 이에 더하여 도덕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불면증, 고립감 등 기본증상도 나타난다.

‘외상 후 적개심 장애’(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라는 용어가 DSM-5에 아직 공식적인 질병 명으로 등록되어 사용되지는 있으나, 도덕적 상해를 현상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좋은 단어라 할 수 있다. 존경할만한 인물로부터 도덕적인 상해를 입어 그 존경심이 사라지고 적개심으로 바뀌는 경우는 사회관계에서 매우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를테면 아버지, 선생님, 직장상사, 목사님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압력, 폭언, 폭행, 성폭력, 사기 등의 불법적인 일을 당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자신이 그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윤리도덕적 신념 및 신앙, 가치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불안이 엄습하게 되는 공통적 현상으로 인해 불안장애로 이해할 수도 있다.

and Health 60/5(2021), 3052-60.

20) Carey & Hodgson, “Chaplaincy, Spiritual Care and Moral Injury: An Exploratory Scoping Review of Literature and Resources” 619.

21) S. Sutherland, “Is Moral Injury the Answer?” in T. Frame (ed.), *Moral Injury: Unseen Wounds in An Age of Barbarism*, (Sydney: UNSW Press, 2015), 190-204. Deane-Peter Baker, *Morality and Ethics at War: Bridging the Gaps between the Soldier and the State*,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21), 73-74.

도덕적 상해로 인해 낙심과 좌절, 절망 등의 심리정서적 손상으로부터 자살로 이어지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다. 도덕적 상해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정신건강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선행연구의 공통적 입장이다.²²⁾ 일각에서는 이를 가볍게 보아 상해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상실'일 수 있으며, 수치심, 죄책감, 후회, 혼란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²³⁾ 물론, 도덕적 상해의 상황에 따라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으나 임상적으로 관찰해 볼 때, 도덕적 상해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와 같은 정신건강에 큰 피해를 초래하고, 극단적으로 자살관념을 갖게 되는 문제로서 이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영적인 차원 등의 총체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도덕적 상해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오래되지 않고, 최근에 이를 화두로 삼고 상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도덕적 상해가 아직 명확하게 개념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하지만,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불명확성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해보려는 시도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 이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²⁴⁾ 2013년에서야 William P. Nash 등이 표준화된 척도

22) Berdida & Grande, "Moral Distress, Moral Resilience, Moral Courage and Moral Injury," 3957-78.

23) Kazman et al, "Who Sees the Chaplain? Characteristics and Correlates of Behavioral Health Care-seeking in the Military,"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28/1(2022), 1-12.

24) Philip Held, Brian J. Klassen, Joanne M. Hall, Tanya R. Friese, Marcel M. Bertsch-Gout, Alyson K. Zalta, Mark H. Pollack & Kendall-Tackett Kathleen, "I Knew It Was

(MIES: Moral Injury Event Scale)를 개발한 바 있으나, Nash 등이 개발한 척도의 표본은 보병부대에 배속된 남성 해병대 장병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²⁵⁾ 남성 및 여성 군인, 해병대 외의 육군, 해군, 공군 및 보병, 포병 등 전투병과 군인도 포함하여 표본을 확대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어서 2015년에 Joseph M. Currier 등이 ‘도덕적 상해 검사지: 군사용’(Moral Injury Questionnaire, Military Version: MIQ-M)을 개발한 바 있다. 이것은 131명의 이라크 및/또는 아프가니스탄 참전 퇴역군인 82명과 시민을 표본으로 하여 개발된 20개 항목의 도덕적 상해 검사지이다.²⁶⁾ 그 밖에도 2017년에 제작된 ‘도덕적 상해 척도: 군사용’(Expressions of Moral Injury Scale-Military Version: EMIS-M), 2018년에 발표된 ‘도덕적 상해 증상과 규모척도: 군사용’(The Moral Injury Symptoms Scale-Military Version: MISS-M) 등이 있다.²⁷⁾ 현재까지는 도덕적 상해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측정, 분석, 평가,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도덕적 상해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모든 심리적 손상에 적용되는 용어라 할 수 있으나, 심한 상태의 도덕적 상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근래

Wrong the Moment I Got the Order: A Narrative Thematic Analysis of Moral Injury in Combat Veterans,” *Psychological Trauma* 11/4(2019), 396-405.

25) William P. Nash, Teresa L. MarinoCarper, Mary A. Mills, Teresa Au, Abigail Goldsmith & Brett T. Litz.,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Moral Injury Events Scale,” *Military Medicine* 178/6(2013), 646-52.

26) Joseph M. Currier, Jacob K. Farnsworth, Kent D. Drescher, Ryon C. McDermott, Brook M. Sims & David L. Albrigh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Expressions of Moral Injury Scale-Military Version,”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25/3(2018), 474-88.

27) Jacob K. Farnsworth, “Is and Ought: Descriptive and Prescriptive Cognitions in Military-related Moral Injur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2(2019), 373-81.

의 연구동향은 도덕적 상해를 PTSD로 보고 접근하는 경향성이 있다.²⁸⁾ 도덕적 상해는 PTSD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증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 PTSD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²⁹⁾ 그래서 Lindsay B. Carey와 Timothy J. Hodgson은 PTSD와 도덕적 상해는 상당 부분 중복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다.³⁰⁾ 도덕적 상해는 피상적으로 PTSD와 많은 공통 영역을 공유하고 있고, 오인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며, 오인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상해를 PTSD 자체라고 보는 일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 상해는 트라우마와 많은 부분 관련이 있지만 이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Nikki Jamieson 등은 도덕적 상해는 ‘도덕적’이라는 문제 때문에 PTSD와는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분석했다.³¹⁾ 이에 대해 Smigelsky 등도 도덕적 상해는 PTSD와 일부 중첩되는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는데, 도덕적 상해에는 주요 용어인 ‘배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³²⁾ 심지어 도덕적 상해는 PTSD

28) Pyne et al, “Addressing Religious and Spiritual Diversity in Moral Injury Care,” 446-62. William P. Nash, “Commentary on the Special Issue on Moral Injury: Unpacking Two Models for Understanding Moral Injur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2/3(2019), 465-70.

29) Craig J. Bryan et al, “Measuring Moral Injury,” *Assessment* 23/5(2016), 557-70. Pyne et al, “Addressing Religious and Spiritual Diversity in Moral Injury Care,” 446-62.

30) Carey & Hodgson, “Chaplaincy, Spiritual Care and Moral Injury,” 619.

31) Nikki Jamieson, Myfanwy Maple, Dorothy Ratnarajah & Kim Usher, “Military Moral Injury,”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29/6(2020), 1049-66.

32) Timothy J. Hodgson, Lindsay B. Carey & Harold G. Koenig, “Moral Injury, Betrayal and Retribution: Australian Veterans and the Role of Chaplain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61/2(2022), 993-1021.

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오히려 PTSD를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해한 입장도 있다.

도덕적 상해는 PTSD의 기준으로 임상 진단이 되지 않는 특정 상황이 있다. 이것이 정신질환 진단기준 구성요소에 부합되기는 하지만, 아직 DSM-5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 하여 도덕적 상해가 결코 가벼운 문제라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임상적으로 살펴볼 때, 트라우마와 도덕적 상해가 동일하든, 상이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PTSD로 이환되기 전에 서둘러 그 경로를 차단하여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도덕적 상해는 PTSD가 아니라 할지라도 PTSD와 가장 관련이 깊은 관계로 보며, 적어도 PTSD의 동반장애로 보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3) 영적 상해와 신정론적 관련

도덕적 상해를 치료하는 것을 일컬어 ‘도덕적 치료’(moral therapy)라 하는데, 기독교상담에서 도덕적 상해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반드시 영적 피해(spiritual damage)를 동시에 다루어야만 하고, 이에 영적 회복을 다루어야 한다. 도덕적 상해는 단지 도덕적으로만 상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윤리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적 손상도 함께 올 수 있다. 그래서 ‘도덕적 상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를 ‘영적 상해’(spiritual injury)라 표현해왔었다.³³⁾ 도덕적 상해의 여파가 인간의 심리, 생체 어디에 미치는지에 대해서 사실 분명히 할 수 없으나 신앙 및 영성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Dumulescu 등은 도

33) K. D. Drescher, D. W. Foy, C. Kelly, A. Leshner, K. Schutz & B. Litz, “An Exploration of the Viability and Usefulness of the Construct of Moral Injury in War Veterans,” *Traumatology* 17/1(2011), 8-13.

덕적 상해를 ‘영혼의 오염’(pollution of the soul)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³⁴⁾ 도덕적 상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의 위반으로서 영적인 문제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해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의학(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영성 등의 관계에서 보아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상해를 입게 되면, 기독교신자들은 이 문제를 항상 하나님 관계에서 영적으로 고려해왔다. 즉 도덕적 상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의문, 죄 및 죄책감과 관련된 고민 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도덕적 상해가 많은 경우 죄 및 죄책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일반 상담자보다 목사가 담당할 때 가장 적절하게 다룰 수 있으며, 군종목사는 도덕적 상해를 신앙을 통해 ‘외상 후 성장’으로 이끌 책임자이다.

도덕적 상해는 본질적으로 영적 상하이므로 영적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³⁵⁾ Suzette Brémault-Phillips 등은 도덕적 상해는 반드시 영적 상해를 초래하게 되며, 이를 치유하는 핵심요소로 용서를 제안했다.³⁶⁾ Miller는 주장하기를 도덕적 상해 치료는 그 가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때 피해자의 정서가 많이 회복된다고 보기는 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그 자체가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 용서는

34) Daniela Dumulescu, Constantin Necula, Diana M. Sarca & George W. Cristea, “Spiritual Practice in Psychological Counseling,” *Journal for the Study of Religion & Ideologies* 21/62(2022), 20-36.

35) Rickey L. Bennett, “A Postventional Combat Chaplain Care Model,” (Doctoral Dissertation: Regent University, 2014), 302-303.

36) Suzette Brémault-Phillips, Terry Cherwick, Lorraine A. Smith-MacDonald, John Huh, Eric Vermetten, “Forgiveness: A Key Component of Healing from Moral Injury?,” *Frontiers in Psychiatry* 13(2022), 906945

근본적으로 보복에서 벗어나 인지와 정서가 전환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용서의 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되는 것인데, 용서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용서는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죄책감과 분노, 우울과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시켜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용서는 자신에게 도덕적 상해를 입혔던 분노의 대상자로서 가해자를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석방시켜 자유를 주는 것이라 비유할 수 있다.

기독교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사건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도덕적 상해는 신정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개 기독교인의 경우는 도덕적 상해를 입었을 때, ‘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현실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영적 상해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신정론의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내버려 두었는지?”라는 질문에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고민을 만들어내게 된다. Susan과 Williams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특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실존적 의식을 갖지 못할 때 결국 내면세계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³⁷⁾

Hodgson 등은 누가복음 22: 47-48, 마태복음 26: 47-49에 언급된 유다의 배신을 예수의 도덕적 상해로 보았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께서 도덕적 상해를 입었다는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예수께

37) L. Susan & Stephen N. Williams, *How Can We Help Victims of Trauma and Abuse?* (St. Bellingham, WA.: Lexham Press, 2021), cp. 5.

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유다는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하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침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도덕적 상해를 논할 때, 우선 가장 깊은 도덕적 상해는 자신이 도덕적이지 못한 상황, 상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자기 배신감으로 도덕적 상해는 심한 죄책감의 문제가 발생한다.³⁸⁾ 통상 도덕적 상해는 상사의 도덕적 배신으로 하급자가 당하는 구조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급자의 도덕적 배신이 상사에게 도덕적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전형적인 도덕적 상해를 입은 자로 이해할 수 있다. 형들로부터 부도덕한 처분을 당한 것, 노예로 팔린 상태에서 여주인의 모함으로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수감된 것은 심각한 도덕적 상해였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용서를 채택했다는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면서 기독교상담의 치료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장면도 전형적인 도덕적 상해에 해당되는데, 왕이며, 상관이고, 장인인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도덕적 상해가 아닐 수 없다. 사무엘하 11-12장에 기록된 다윗 왕의 밋세바 강간 사건은 전형적인 도덕적 상해일 수 있다.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군 우리아를 전장의 사지에 몰아넣어 죽도록 하고 그 부인을 성적으로 유린한 왕의 부도덕한 명령에 대하여 주변인들(아내 밋세바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어떤 군인에게는 상관, 어떤 군인에게는 부하, 친구, 가족)은 심각한 마음의 상처(도덕적 상해)가 되었을 수 있다. 성경에 도덕적 상해라는 용어는 없지만,

38) Hodgson, Carey & Koenig, "Moral Injury, Betrayal and Retribution," 993-1021.

매우 다양한 도덕적 상해를 발견해 볼 수 있다.

3. 군인의 도덕적 상해

군대에서 군인 개인의 도덕적, 종교적, 영적 신념 및 신앙, 가치에 위배되는 상급자의 요청은 명백한 도덕적 상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병사가 상관에게 “동료병사가 자살할 것 같으니 심리적 지지 및 도움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보고했을 때 상관이 그 보고를 무시, 묵살 후에 그 동료병사가 자살을 했다면, 도덕적 상해가 발생한 것이다. 자신이 동료병사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자신의 무능력과 그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동료병사의 생명을 잃게 만든 상관에 대하여 배신감, 실망감, 혐오감, 갈등, 분노 등의 복합정서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더 이상 군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과연 따라야 할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휘관에 대한 진정한 충성, 헌신은 사라질 수 있다. 결국, 군인의 도덕적 상해는 틀림없이 사기 저하와 전투력에 손상을 주게 되므로 군에서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예방해야 하며, 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한다. 또한, 남군 지휘관이 여군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성적 학대 및 성폭력 등이 나타날 때 여군은 도덕적 상해를 당하게 된다.³⁹⁾ 지휘관의 지시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복종했으나 그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부하는 당연히 도덕적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해

39) Marcus Mescher, “Toward a Taxonomy of Moral Injury: Confronting the Harm Caused by Clergy Sexual Abuse,” *Journal of the Society of Christian Ethics* 43/1(2023), 75-91.

알고 있는 주변인들도 동일하게 도덕적 상해를 입게 된다.

만일 홍수로 인해 부대 인근 민간마을이 수몰될 재해 상황에서 상급부대의 대민지원 명령에 따라 민간인 구출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상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시민 구출에 투입된 병사들은 급류로부터 안전보장을 위해 허리춤에 안전선을 연결하여 입수해야 한다. 그런데 지휘관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주민 한 명을 목격하고 수영하여 빨리 구출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참모들은 “구출하는 병사들이 수영선수 출신이기는 하지만 안전선을 연결하고 입수해야만 한다”고 보고했다. 촌음을 다투는 상황에서 지휘관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급히 입수하라!”는 명령에 따라 한 병사가 안전선 연결 없이 입수하다가 주민과 함께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면, 이런 상황은 전형적인 도덕적 상해이다. 판단을 잘못된 지휘관에 대하여 군인들은 배신감, 실망감, 혐오감, 갈등, 분노, PTSD를 경험하게 된다. 도덕적 상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관례, 상황, 합리화, 조직의 특성 등을 이유로 가해행위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가해행위 자체를 모를 수도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문제로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지휘관으로부터 도덕적 상해를 당할 때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목격하는 군인들도 배신감을 비롯한 복합정서를 갖게 된다. 군대 내에서 도덕적 상해는 지휘관의 권한 및 권력, 지시, 명령, 강제성 등과 관련이 있으며, 부하들은 이에 대항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잘못된 지시나 명령에 맞설 힘이 없다는 상황, 지휘관의 비도덕적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도전하기가 쉽지 않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인식이 무력감인데, 이는 불안과 공포로 이어지며, 도덕적 상해는 더욱 크게 부각된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향후, 지휘관에 대한 존경의 상실은 물론, 지시나 명령에 따라야 할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⁴⁰⁾ 이는 “자신이 믿은 옳은 일에 대한 지도자의 배신”(a leader’s betrayal of what is right)으로 표현된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지휘관의 지시, 명령, 체제, 제도, 국가 등에 대한 배신감 및 혐오는 전형적인 도덕적 상해이다. 이런 일이 전시에는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 또 과거에는 군내에서 발생한 일들이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보도통제가 되어 묻혀버리는 일들이 많았으나 근래에는 사소한 사건도 곧바로 사회 전체에 보도되어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는 군의 사기 문제로도 연결되며, 군 조직에 대한 불신과 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⁴¹⁾

미군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이슬람지역 점령지 원주민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원주민 무리 가운데 테러리스트가 숨어 있다는 정보나 첩보를 기초로 강경 진압을 하다가 비무장 주민들에게 사살을 명령했을 때 부하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응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때로는 ‘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이 격해지고, 야

40) Yossi Levi-Belz, Gadi Zerach & Kathleen Kendall-Tackett, “How Can They Treat It If They Can’t Identify It?: Mental Health Professionals’ Knowledge and Perspectives of Moral Injury,” *Psychological Trauma* 15/S2(2023), 436-45.

41) 미군의 경우에 도덕적 상해를 입게 된 군인들은 다음의 8가지 증상이 인식이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 (1) 자신의 잘못이 훨씬 더 명확해진다. (2) 나는 죄가 있는 것 같다. (3) 내 능력이 의심스럽다. (4) 나는 인생이 부조리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5) 상대방으로부터 상충되는 요구를 받으면, 씩씩하고 냉소적이 된다. (6) 나는 자주 화를 낸다. (7)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일을 했는지 종종 의심이 든다. (8) 이 세상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 군인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전투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Miller, “Moral Injury, Moral Identity and ‘Dirty Hands’ in War Fighting and Police Work,” 723-34.

만화(brutalization), 폭력화가 나타나 점령군의 민간인 학살, 강간, 폭행, 절취 등을 비롯하여 비인도적, 비윤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이를 수행하는 군인들은 도덕적 상해를 입게 된다.

Gary Roberts와 Diane Hess-Hernandez는 전시 군종목사의 활동과 영향력에 대한 실태를 진술하면서 전쟁/전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야전교범(FM: Field Manual)과 종종 엇갈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신학이나 목회 그리고 윤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⁴²⁾ 이에 대하여 Robert Phillip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⁴³⁾ 한 군인이 군종목사에게 찾아와 흐느끼면서 상담을 요청한 것이었다. 자신의 분대에 “이라크 병커를 조사하라”는 수색명령이 내려져 이에 접근하자, 두 명의 이라크 군인과 조우하게 되었다. 이라크 군인들은 한 손에 AK-47 자동소총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이라크 어린이를 앞세우고 있었다. 미군들은 적(이라크 군인)을 향해 사격을 하려다가 어린이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격을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어린이를 인간방패로 삼은 이라크 군인의 선제공격에 의해 자신의 분대원이 전사한 사건을 경험했거나, 이라크 군인을 제압하기 위해 사격을 하다가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모두 죄책감과 슬픔, 분노 등 복합정서와 함께 도덕적 상해가 발생하게 된다. 전쟁/전투를 수행하면서 이런 일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일이지만 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42) Gary Roberts & Diane Hess-Hernandez, “Occupational Stress Coping Skills of Military Chaplains: The Role of Spiritual Intelligence,” Eric Patterson, (ed.) *Military Chaplains in Afghanistan, Iraq and Beyond*,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2014), cp. 10.

43) Robert Phillip, “The Military Chaplain in Time of War Contours and Content of Ministry,” *Quarterly Review* 24/1(2004), 47-58.

군인들은 오랜 시간 도덕적 상해로 인해 끈질기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

전쟁/전투의 충격적인 이유는 적과 직면하여 살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적을 사살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살 당하기 때문에 군인은 급박한 상황의 전투현장에서 적을 사살하는 일에 조건반사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하는 일이며, 당연한 일이다. 이는 법적 보호를 받는 행위이며, 국가적 ‘처형’의 의미로 정당하게 규정화된 살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성의 후면에는 강제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전투원의 도덕적 상해가 발생한다. 전투현장의 회상, 적군의 죽음과 그 장면의 회상으로 인한 불안, 공포와 두려움, 불면, 끊임없이 불필요한 과잉경계 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증상은 전투가 중단된 지 수 년, 수십 년이 지나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군종목사는 군인들에게 거룩한 전쟁(holy war) 개념을 부각하여 적을 사살하는 일이 개인의 감정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중차대한 임무수행이며, 합법적이고, 합당한 일임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상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미 국방부의 ‘군종장교에 대한 지침’(1304.19)에 따르면, 군종장교는 “군사작전에 있어서 종교적 영향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지휘관의 주요 고문역할을 한다.”⁴⁴⁾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종목사는 지휘관이 도덕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어야 한다. 종교, 정치, 외교, 문화, 윤리적 규범을 모두 고려

44) US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1304.19,”(June 11, 2004).

한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⁴⁵⁾ 경우에 따라서 지휘관과 군종목사 간 도덕적 문제로 불협화음과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고, 조언이 거부되거나 오히려 비난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군 성직자인 군종목사는 군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윤리적인 존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군과 지휘관의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군인은 정의로운 전쟁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합법적인 표적과 불법적인 표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허용된 파괴와 불허된 파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윤리적인 공격과 비윤리적인 공격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본능적이기보다는 교육적으로 인격지도 등 정신교육 등을 통해 군인들에게 수립해주어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리하고, 승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에 현대 전쟁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윤리도덕은 정의로운 전쟁/전투의 필수적인 원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쟁/전투에서 승리했으나 윤리적 실패로 지휘관의 일부는 전쟁/전투 후에 부도덕, 비윤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쟁/전투 중이라 하더라도 부당지시나 불법명령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를 ‘군사윤리’(military ethics)라 명명한다. 윤리가 신학은 아니지만, 신학은 윤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군에서 윤리교육은 공공신학자(Public Theologian)로서 군종장교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⁴⁶⁾ 군인들 간의 병영윤리도 잘 준수해야

45) John W. Brinsfield & Eric Wester, "Ethical Challenges for Commanders and Their Chaplains," *Joint Force Quarterly* 54(2009), 20-21.

46) Darren Cronshaw, "Good Soldiering and Re-virtuing Military Ethics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6/3(2022), 337-58.

하고, 아직은 표현이 일반적이지 않아 어색하지만, 전쟁/전투 시에는 '윤리적 전쟁/전투'가 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행동규범 내에서 전투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아군은 윤리적이거나 적군은 비윤리적이라는 문제는 전쟁/전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나, 군의 지휘부나 국가가 적국과 정치적으로 협상해야 하는 몫이다.

군종목사는 군인의 심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도덕적 상해를 이해,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군대에서 도덕적 상해를 돌볼 수 있는 존재는 군종목사 외에 적합한 담당자가 없다. 이는 영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훈공보장교나 인사담당장교 또는 군상담사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다.

4. 도덕적 상해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방안

1) 도덕적 상해의 치료에 대한 일반적 접근

기독교상담 및 심리영적 상담에서 도덕적 상해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통찰력을 가지고 내담자로 하여금 도덕적 신념 및 신앙, 가치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문제의 발생은 도덕적 신념 및 신앙, 가치와 입장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상해이지, 만일 도덕적 신념 및 신앙, 가치와 입장이 확고하지 않았다면 도덕적 상해는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자신의 윤리적 신념 및 신앙, 가치와 입장이 정당하다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신앙 안에서 도덕적 방향성을 바르게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상담자의 역할이며,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역할이기도 하다.

도덕적 상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돌봄기반의 관점'

(care-based view)을 가져야 한다. 돌봄기반의 관점은 내담자를 비난하지 않고, 바람직한 태도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종의 강점기반의 상담이라 할 수 있다. 동료의 지지와 수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field)은 집단상담이다. 집단상담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집단구성원의 문제극복 태도 및 합의적 타당화(consensual validation)를 통해 자신의 문제극복 방안을 모색하여 회복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Melissa A. Smigelsky 등은 도덕적 상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집단상담의 치료적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덕적 상해로 인해 발생된 PTSD와 우울증은 집단상담을 통해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다고 제시했다.⁴⁷⁾ 기독교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동질집단은 구성원 간 더욱 용이한 자기노출과 타인의 도덕적 상해 극복경험 및 태도 등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군이라는 견고한 수직체계에서 군인들이 자신의 도덕적 상해를 쉽게 노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기노출을 통해 치료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개인상담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소대단위의 심리교육적 효과도 모색해 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접근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2) 영적 복원력을 위한 접근

도덕적 상해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내담자로 하여금 영적인 복원력을 갖고, 영적인 힘을 강화함으로써 치료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47) Melissa A. Smigelsky, Jesse Malott, Ryan Parker, Carter Check, Brad Rappaport & Steffanie Ward, "Let's Get REAL: A Collaborative Group Therapy for Moral Injury,"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28/S1(2022), 42-56. Pyne도 도덕적 상해가 집단상담을 통해 증상이 낮아진다는 집단상담 효과를 입증했다. Pyne et al, "Addressing Religious and Spiritual Diversity in Moral Injury Care," 446-62.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지지상담이 필요하다.⁴⁸⁾ 상담자는 우선 내담자에게 도덕적 상해에 대한 심리정서적, 심리영적 상태를 진솔하게 표출토록 하고, 그것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 본디, 정서는 정서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다. L. Carey 등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심리정서적 손상은 근본적으로 영적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듯, 회복에 있어서도 도덕적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적 회복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⁴⁹⁾

도덕적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상에게 분노하거나 적대감을 갖거나 또는 그 반대로 자신의 문제, 갈등, 상황에 집중하여 스스로를 결함 있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 등에 시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덕적 상해를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상해를 초래한 가해자에 대한 분노 정서를 다루어 주어야 회복이 가능하다. 분노는 심리정서적 손상을 초래하는 문제이지만 영성에도 치명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를 처리하는 성경적 방법으로 Dikmen은 용서를 제안했는데 이는 기독교상담적 회복변인 가운데 주요한 것이다. 도덕적 상해는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감소시키지만, 용서할 때 심리영적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실증 연구에서는 도덕적 상해의 가해자에 대하여 용서 방법을 배우지 못

48) Berdida & Grande, "Moral Distress, Moral Resilience, Moral Courage and Moral Injury," 3957-78.

49) Lindsay B. Carey, Timothy J. Hodgson, Lillian S. Krikheli, Y. Rachel, Annie-Rose Armour, Taranjeet K. Singh & Cassandra G. Impiombato, "Moral Injury, Spiritual Care and the Role of Chaplain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5/4(2016), 1218-45.

한 사람들에게서 심리적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문제는 용서가 기독교상담의 효과성을 높이는 하지만, 자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하여 성경적인 용서 이유를 규명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Pyne은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용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기독교상담적인 개념은 아니다.⁵⁰⁾ 자기용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용서가 우선적이고, 죄의 문제의 경우 회개가 우선적이다. 회개한 후에 사죄의 확신을 갖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 과정없는 자기용서는 치료적이라기보다 단지 심리적인 위로가 될 뿐이다.

5. 닫는 글

이 연구는 군인의 도덕적 상해에 대한 군종목사의 기독교상담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문헌연구이다. 도덕적 상해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 및 신앙, 가치가 권력자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조화 및 갈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는 심리적, 정서적, 영적 부분의 피해로 나타나며, 다양한 심리적 질병으로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담학에서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도덕적 상해는 군대와 같이 견고한 수직관계의 조직문화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군의 사기 문제로도 연

50) Pyne et al, "Addressing Religious and Spiritual Diversity in Moral Injury Care," 446-62.

결되며 전투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을 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군에 대한 불신과 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군종목사는 군인의 심리영적 전문가로서 ‘돌봄기반의 관점’(care-based view)에서 그리고 영적 지지상담 차원에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자이다. 도덕적 상해의 심리영적 복원력을 위한 기도는 영적인 힘을 강화한다. 도덕적 상해를 입은 군인은 가해행위를 한 대상에게 분노하는 것이 기본정서이다. 하지만 용서는 기독교상담적, 심리영적 회복변인 가운데 주요한 것이다. 또한 죄책감의 해소를 위해 회개가 기독교상담적인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도덕적 상해는 그것을 학술적으로 다루려 했던 당초부터 참전용사들의 문제로 인식했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피해로서 정신 의학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었다. 주로 군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심리적 문제로 도덕적 상해를 보려는 시각이 있어 왔지만 그 범주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는 특수한 피해라기보다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일반화된 문제로 보고,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에 도덕적 회복(moral repair, restoration)이라는 용어와 개념도 확대,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가 도덕적 상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연구를 했다고 보지만, 향후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이 연구를 기초로 도덕적 상해를 치료, 회복하기 위한 심리영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pre-test)과 후(post-test) 인식변화에 대한 비교연구, 실험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이 연구와 아우러져 기독교상담의 의미 있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표준화된 검사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상황에

적합한 타당화 또는 표준화된 검사지를 제작한다면 이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주제의 논의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도덕적 상해를 치료, 회복하는데 기독교상담에서 활용할 은혜의 방편(신앙요소) 가운데 용서가 가장 도덕적 상해를 치료하는 왕도로 제시되고 있으나 과연 용서를 활용한 도덕적 상해의 치료가 사회과학적인 방법(통계연구)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Military Chaplain's Counseling Method on Moral Injury in Military Situation

Joseph Jeon

This research aims to clarify the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moral injury in military situations and Christian counseling methods for ROK military chaplains. moral injury is a psychiatric term that refers to psycho-emotional injuries occurring in military and battlefield situations. It is a generalized concept that has been used since 1994. moral injury refers to psycho-emotional, psycho-social and psycho-spiritual damage that begins with disharmony and conflict that occurs when military personnel's moral beliefs, faith and values do not match those of people in power. moral injury causes a variety of psychological problems, including depression, anxiety, phobia and trauma, from feelings of betrayal, disappointment, frustration, guilt, shame, disgust, conflict and anger. moral injury often appears in organizational cultures with strong vertical relationships, such as the military. moral injury mainly affects superiors and can be seen as a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of those in power and the 'duty of loyalty' of those the reuled. Military chaplains are the psycho-spiritual experts of military personnel and can best handle moral injury. Resolving moral injury from a 'care-based perspective' requires the role of military chaplains. To deal with this effectively, group counseling is a good method, but the effectiveness of psycho-education at the platoon level can also be explored. Individual counseling can be the most optimal way to overcome moral injury. Accordingly, soldiers with moral injury need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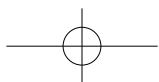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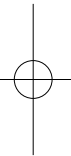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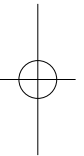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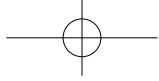
strengthen their spiritual strength, such as prayer and receive spiritual support counseling for psycho-spiritual resilience. When suffering from moral injury, the primary emotion is anger toward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offense, but forgiveness is a major factor in Christian counseling and psycho-spiritual recovery. Additionally, repentance is an effective Christian counseling method to relieve guilt.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Military Chaplain, Moral Injury, Military, Psychotherapy

논문 기고자 **Email**

jeon8182@gmail.com





복음의 증인: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를 중심으로

Witness of Gospel: Hauerwas on Christian Identity and Ecclesial Ethics

» 문시영 Ph. D.*

국문초록

하우어워스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관심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 됨을 강조했다. '그리스도인 됨'은 '제자 됨'을 뜻하며 '증인 됨'을 요청한다. 그리스도인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십자가에 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정체적식은 '복음의 증인 됨'으로서 실천적 지평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명사라기보다 역동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증인 '됨'을 위한 관심에서, 군선교와 관련하여 적어도 두 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경계해야 할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구현해야 할 과제이다. 그 하나는 '다른 복음 경계하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음을 가장한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더불어, 가장 큰 위험은 복음으로 포장된 변영의 탐욕이다. '변영의 복음'은 재정적 변영과 성공을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대해 '나쁜 증인'이 되게 하고 만다.

다른 하나는 '복음으로 성품함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과제이다. 하우어워스는 '성품형성으로서의 성화'를 제안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됨이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복음의 증인됨은 그것은 변영의 그리스도인에게 추가도 부과되는 무거운 의무사항으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 적극적 책임으로서의 응답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신앙전력화에 기여할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중심단어

복음의 증인, 예수 내러티브, 변영의 복음, 복음의 성품화, 군선교

• 논문 투고일: 2024년 7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8월 2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5일

* 남서울대 교수/교목실장, (사)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대표회장, (재)에텐낙원 이사

I.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 스스로에 대한 것일 듯싶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또한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자기성찰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 됨’(being Christian) 혹은 그리스도인다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Christian as Christian)을 살아내기가 절실해진 세대 속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해 보인다.

복음 안에 있는 존재로서의 정체의를 확립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이야말로 본원적 진리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의를 확립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책임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의를 확립과 그에 따른 실천을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가 말한 ‘응답으로서의 책임’(responsibility)을 구현한다는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군선교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내기’의 응답적 책임이 지닌 중요성은 더욱 크다. 병역의 주력인 ‘MZ’세대에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혹은 오늘의 군선교가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이 넘쳐나는 맥락에 처하여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유효한 정공법일 듯싶다. 마치 요셉이 자신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창 45: 5)로서의 정체의를 가졌던 것처럼, 혹은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Hipponensis)가 외부의 침략을 당한 공포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도를 돌보며 장병들을 위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 것처럼,¹⁾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적 응답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을 ‘복음의 증인’(witness of Gospel)이라고 규정한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에 관심을 갖는다. 2001년 ‘TIME’에서 ‘the Best Theologian’으로 선정한 것이 중요한 이유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²⁾ 하우어워스의 책 『교회됨』(A Community of Character)이 ‘Christianity Today’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00권의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의미는 있어 보인다. 그의 또 다른 책, 『평화의 나라』(The Peaceable Kingdom)는 ‘The Church Times’가 선정한 최고의 그리스도교 저작 100선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명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하우어워스는 ‘그리스도인 됨’에 관하여, ‘교회 됨’(being Church)에 관하여, 그리고 ‘제자 됨’(being Disciple)에 관하여 중요한 통찰을 준다. 하우어워스의 이러한 관심들은 별개의 것이 아닌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복음의 증인 됨’(being witness of Gospel)에 대한 관심은 교회 됨과 제자 됨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의식을 가져야 하는가를 성찰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으로 제시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

1) 이규철,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사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21 (2022), 15-65.

2) 2010년에 듀크대학 연구실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교회됨』(A Community of Character)을 번역할 때였다.(拙譯이 되고 말았다.) 하우어워스가 ‘best’라는 평가어는 신학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해에 일어난 9.11테러를 안타까워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어쨌든 미디어들이 신학자에게 주목한다는 것 자체는 그에게 주목할 요소가 있음을 반증하는 듯싶다.

의 의미를 살펴보고 적극적 응답으로서의 책임을 위한 과제로 제언하려는 취지이다.

II.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군선교를 위한 성찰

1. 복음의 증인(witness of Gospel)³⁾

그리스도인의 정체 인식 내지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학술연구자들의 몫이라기보다 설교자들의 주제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학술연구의 주제가 되는 경우는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기독교 청소년에게 신앙적인 자아정체성에 대한 기독교 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⁴⁾ 교회청년들의 성경적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 성경적 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청년목회 필요성에 관한 연구⁵⁾ 등을 참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장병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한 정신전력 강화의 방안으로 문화예술의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며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자는 제안은 군선교와 관련해서도 참고할만한 연구라고 하겠다.⁶⁾ 무형전력으로서의 ‘정신전력’과 ‘신앙전력’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장병의 인성교육 및 자아정체성에 관심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

3) 이 글에서는 ‘예수 내러티브(Jesus narrative), 예수님 이야기(story of Jesus), 이스라엘 이야기(story of Israel), 하나님 이야기(story of God)’ 등 하우어워스의 용어들을 그 내용에 따라서 ‘복음과 호환적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4) 강문규, “현대 한국교회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 자아정체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책임,” 『신학과 실천』 74 (2021), 665-701.

5) 엄옥순, “기독교 청년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43 (2017), 9-43.

6) 박영민, “장병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한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 『정신전력연구』 67 (2021), 63-101.

다. 이 부분의 논의를 확장할 단초들을 찾아내면 무형전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이 글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장병에 대한 관심에 맞춰진다. 그 중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을 교육의 주제 내지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가 아닌 스스로 정립해야 할 복음적 가치관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하우어워스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됨의 문제와 관련된 깊은 성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에 관한 논의는 하우어워스의 윤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특별히,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대해 기독교윤리학자들이 붙여준 별칭이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라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우어워스가 기독교윤리의 근간은 특정한 신학자의 관점이나 이론이 아닌 교회에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평가이다.⁷⁾ 이것은 하우어워스가 윤리의 지평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교회'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에 집중한다는 취지이다. 하우어워스의 관심은 교회의 교회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우어워스가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제자 공동체 혹은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은 교회윤리의 핵심에 속

7) 이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도록 추천한다. 문시영, 『교회됨의 윤리: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연구』(성남: 북코리아, 2013)

한다.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에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으로 풀어냄에 있어서, 하우어워스 자신이 요약한 강조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⁸⁾ (1)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덕의 중요성과 그 회복의 강조, (2) 예수 내러티브를 통한 도덕 이해와 강조, (3) 복음에 충실한 덕의 사람을 육성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4) 현실정치 참여보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시민사회의 대조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5) 십자가 정신에 대한 강조 및 비폭력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그것이다.

1) '복음'

하우어워스에게서, 복음이란 '네 권의 복음서'를 뜻하는 것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뜻한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이끌어주는 삶의 훈련을 위한 매뉴얼이기도 하다.⁹⁾ 이것은 하우어워스가 현대신학에서 성경에 대해 어긋나기 쉬운 관점을 극복하고 성경의 권위를 복권시켜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펼쳐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 표현이 현대인문학에서 사용하는 '내러티브'(narrative, 敍事) 내지는 '이야기'(story)로 진술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특히, 현대 덕 윤리(virtue ethics)를 주도하는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와의 교류에서 하우어워스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하우어워스 자신도 내러티브에 주목한 매킨타이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내러티브가 전통적 신학의 개념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8) Stanley Hauerwas, *A Cross Shattered Church : Reclaiming the Theological Heart of Preaching*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145.

9)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문시영 역 (성남: 북코리아, 2010), 107.

도, ‘복음의 증인’을 설명할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인간의 자아 혹은 정체의식은 내러티브로 형성된다.¹⁰⁾ 인간은 내러티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¹¹⁾ 이 부분은 매킨타이어가 인간을 서사적 혹은 내러티브의 존재라고 말했던 것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하우어워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러티브의 ‘종류’(kind)이다.¹²⁾ 하우어워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story of Jesus)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Jesus narrative)로 형성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상응하는 공동체를 형성시킴¹³⁾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말해지고, 실천되는 곳이어야 한다.¹⁴⁾

이처럼 ‘이야기를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매킨타이어를 포함한 인문학자들의 관점은 하우어워스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에 관한 논의로 전환된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를 지닌 존재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을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이시며¹⁵⁾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박히신 구세주의 이야기를 기억하

10) 스탠리 하우어워스, 『평화의 나라』, 홍종락 역 (서울: 비아토르, 2021), 103.

11)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246.

12) *Ibid.*, 20.

13) *Ibid.*, 112.

14) 스탠리 하우어워스, 『평화의 나라』, 99-100.

15)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180.

고 전하기 위한 존재들이다.¹⁶⁾

하우어워스가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¹⁷⁾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아를 찾고 그로 인해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인으로서의 정체의식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는 확신과 함께 찾아온다.¹⁸⁾ 혹은 나 자신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죄인으로 보게 하는 내러티브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발견할 수 있다.¹⁹⁾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과 관련하여 하우어워스가 주목하는 것은 복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이다. 내러티브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 됨에 관한 더 풍성한 설명에 다가설 수 있는 장점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하겠다. 하우어워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는 본질적으로 복음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복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2) ‘증인’

복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개념은 ‘증인’이다. 사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청하신 사항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 8)는 말씀에 사용된 증인

16) *Ibid.*, 103.

17) 스텐리 하우어워스, 『평화의 나라』, 93.

18) *Ibid.*, 94.

19) *Ibid.*, 94.

은 헬라어 ‘마르투스’(μαρτυς)이며 ‘순교자’(martyr)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이 될 것임을 주께서 말씀하셨다.²⁰⁾ 하우어워스가 “그리스도인의 자아는 나 자신이 아닌 성령의 지배하에 놓여있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²¹⁾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의 문제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더구나, 박해가 닥쳐왔을 때 ‘순교’는 증인 됨의 표현이었다.²²⁾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순교자로 로마를 이겼다.” 목숨을 희생당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보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중히 여겨서 끝까지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를 살아내었기 때문이다.²³⁾ 말하자면, 증인으로서의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위해 순교했다.²⁴⁾

이러한 맥락에서, 하우어워스의 핵심질문은 분명해진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이어야 한다.²⁵⁾ 여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다. 계몽주의적 근대 이후 칸트의 기준을 따라 ‘윤리’라는 분과학문이 구분되기 이전, 그리스도

20) 고팡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증인된 사명,” 『복음과 선교』 46 (2019), 9-41

21) 김희준, 『스탠리 하우어워스 읽기: 그리스도의 증인 된 교회를 위한 신학적 윤리학』 (서울: IVP), 235.

22) Stanley Hauerwas and Samuel Wells,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Oxford, UK: Wiley-Blackwell, 2006), 41.

23) 김희준, “교회 됨: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신학적 윤리학에 담긴 증인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52 (2022), 155-176.

24) 김희준, 『스탠리 하우어워스 읽기』, 182.

25)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30.

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였을까?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칸트의 정언명법에 따라 행위함으로 자유를 얻는다기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主)를 따름을 통해서”이다.²⁶⁾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순종하여 이루어내신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정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정치의 헌법이 복음서이다. 복음서들은 단지 인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의 매뉴얼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실재에 참여하는 것이다.²⁷⁾

이러한 논의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있다. 하우어스에게서 ‘그리스도인 됨’(being a Christian)은²⁸⁾ ‘제자 됨’(being disciple)을 뜻하며 ‘증인 됨’(being witness)을 요청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우리의 이야기 즉 복음을 진지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²⁹⁾ 복음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정체의식의 근간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증인 개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과 관련된 것이자 성령의 능력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우어워스에게서 증인 됨은 부과된 책무라기보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진 사항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하우어워스

26) *Ibid.*, 253.

27) *Ibid.*, 107.

28)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A Study in Theology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5), 183.

29)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의 정치학: 기독교세계 이후 교회의 형성과 실천』, 백지운 역 (서울: IVP, 2019), 199.

의 증인 개념이 윤리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임을 반증해준다.

3) 복음의 증인 ‘됨’

두 가지 요소, 즉 복음과 증인에 관한 성찰에서 분명해진 것은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정체의식을 가져야 하며 그들이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할 내용은 ‘복음’이라는 사실이다. 특별히, 하우어워스가 그리스도인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십자가에 있다. 하우어워스는 복음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³⁰⁾ 그리고 이러한 강조의 정점은 ‘십자가’이다.

하우어워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Cross-Shattered Christ)에서³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제시되는 소망을 통해서만 미래를 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³²⁾ 그리고 『십자가에 근거한 교회』(Cross-Shattered Church)에서,³³⁾ 하우어워스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권한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주목하면서, 하우어워스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적 조류에 휩쓸리거나 사회정책을 위한 보조기관으로 전락하는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생겨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cross-shattered church)가 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혼란이라고 진단한다.³⁴⁾

30) 스탠리 하우어워스, 『하나의 아이: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홍종락 역 (서울: IVP, 2016), 293.

31) 원서명을 직역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지만, 문맥을 고려한 필자의 의역이다.

32) 스탠리 하우어워스, 『십자가 위의 예수』, 신우철 역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09), 18.

33) 원서명을 직역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교회’이지만, 문맥을 고려한 필자의 의역이다.

34) Stanley Hauerwas, *Cross-Shattered Church*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9), 20.

십자가에 대한 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참된 본성, 참된 목적을 드러낸다는 하우어워스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³⁵⁾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를 기억하고 전하기 위한 복음적 성품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 하우어워스의 요점이다.³⁶⁾ 이러한 십자가 중심의 관점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야 할 고백의 절정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Lord-ship)’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한다. 심지어 ‘나이 듦’(aging)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가 필수적이며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이 요청된다.³⁷⁾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시간 안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어야 한다.³⁸⁾ 여담이지만, 최근에 유행처럼 관심하는 ‘구술자서전’이 개인의 삶을 미화시키는 경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자성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시키는 과정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에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말해주는 이야기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나이들을 포함하여 삶과 죽음의 모든 영역에서 그

35) 스탠리 하우어워스, 『평화의 나라』, 194.

36) *Ibid.*, 104.

37) 스탠리 하우어워스, 케롤 스톨네킹, 케이트 매도르, 데이빗 클루터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듦에 관하여』, 이라이프아카데미 역(서울: 두란노, 2021), 286.

38) *Ibid.*, 289.

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한다. 증인의 증언에 관하여, 하우어워스는 분명하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길은 증언을 통해서이다.”³⁹⁾ 하나님의 이야기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특권이다.

하지만, 이 사명을 언어적 증언으로만 설명하려는 것은 너무 단순화된 생각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살아내야 한다.”⁴⁰⁾ 이것은 적극적 의미에서 증인의 정체의식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 즉 ‘복음의 증인 됨’(being witness of Gospel)에 대한 요청이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명사라기보다 역동성을 지닌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음의 증인 됨은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복음대로 살아내는 실천적 삶에 나서야 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예수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충실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⁴¹⁾ 이야기는 단지 말하고 듣는 것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본받고자 할 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²⁾ “우리의 존재에 대해 진리라고 믿는 이

39)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의 정치학』, 196.

40) 스탠리 하우어워스, 『평화의 나라』, 119

41)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113.

42) *Ibid.*, 292.

야기 즉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그 역할 곧 증인이 되는 것을 진지하게 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⁴³⁾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이 수행해야 할 책무이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관심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하우어워스는 콘스탄틴 시대에 교회가 기독교제국(Christendom)을 이룬 것을 ‘동화’(accommodation)라고 비판하면서, 현대사회에 재현되고 있는 교회와 자유주의 정치와의 결탁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에토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진정한 삶의 대안이어야 한다는 뜻이다.⁴⁴⁾ 하우어워스가 ‘교회의 으뜸가는 책무는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to make the church the church)’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⁴⁵⁾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초라한 본 모습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⁴⁶⁾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복음에 있다.⁴⁷⁾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하우어워스의 인식은 새롭고 특정한 신학적 성향 내지는

43)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의 정치학』, 195.

44)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32.

45) 스탠리 하우어워스, 『한나의 아이』, 311.

46) 스탠리 하우어워스, 『평화의 나라』, 219.

47) *Ibid.*, 159.

지향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가 ‘평화’를 강조한다고 해서 평화주의자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선부르다. 하우어워스는 자신이 평화를 강조하고 심지어 자신의 저서마다 인사말에 ‘평화’를 필수적으로 넣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우어워스 자신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은 아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다.”⁴⁸⁾

하지만 예수께서 평화의 길만 가신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현실의 특정한 이슈에 반응하셨다기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 죄 용서와 구원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없다. 이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낼 과제를 지닌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의식을 확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를 따라 살아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으로서의 책임을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2. 복음의 증인 됨: 군선교를 위한 성찰

복음의 증인 ‘됨’을 위한 관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의식을 군선교와 관련하여 성찰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모범 병사’ 되라는 것일까? 사실, 그에 따른 혜택을 고려한다면, 모범 병사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을 듯싶다. 혹은 매사에 ‘본을 보여야 한다’는 뜻일까?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요청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모범 병사가 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복음

48) 하우어워스가 듀크대학 재직하던 때, 듀크대학신문사와 인터뷰했던 내용에서 인용했다. “Faith Fires Back”(2002,1,31.) *[http://dukemagazine.duke.edu/article.\(2024,7,6.접속\)](http://dukemagazine.duke.edu/article.(2024,7,6.접속))

의 증인일 수 없는 것일까? 적절한 관계설정이 아닌 것 같다. 복음의 증인과 연관지어,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듯싶다. 그 하나는 경계해야 할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구현해야 할 과제이다. 복음의 증인 됨을 위한 길을 왜곡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복음의 성품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 '다른 복음' 경계하기⁴⁹⁾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른 복음을 경계했던 것처럼, 복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교란시키는 다른 복음'(갈 1: 7)의 위험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처럼, '교란시킨다'(throwing you into confusion)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to pervert the gospel of Christ) 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증인 됨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다.

먼저 생각할 것은 복음을 가장한 율법주의이다.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서처럼, 유대주의자들의 할례에 관한 문제제기는 복음에 대한 교란이었다. 바울이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한 것을 유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굳이 할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율법주의적 비난, 정죄, 심판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본질적으로는 '자기 의'(自己義, self-righteousness)를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유혹이다.

'자기 의'는 율법주의가 주는 치명적인 위험으로써, 교회와 그리

49) 필자는 특임정훈장교(중위)로 임관하여 육군여단 정훈장교로 근무하면서 얼마간 '군종 담당장교'의 보직을 겸임하여 여단본부교회를 담임목회 할 기회가 있었다. 매우 다양한 영성을 지닌 혹은 여러 교파의 신앙인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변영의 복음에 길들여진 경우들이 공통적으로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역설적으로, 군선교에서 진정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사역이 절실하다는 점을 절감하는 기회였다.

스도인을 향하여 쏟아내는 술한 정죄들이 과연 복음에 근거한 것일지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은혜만능주의로 치닫는 것 또한 옳지 않다. 굳이 말하자면, 은혜중심주의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궁홀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약 2: 13)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복음적일 듯싶다. 심판은 주께서 하실 몫일 뿐,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은 옳지 않다.

가장 큰 위험은 복음으로 포장된 번영의 탐욕이다. ‘번영의 복음’(gospel of prosperity)이 그것이다. 혹은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는 번영의 복음에는 ‘성공의 복음’(gospel of success), ‘건강과 부의 복음’(the health and wealth gospel)과 같은 별칭도 붙어 다닌다. 한국기독교의 압축적 교회성장의 과정에서 복음이 ‘바벨탑’에 갇혀 버린 것은 아닐지 자성이 필요하다. 『바벨탑에 갇힌 복음』(Christianity in Crisis)에서, 해네그래프(Hank Hanegraaff)는 ‘결함들’을 뜻하는 ‘FLAWS’에 맞추어 지닌 번영신학을 포함한 ‘믿음 운동’의 결함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⁵⁰⁾

F(Faith, 믿음):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다.

L(Little gods, 작은 신들): 인간을 하나님의 복제로 여겨서 인간을 신격화한다.

A(Atonement Atrocities, 영터러 속죄론): 거듭나면 신과 같아진다고 여긴다.

W(Wealth and Want, 부와 가난): 신앙은 부를 축복으로 받게 한다고 강조하다.

S(Sickness and suffering, 질병/고통): 믿음으로 건강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50) 헵크 해네그래프, 『바벨탑에 갇힌 복음』, 김성웅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165-168.

변영신학은 재정적 변영과 성공을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대해 ‘나쁜 증인’이 되게 하고 만다.⁵¹⁾ 그것은 탐욕의 정당화와 다를 것이 없으며, 복음을 왜곡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증인이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탐욕에 놀아나게 된다면 그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단계를 넘어 ‘치명적’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없다.⁵²⁾

이러한 자성에 더하여, ‘최고 부자 하나님의 축복’을 비롯하여 ‘부자 예수와 값싼 은총’의 문제에 대한 자성 또한 절실하다.⁵³⁾ 인문학자들도 미국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의 기독교 및 사회적 정황과 연관을 지어 비판하고 있는 정황이다.⁵⁴⁾ 다른 누구보다도,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를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자성과 함께 복음 안에서 성찰해야 할 과제이다.

돌이켜 보면 변영의 복음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부터 기복신앙과 관련을 맺으면서 등장했으며 『야베스의 기도』(The Prayer of Jabez), 『긍정의 힘』(Your Best Life Now) 등을 통해 개신교의 자기계발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다.⁵⁵⁾ 참

51) W. W. 개스퀘, ‘변영신학과 신약성경’, 『성경과 신학』 17 (1995), 54.

52) 문시영, ‘탐욕의 길 vs. 제자의 길: 본회퍼 윤리의 한 응용『나를 따르라』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8 (2015), 182.

53) 류장현, “변영신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논단』 61 (2010), 7-30.

54) 강준만, 강준만의 미국 이야기, “긍정 낙관 확신하면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가: 노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방식,” 『인물과 사상』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14. 2) 33-56.

55) 이진규,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기계발과 복지: 한국 개신교 공간의 변영복음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7 (2020), 124-158.

고로, 『번영복음의 속임수』가 ‘신사고운동(New Thought movement)’으로부터 시작하여 필(Norman Vincent Peale), 쉐러(Robert Harold Schuller) 그리고 오스틴(Joel Osteen)으로 이어지는 궤적을 분석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하나님 덕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살자는 것이 번영복음의 골자’라는 것이다. 번영의 복음에 대한 추구가 ‘강남스타일 교회’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 또한 인상적이다.⁵⁶⁾

그런가 하면, 미국 대선후보 트럼프의 손녀가 “할아버지는 항상 내게 자신을 밀어붙여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되라고 격려했다”는 말에서,⁵⁷⁾ 미국적 성공지상주의 내지는 노만 빈센트 필과 로버트 쉐러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과연 번영으로 상징되는 성공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해야 하는 것일까? 특별히, 복음의 증인 됨을 위하여 자성해야 할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응용할 것이 있다. 하우어워스는 “성공과 실패는 교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어느 목회자 모임에서, 하우어워스가 목회의 성공을 묻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제시한 답변이다.⁵⁸⁾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굳이 교회와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말해야 한다면 그 기준부터 점검해야 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우어워스는 오늘의 목회가 중심을 상실한 채, ‘뒤죽박죽(hodgepodge)’이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워하면서,

56) 권수경, 『번영복음의 속임수』 (서울: SFC출판부, 2019), 402.

57) “전당대회 뒤집은 17세 손녀… 트럼프도 무장해제됐다” 〈조선일보〉 2024.7.20.일자.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07/19\(2024.7.26.접속\)](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07/19(2024.7.26.접속))

58) 하우어워스의 Duke University 교수 은퇴 기념학술모임(2013.11.1.) 자료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Charles M. Collier, ed., *The Difference Christ Makes: Celebrating the Life, Work, and Friendship of Stanley Hauerwas* (Eugene: CASCADE books, 2015).

‘교회의 교회 됨’을 목회의 중심에 두라고 한다.

본질적으로, 번영과 성공에 대한 욕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증인 됨이다. 혹은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복음을 내가 생각하는 복에 끼워 맞춰버리는 경향이 문제라고 하겠다.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복음에 대한 ‘교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복음의 증인 됨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성의 포인트이다.

2) 복음의 성품화: 성화

복음의 증인 됨을 위한 과제로, ‘다른 복음 경계하기’와 더불어 ‘복음으로 성품함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성품을 말한다고 해서 도덕적 교훈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하우어워스가 덕 윤리(virtue ethics)를 근간으로 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품 개념은 아시아적 의미의 덕스러움의 함양에 관해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칫 복음의 증인 됨을 개인들의 성품문제로 환원시키는 어리석음을 낳을 수 있다. 게다가,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을 추켜 세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하우어워스가 내러티브에 대한 논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에 주목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성품의 함양에서 하우어워스는 아시아적 내지는 도덕적 의미의 성품의 문제를 다룬 것이라기보다 복음의 성품화를 추구한다. 복음에 근거한 고유한 문제의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하우어워스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다음의 문장에 압축적으로 그 취지가 담겨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였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그럼으로써 내가 신실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기 때문이기를 바란다.⁵⁹⁾

하우어워스의 이 문장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낸다. 하우어워스에게서 내러티브는 자아의 정체의를 말해주는 지평인 동시에 그 내러티브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준거이다. 복음을 삶의 근간으로 삼고, 복음대로 살아냄을 통하여 복음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복음의 증인됨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일찍이, 매킨타이어가 『덕의 상실』(After Virtue)에서 현대사회의 윤리 위기를 진단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회복을 대안으로 암시했다면,⁶⁰⁾ 하우어워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로서의 복음에 충실한 삶을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우어워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와 성품화를 연계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은 복음서가 말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구현된 예수 이야기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¹⁾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⁶²⁾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이 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59) 스탠리 하우어워스, 『한나의 아이』, 293.

60) 이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추천한다. Alasdair MacIntyre, 『덕의 상실』, 이진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7), 이 책의 원제는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이며 최근 대입 수능에 출제될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수험서 e북으로도 출판되었다.

61)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97.

62) 스탠리 하우어워스, 『평화의 나라』, 175.

아니라 참된 이야기에 신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⁶³⁾ 이것을 ‘제자’ 개념을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 ‘안에 들어가 살기’를 배우는⁶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 부르심은 착하게 살라는 일반적 조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 가능해진 삶과 방식을 채택하라는 명확한 요구이다.”⁶⁵⁾

하지만, 하우어워스는 제자도를 교회의 성경공부 프로그램 혹은 교양강좌 내지는 신학적 깨달음의 문제로 축소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을 살아내기 위한 훈련을 통하여 복음의 성품화를 추구한다. 마치 그의 아버지가 벽돌쌓기 기술을 평생에 걸쳐 연마하고 숙달시킨 것처럼, 하우어워스는 제자의 삶을 실천적인 도제관계와 같다고 보았다.⁶⁶⁾ 그 핵심은 복음을 내 삶의 이야기로 수용하고 복음에 따라 나의 자아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있다.

이것은 하우어워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Confessiones)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하우어워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의 거짓 교리를 극복하고 예수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하며 변화된 삶을 추구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복음 이야기’(gospel story)에 다가섬으로써 복음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내러티브를 따라 성품을

63) *Ibid.*, 161.

64)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291.

65) 스탠리 하우어워스, 『평화의 나라』, 97.

66)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의 정치학』, 129~150.

형성하고자 했다는 해석이다.⁶⁷⁾

증인 됨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를 내 삶의 내러티브로 받아들이고 그 내러티브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과 유혹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아냄으로써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진리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 4: 13)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갈 5: 22-23)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증인 됨에 이르는 길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우어워스는 특히 소망과 인내의 덕을 강조한다.

소망과 인내의 덕목들이 중요하다. 교회가 수행해야 할 모험은 소망을 통해서만 지지될 수 있으며, 소망은 인내에 의해 훈련된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종말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⁶⁸⁾

이러한 맥락에서, 성화(sanctification)의 개념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통로이다. 하우어워스는 ‘성품형성(formation of character)으로서의 성화’를 제안한다.⁶⁹⁾ 성화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함양(having Christian character)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복음의 성품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됨이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⁷⁰⁾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함양’을 강조한 셈이다.

67) Stanley Hauerwas, David Burrell, and Richard Bondi, eds., *Truthfulness and Tragedy: Further Investigations into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34.

68)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회됨』, 21.

69)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9), 208.

70) *Ibid.*, 203.

주목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함양’(having Christian character)이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⁷¹⁾ 이와 관련하여, 하우어워스가 루터(Martin Luther)의 윤리에 관심하면서 성화에 대한 논의를 더 심화시킬 필요를 말한 것은 의의가 크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간 제자도’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제자도’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물든 중세 수도원의 공로주의가 아닌 은혜에 의한 성화이어야 하고 일상에서의 성화를 위한 훈련이 중요하다.⁷²⁾ 결정적으로 칼뱅(John Calvin)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의해 성화된다.’⁷³⁾

복음의 증인 됨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성품함양을 말할 때, 루터와 칼뱅을 언급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병영이라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증인 됨을 구현해야 한다는 응답적 책임과 연관을 지을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의 성화를 강조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수도원이라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인물보다 평범한 일상이 참으로 기록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⁷⁴⁾ .. 하나님은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록’입니다.⁷⁵⁾

71) Stanley Hauerwas, *Vision and Virtue*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67.

72) 문시영, “루터와 제자도: 교리문답에 관한 덕 윤리의 조망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60(2024), 89-117.

73) John Calvin, trans. by Henry Beveridge,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Inc., 2008), III.11.1.

74) 마르틴 루터, 『소교리문답』, 최주훈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19), 134.

75) *Ibid.*, 154.

이것은 복음의 증인됨이 병영에 있는 그리스도인 장병들에게 추가도 부과되는 무거운 의무사항이라는 뜻이 아니다. 적극적인 응답으로서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복음이 성품화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기가 더욱 의미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앙전력화에 기여할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요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병영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 의식이자 실천과제이기 때문이다.

3. 의의와 과제

하우어워스를 통해 본 그리스도인의 정체 의식은 ‘복음의 증인’을 근간으로 한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정체 의식은 병영의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분명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역설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규정된 일과 및 정해진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구현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 의식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복음의 증인이라는 정체 의식은 자기계발을 통하여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에 대한 확신과 그 내러티브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신실함을 통해 정립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는 죄와 용서와 구원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끄는 준거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내러티브를 나의 삶을 위한 내러티브로 받아들이고 책임적 응답의 관점에서 복음의 성품화에 나서야 한다. 신앙전력화에 기여할 원동력 또한 여기서 나온다.

이러한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하우어워스의 유명세 탓인지 그의 통찰에 대한 반론 또한 적지 않다. 특히 그의 관점은 시민사회에서 소통을 추구하기보다는 단절 혹은 소중파주의적 퇴거(withdrawal)의 몸짓으로 내몰리기 쉽다. 하지만 정작 하우어워스 자신은 이러한 우려와 비판에 당당하다. 그는 거스타프슨이 자신에게 쏟아 부은 ‘부족주의’(tribalism)라는 논박에 대해 오히려 거스타프슨의 주장 이면에 계몽주의적 기획에 따른 또 다른 부족주의가 숨겨져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한다.⁷⁶⁾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복음의 증인 됨, 그리고 증인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결코 ‘부족’일 수 없다. 더구나 소중파적 퇴거를 권하는 것일 수 없다. 오히려 본질에 충실해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에 대한 신실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성품화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해준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됨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임을 깨닫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주목하도록 이끌어 준다. 복음의 증인됨을 부담스러운 의무사항이 아닌 적극적 책임으로서의 응답으로 여겨야 할 이유이다.

Ⅲ. 나오는 말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이 글은 ‘복음의 증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의를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됨’이라는 적극적

76) Stanley Hauerwas, “Why the Sectarian Temptation Is a Misrepresentation: A Response to James Gustafson” in John Berkman, and Michael G. Cartwright, eds. *The Hauerwas Read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1) 109.

실천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글의 단초가 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됨’ 혹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살아낼 정체 의식에 관한 질문이다. 특별히, 규정된 일과와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장병들은 어떤 정체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 글은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 의식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우어워스에게서, 복음이란 ‘네 권의 복음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뜻한다. 현대 인문학 및 내러티브 신학에서 사용하는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하우어워스는 내러티브의 종류 즉 ‘예수 내러티브’로서의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 의식의 근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증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친히 요청하신 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관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 됨이 중요했다. 박해가 닥쳐왔을 때 ‘순교’는 증인 됨의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질문은 분명해진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이어야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됨’은 ‘제자 됨’을 뜻하며 ‘증인 됨’을 요청한다.

하우어워스가 그리스도인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은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근저한 교회’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참된 본성, 참된 목적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적극적 의미에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정체 의식은 ‘복음의 증인 됨’으로서의 실천

적 지평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명사라기보다 역동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증인 ‘됨’을 위한 관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정체 의식을 군선교와 관련하여 성찰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를 말할 수 있으나, 적어도 두 가지에 유념해야 한다. 하나는 경계해야 할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구현해야 할 과제이다. 복음의 증인 됨을 위한 길을 왜곡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복음의 성품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하나는 ‘다른 복음 경계하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음을 가장한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난, 정죄, 심판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자기 의’를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유혹이기 때문이다. 이것과 더불어, 가장 큰 위험은 복음으로 포장된 변영의 탐욕이다. ‘변영의 복음’이 그것이다. 변영신학이라고도 표현되는 변영의 복음은 재정적 변영과 성공을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대해 ‘나쁜 증인’이 되게 하고 만다. 탐욕의 정당화와 다를 것이 없으며, 복음을 왜곡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증인이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탐욕에 놀아나게 된다면 그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단계를 넘어 ‘치명적’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우어워스는 “성공과 실패는 교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목회자 모임에서, 하우어워스가 목회의 성공을 묻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제시한 이 답변에는 굳이 교회와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말해야 한다면 그 기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답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복음으로 성품함양’이다. 성품을 말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과제를 담아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은 복음서가 말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구현된 예수 이야기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 ‘안에 들어가 살기’를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성화의 개념은 중요한 통로이다. 하우어워스는 ‘성품형성으로서의 성화’를 제안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됨이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복음의 증인 됨은 그것은 병영의 그리스도인에게 추가도 부과되는 무거운 의무사항으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 적극적 책임으로서의 응답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신앙전력화에 기여할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하우어워스의 유명세 탓에 그의 통찰에 대한 반론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시민사회에서 소통을 추구하기보다는 단절 혹은 소종파적 퇴거로 내몰리곤 한다. 하지만 하우어워스는 이러한 비판에 당당하다. 그는 거스타프슨의 비판이야말로 오히려 계몽주의적 기획에 따른 부족주의라고 역공한다. 복음의 증인 됨, 그리고 증인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결코 ‘부족’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본질에 충실해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에 대한 신실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성품화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단계로 나아

가게 해준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 됨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임을 깨닫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주목하도록 이끌어 준다. 복음의 증인됨을 부담스러운 의무사항이 아닌 적극적 책임으로서의 응답이라고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Abstract

Witness of Gospel: Hauerwas on Christian Identity and Ecclesial Ethics

Si Young Moon

Who are Christians? This question regarding identity – to ‘become a Christian’ or to live out a ‘Christian life’ – is crucial for all Christians, especially for Christian soldiers living within prescribed roles and limited space. Hauerwas defines Christian identity as bearing witness to the gospel through his ecclesial ethics. Describing the gospel as a ‘narrative’ or ‘story,’ Hauerwas draws from modern humanities and narrative theology, positing that the gospel, as the ‘Jesus narrative,’ forms the foundation of a Christian's identity.

Hauerwas observes that the early Church was concerned with ‘Who is Jesus Christ?’ and emphasized being witnesses as disciples of Jesus Christ. ‘Being a Christian’ entails ‘being a disciple’ and necessitates ‘becoming a witness.’ When Christians are described as witnesses of the gospel, the essence lies in the cross. The identity of being a ‘witness of the gospel’ must connect with the practical aspects of ‘being a witness of the gospel,’ as it denotes a dynamic process rather than a static label.

In aspiring to ‘be a witness of the gospel,’ at least two considerations arise for military missions. One involves vigilance and the other involves fulfilling a responsibility. The first is to beware of ‘other’ gospels. Here, one must be vigilant against legalism masquerading as the gospel. Moreover, the greatest peril is the allure of prosperity disguised as the gospel. The ‘prosperity gospel’ promises financial success and prosperity but ultimately fails as a true witness to the world.

The second consideration is ‘cultivating Christian character through the gospel.’ It requires actively striving to be a witness of the gospel by living in accordance with the narrative of Jesus Christ. Hauerwas suggests sanctification as character formation, which involves transforming the character of a Christian towards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Being a witness of the gospel should not be seen merely as a burdensome obligation imposed on Christians in their circumstances. Instead, it should be embraced as an active responsibility. This perspective is crucial as it can serve as a turning faith into combat strength.

Key Words

witnesses of the gospel, Jesus narratives, gospel of prosperity, cultivating Christian character, military evangelism

논문 기고자 Email

symoon@nsu.ac.kr



교회갈등 관리 방법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Method of Church Conflict

» 이용락 Ph. D.*

국문초록

교회갈등은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내 갈등은 초기부터 존재했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갈등은 분열과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할 때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셨다. 따라서 목사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교회 구성원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목회자는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구성원들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시대의 변화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여기서 시대의 변화란 조직이 직면한 환경과 사회적 상황, 조직 내부의 인적구성,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등을 가리킨다. 교회갈등은 어찌 보면 교회성장을 위한 또 다른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그 갈등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무조건 상대방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는 태도보다는 현재 갈등을 통해 목사 자신과 교회의 상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교회갈등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발견하려는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의 의사소통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갈등상황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자기성찰과 교회 공동체의 진단을 통한 교회갈등 관리가 건강한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단어

교회갈등, 교회성장, 갈등관리, 의사소통, 리더십

• 논문 투고일: 2024년 8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9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29일

* 군중 51기, 열매맺는교회 담임목사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교회의 존립과 성장에 심각한 위협 요인은 교회갈등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중형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는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 갈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대안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은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다. 갈등이 폭발 직전에 있는 교회들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언론이 보도한 교회갈등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자.

2019년 1월 9일, 강남 대치동 한복판에 위치한 S교회는 재정 비리 논란 뉴스와 함께 국민들에게 존재를 드러냈다. 하나의 교회가 두 목사를 중심으로 갈라졌고, 이들 사이의 팽팽한 다툼의 중심에는 한 장로와 그가 사용한 교회 명의의 차명계좌가 있었다. S교회와 그 내부에서 발견된 무려 400개가 넘는 통장 계좌. 그들은 왜 싸우고 있는 것일까?

S교회의 주일예배는 참담한 모습이었다. 창립멤버이자 원로목사인 L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하는 교인들은 1층에서, 2011년부터 담임목사를 맡았던 P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들은 만나면 서로 비난과 야유를 퍼부었다. 그들의 주장은 상반된다. L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하는 교인들은 현재 담임목사인 P목사가 안식년과 재신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신임에 자신이 없는 P목사가 재정비리라는 프레임을 걸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다. P목사 측은 20년 동안 재직했던 L원로목사와 재정을 담당할 장로의 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명의로 400여 개의 계좌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P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핵심 주장이다. 400여 개의 교회 명의 계좌 안에 재정을 담당할 특정 장로의 수많은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발견된 차명계좌의 입출금 거래가 모두 현금거래로 되어 있다는 점, 거래 당시 입금자명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거래의 흐름이 나뉘어 추적이 힘들다는 점은 교인들의 의혹

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L 목사 측 교인들은 S교회 내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은 7단계의 결재가 필요한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P목사 측 교인들은 S교회 재정이 교회 회계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너진 바벨탑처럼 갈라져 버린 S교회, 지출의 60%를 국내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초창기 정신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S교회의 분열과 재정의혹 사태를 낱알이 취재한 MBC [PD수첩] ‘갈라진 교회’는 26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¹⁾

교회갈등은 교회성장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내 갈등은 초기부터 존재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 급성장 하던 초대교회도 구제물품 분배에 있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사도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을 정비해야 했다(행 6장).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 핵심지역이었다. 그러나 신생교회라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서도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고린도서를 기록해야 했다(고전 1: 11-13).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갈등이 존재했고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교회갈등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교회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교회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가를 지불해야

1) iMBC 2019년 2월 26일 보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²⁾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갈등의 정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 사이에 일을 수행하는 방법, 수단, 목적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문제를 만들고 이 문제가 대화나 타협, 양보를 통해 해결되지 않고 피할 수 없는 대결구도로 진행되면 갈등이 된다.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싸움으로 치닫는다. 그래서 니버(Reinhold Niebuhr)는 주장하기를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하며 그래서 갈등은 자기관심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에서 시작된다”³⁾라고 했다. 따라서 갈등이란 “인간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태를 띤 상충관계”⁴⁾이다. 이러한 상충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난, 공격, 폭력 등과 같이 보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비협조, 거부, 침묵 등과 같이 보이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상충관계의 예는 사상, 견해, 가치, 목표, 관심, 감정 등과 같은 인간의 모든 면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갈등이란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자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조남홍, 『교회싸움: 교회 내의 갈등과 그 관리론』 (서울: 선교문화사, 1999), 33.

3)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Simon & Schuster, 1960), 23.

4) 조남홍, 『교회싸움: 교회 내의 갈등과 그 관리론』, 48.

3. 교회갈등 원인

교회갈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갈등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갈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한국사회가 직접적인 의사소통보다 비언어적 표현과 감정의 공유 같은 간접적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고맥락 문화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저맥락 문화 중심의 서구사회와는 분명히 다르다.⁵⁾ 그래서 한국교회 갈등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일은 서구교회 보다 더 어렵다. 목회현장에서 발생하는 표면적 교회갈등 원인은 1)교회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후유증, 2)담임목사 교체에 따른 불협화음, 3)반복된 갈등으로 인해 쌓인 불신, 4)문화적 충돌, 5)담임목사와 장로와의 갈등, 6)목사와 교인들의 미성숙, 7)담임목사의 리더십 부재, 8)지상교회에 찾아온 사탄의 공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⁶⁾

1) 교회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후유증

교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은 급격한 성장이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의 양적 성장은 구령 운동을 통해 믿음의 길로 들어선 새 신자들을 양육함으로써 이뤄지는 성장이 아니다. 타교회의 분쟁의 결과로 나타난 교인들의 수평이동, 신도시 건설이나 재개발과 같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 지역으로 이전해 들어오는 신자들

5) '고맥락 문화'와 대칭되는 개념인 '저맥락 문화'라는 용어는 문화 인류학자였던 Edward T. Hall이 그의 저서 *Beyond Culture*(Garden City, N.Y: Anchor Press, 1976)에서 제시한 용어이다. 고맥락 문화란 "적하면 알지"와 같이 느낌과 감정을 중시하는 문화로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발달했다. 반면 저맥락 문화는 정보와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로서 개인주의를 강조한 사회에서 발달했다. 조나단 봉크, 문상철, 성남용, 박용규 외 22인 공저, 『선교책무』(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414.

6) 박혜성, 『교회 내 갈등: 갈등을 부흥의 불씨로 만들기』(서울: 나침반출판사, 2006), 6.

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급속한 양적 성장이 오히려 교회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미 갈등이나 분쟁을 경험함으로써 바르지 못한 교인상(像)을 습득한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옮긴 뒤에 전 교회에서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를 새로운 교회에서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담임목사 교체에 따른 불협화음

담임목사 교체에 따른 불협화음이 교회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교회가 담임목사를 교체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목사가 은퇴한 뒤에 후임목사를 청빙해야 하는 경우, 목사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사임하게 된 경우, 또는 다른 목회지로 옮기게 되어서 새로운 목사를 초빙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부에서는 담임목사 교체를 심장이식 수술에 비유하곤 한다. 성공하면 새로운 도약과 부흥의 기회가 되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갈등과 상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회의 활력과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 후임목사 선정이 오히려 교회의 혼란과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성도 간의 갈등, 교인과 당회, 또는 청빙위원회와의 갈등, 목회자 간의 대립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교회와 노회(연회)와의 마찰로 발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담임목사의 교체로 인한 갈등은 대부분 전임목사가 오랜 기간 목회를 마무리 하고 사임한 뒤 후임목사가 부임했을 때 빈번히 발생한다. 전임목사의 영향력이 기존 교인들에게 많이 남아 있기에 새로 부임한 목사는 열심히 해도 웬만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고, 전임목사에 비해 조금만 모자라거나 부족하면 쉽게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후임목사에 대한 전임목사의 과도한 견제의식도 교회갈등의 요인이 된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말한바 있다.⁷⁾ 은퇴한 담임목사가 새로운 후임자가 부임하여 자기가 그동안 공들여 왔던 사역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후임자가 자기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교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 자기 위치가 더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경우가 종종 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사도 성직자이지만 육성을 갖고 있는지라 시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후임자가 들어오면 잘해도 불편하고 못해도 불편하기 마련이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후임자가 되면 서로 시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아버지 마음이 흐뭇하고 아버지가 존경받으면 아들도 싫지 않다”⁸⁾고 하며, 후임자에 대한 견제의식 때문에 세습이 바람직하다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따라서 후임목사는 전임자의 이러한 심리를 잘 이해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Compassion International의 대표였던 알라스 에릭슨(Wallace Erickson)은 성공적이고 조화로운 리더십 전환을 위해 후임자는 전임자의 명예와 업적을 존경하는 태도와 새롭게 부임한 교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심리에 민감해야 된다고 했다. 특별히 그는 리더십 전환이 전임자와 후임자 그리고 교회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⁹⁾

7) John Maxwell, *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239.

8) 나이영, “교회 세습 문제 상식에서 생각하자” 『기독교사상』 2012. 10. 10, 275.

9) Wallace Erickson, *Leaders on Leadership* (California: Regal Books, 1997), 312-314.

3) 반복된 갈등으로 인해 쌓인 불신

갈등이나 분쟁에 휘말려 있는 교회들을 관찰해보면 한 번 큰 갈등이 있었던 교회에 갈등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종종 ‘싸움 잘하는 교회’라는 좋지 않은 소문이 따라 붙는다. 일반적으로 이런 교회는 목사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교회 창립 멤버들이나 교인들의 잘못된 주인의식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교회에 대한 비성경적인 주인의식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담임목사가 지나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한 것이지 결코 목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물론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감히 말하는 목사는 없다. 그러나 소명의식과 주인의식을 혼동하는 목사들이 의외로 많다. 기존 교회 창립 멤버들이 주인의식을 소명의식과 혼동하기도 하지만 담임목사 또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4) 문화적 충돌

문화적 충돌이란 주로 신구갈등, 세대갈등을 의미한다. 특별히 유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볼 때 목회자들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연령층의 성도들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가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목회현장에 도입하게 되면 시스템의 평형성이 깨지면서 교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많은 교회에서는 열린 예배라든지 젊은이 예배 등의 문화가 교회에 새로운 바람으로 불고 있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꿔 전통적인 교회에서 현대적인 교회로, 연장자 중심의 교회에서 젊은 교회로, 전통적인 예배

를 열린 예배 등으로 전환시켜 나가려고 할 때 문화적 충돌로 인해 교회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주로 문화적 충돌과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5) 담임목사와 장로간의 갈등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심리이다. 성경은 목사를 포함한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른다(행 20: 18; 딤후 3: 1; 딤후 1: 7). 담임목사와 장로는 한 영혼과 교회 공동체를 감독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동역자이다.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종종 의견대립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때 자신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경쟁심리가 나타난다. 둘째로 담임목사와 장로들 사이의 갈등은 신학과 목회철학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나 그 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만 교회의 분위기나 목사의 설교능력, 인간성을 교회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 장로들도 별반 다를 바 없고 때로는 다른 교단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장로들조차 장례식에서 믿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기도를 하기도 한다. 또한, 담임목사는 목회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반면에 장로들은 교회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학적 차이와 목회철학의 차이가 담임목사와 장로들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된다. 셋째로 당회 안에 파워가 담임목사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장로에게 치우쳐 있으면 갈등이 일어난다.¹⁰⁾ 의사결정 과정에서 담임목사가 장로들의 의견을 묻지 않거나 묻는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10) 현유광, 『갈등을 넘는 목회』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187-192.

묻고 자기 생각대로 독주하는 경우에도 갈등이 생기지만 그 반대로 장로들이 담합하여 담임목사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경우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목사가 볼 때는 장로들에게 문제가 있고, 장로의 입장에서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쌍방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회 리더들 간에 생기는 갈등의 책임은 양자에게 똑같이 있다. 목사의 협조자로 세움을 받은 장로가 목사를 견제하거나 대립하게 되면 교회갈등이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평신도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가운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6) 목사와 교인들의 미성숙

목사와 교인들이 안고 있는 상처가 교회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나무가 꺾은 상처의 질곡들이 겉에 나타나 있지 않고 가장 깊은 심층부에 나이테라는 흔적으로 남아 있듯이, 신앙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이러한 상처들이 남아 있다. 성장하면서 거절당한 상처, 억울하게 오해받은 상처, 억누르고 참았던 감정의 상처,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상처,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상처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룩져 있다. 그러한 상처 가운데에는 교회와 연관된 상처, 전임 목회자,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도 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이나 행동이 뜻하지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엉뚱하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해는 종종 목회자에 대한 지울 수 없는 불신이나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목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갈등으로 변하기도 한다. 또한 목사 자신에게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 상처가 교회

의 어려움과 맞물려 나타나면서 생기는 분노도 간과할 수 없다.

목사라면 누구나 목회지에 부임할 때 성실하고 진실하게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목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명을 주셨기에 분명히 목회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목회를 시작한다. 그러다가 교회에 갈등이 심화되면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기 때문에 모든 갈등은 교인들의 잘못과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쉽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휘둘리는 앞잡이, 목사 자신은 복음과 진리를 사수하는 주님의 군사라는 이분법적 등식을 세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의 영적인 미숙함이 오늘날 교회갈등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금세기 들어 기독교 영성에 큰 영향을 끼친 헨리 나우웬(Henri Jozef Machiel Nouwen)은 수많은 성직자들이 사역 중에 많은 좌절과 고통, 그리고 갈등을 겪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직업주의(professionalism)와 영성(spirituality)의 분리를 들고 있다.¹¹⁾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나 훈련 과정들이 목회자로서 직업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과 기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신학생들은 목회 훈련을 통하여 더 큰 기술을 습득하지만 기도나 말씀 묵상, 예배 등의 영성 훈련은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더욱 위험한 사실은, 그렇게 기술적인 신학 교육만 받아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

11) 박혜성, 『교회 내 갈등: 갈등을 부흥의 불씨로 만들기』, 74.

로 교회에 부임했다더라도 교인들은 당연히 그를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로 단정한다. 그런 기대감과 중압감이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갈 등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며 스스로 영성 훈련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와 기도가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어느새 목사 자신의 영성을 죽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로 만들어 버린다.

7) 담임목사의 리더십 부재

교회는 팀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가 하나의 분명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이나 방향에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사역하는 팀 목회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도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통일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구조 속에서 일치와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목회 형태가 바로 팀 목회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목회 구조를 계급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팀 목회는 수평적인 목회 구조로서, 목회의 직무를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구조이다. 이제껏 목회 구조를 수직적으로 이해한 결과, 교회 안에 다른 교역자들의 충분한 자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교회운영에 있어 당회원이나 운영위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만 부서 실무자와 담당자나 초신자들은 담임목사와 소통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 팀 사역에 있어 리더의 소통 능력은 중요한 요인이다. 아무리 수평적인 구조의 팀 목회가 도입되더라도 바

른 이해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갈등이나 분쟁은 과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추종자들에게서 멀어진 리더는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된다.

8) 지상교회에 찾아온 사탄의 공격

교회갈등의 영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탄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간교한 공작을 편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분쟁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의 활동에 대해 지적한다. 특히, 교회갈등 가운데 상습적으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에 의한 공격, 교회의 직분을 명예와 권세로 여기는 교인들을 부추기는 충동, 이단 세력의 침투로 일어나는 교리적 혼란 등은 분명히 그 뒤에 사탄의 역할이 숨겨져 있다. 사도 바울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으로 인해 소아시아 주변에 신생교회가 출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교회 내의 갈등을 직시해야 한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한 갈라디아교회의 갈등, 제사음식에 대한 고린도교회 내분, 이방 종교사상 영지주의 침투로 인한 에베소교회의 혼란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4. 교회갈등 관리 방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갈등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물론 개인이든 조직이든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완벽하게 갈등 관리를 실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교회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갈등 관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1) 지속적인 신앙훈련

급속한 교회의 성장은 교회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올바른 신앙교육이나 영성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평신도들이 교회에 자리를 잡고 다양한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다른 의견이나 목적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때 목회자의 통제나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목회자는 교회의 급격한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영성훈련과 제자훈련 같은 신앙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면 그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교회갈등의 배경에는 목사가 통제하기 힘든 교인들의 분노,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불신과 미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가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밟아 나아가려고 할 때 주도권 싸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는 목사에게 모든 문제의 책임을 돌리면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정해야 할 필수적인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목사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교인들은 협조하기는커녕 즉각 목사를 배척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이러한 경우는 교회 창립 멤버들이나 기존 교인들이 적극 개입하여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달리 말하자면 바른 교회관 정립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의 체질을 개선해야만 반복적인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올바른 교회관이란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분을 섬기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다. 둘째, 교회는 교인들의 하나 됨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알리는 곳이다. 셋째,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다.¹²⁾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체계적인 신앙훈련을 통하여 이러한 교회관을 교회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성장 연구 학자인 ‘깁스’(Eddie Gibbs)는 초대 교회가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있었고, 다신교의 도전과 아울러 교회 부지나 훈련 센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일구어 낸 이유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훈련을 통해 많은 영적 리더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며, 반면 현대 교회가 초대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¹³⁾

2) 목사의 자기성찰과 리더십

한국교회 목사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목사에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전부가 되기 쉽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교회에 대해 모종의 소유의식을 품게 되며 그 권리를 지키려고 한다. 또한, 오래 동안 목회한 교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경향이 교회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소명의식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힘쓰고 애쓴 헌신의 결과를 얻겠다고 하는 보상의식에 근거한 것인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

교회운영에 있어 담임목사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

12) *Ibid.*, 106-110.

13) Eddie Gibbs, *Leadership Next* (Downer Grove: IVP Books, 2005), 13-14.

다.¹⁴⁾ 첫째, 담임목사는 교인들에게 성실하고 유능한 목사라는 믿음을 심어 줘야 한다. 교인들은 담임 목회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담임목사가 무시하면 안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담임목사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교인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회철학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인상이 강하면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불신하게 된다.

목사가 갈등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먼저 목사의 성품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조급함과 분노를 잘 느끼고 부정적이 되며 쉽게 좌절감에 빠진다. 행동적인 면에서 보면, 교인들을 사무적으로 대하게 되고, 형식적인 일에 매달리며, 의기소침해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지시하고 목표를 세우는 일을 회피하려고 한다. 탈진으로부터 오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불안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교회갈등이 더 심화된다. 그러므로 목사는 지속적인 말씀묵상과 기도를 통한 영성훈련에 전력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운동 시간을 갖는다든지, 안식년이나 정기적인 휴가를 갖는 것이 탈진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기존 교회문화에 대한 존중

문화적 충돌이 다른 원인들과 맞물려 나타날 때 교회갈등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확대된다. 여기서 목사들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에는 그가 어떠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든, 어떤 형태의 목회를 하든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기존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해서 목회를 하게 된 경우에 문화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목사 자신이 본의 아

¹⁴⁾ *Ibid.*, 27.

니게 교회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문화를 깨뜨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선교역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선교란 선교지의 문화 가운데 복음을 심는 것이지 문화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선교지만이 아니라 지역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송두리째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다. 또한, 기존 교회에 이미 형성된 문화가 목사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배타적인 태도도 피해야 한다. 이 점은 목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임목사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새로 부임한 목사에 대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 때 목사는 다시 한 번 기존 문화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목사가 할 일은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양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임목사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교회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그 후에 교회의 시스템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그러면 파괴적인 충돌 없이 교회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전임목사에 대해 좋은 기억이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교인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임목사에 대해서도 신뢰와 존경을 보일 것이다.

4) 신중한 임직과 동역자 의식 회복

교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임직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신중한 인선과 임직이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적으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갖추지 못한 성도가 임직하는 경우, 목사와 임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실패하게 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임직자에 관한 문제는 일이 생긴 다음에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담임목사의 선출과 초빙에 신중을 기하는 것처럼 임직자를 세우는 문제도 좀 더 엄중하고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물론 직분자를 세운 이후에는 목회자와 임직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차 존경과 이해, 상호신뢰를 가지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를 원만히 치리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담임목사가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인을 임직하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당회 안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회원들(운영위원)을 만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¹⁵⁾ 담임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당회원들(운영위원)과의 동역자 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한다.

5) 의사소통 활성화

목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구축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 둘째, 정기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이다. 특별히 의사소통은 교회갈등 관리에 중요한 요인이다. 교인들 간의 정서와 문화가 다양하기에 목회자는 어느 특별한 계층이 아닌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중시해야 한다. 교인들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회운영에 보다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

15) *Ibid.*, 194.

실은 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소통 활성화에 미흡한 편이다. 다음의 설문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잘 입증하고 있다.¹⁶⁾

| 1. 담임목사 청빙 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
| 1) 당회 | 139명 | 27.8% |
| 2) 제직회 | 78명 | 15.6% |
| 3) 공동의회 | 253명 | 50.6% |
| 4) 기타 | 30명 | 6.0% |
| 2. 귀 교회의 운영에 있어 교인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1) 매우 잘 반영된다 | 39명 | 7.8% |
| 2) 잘 반영된다 | 255명 | 51.0% |
| 3) 잘 반영되지 않는다 | 154명 | 30.8% |
| 4)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24명 | 4.8% |
| 5) 무응답 | 28명 | 5.6% |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당회 중심의 교회운영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전통에서 볼 때 당회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담임목사 청빙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들을 다룰 때 소수가 참여하는 당회보다는 교인들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의회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이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의회의 중요성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서 여성과 젊은 계층이 당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교회운영에 있어 당

16) 본 설문조사는 이용락의 2014년 총신대학교 박사학위(Ph.D) 논문 “리더십 계승의 성경적 원리와 방법 연구”를 일부 인용했다. 설문대상으로 5개 교회와 3개의 선교단체를 선정했다. 선정 대상은 서울과 대구, 안산에 위치한 4개 교회와 3개 선교단체이며, 선정 이유는 설문대상 교회와 선교기관이 최근 10년 이내에 리더십 교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설문 참여인원은 500명이다.

회원들이 교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소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요한 의사 결정에 다수의 참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교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회운영이 독단적이거나 권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순종이 신앙생활 최고의 미덕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과거 교인들은 교회의 인사나 재정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교인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설문결과 교회운영 방식에 있어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가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교회운영에 불만 있는 구성원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기 마련이다. 물론 그들이 교회에 남아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항상 갈등의 씨앗이 된다. 따라서 교회는 직분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교회 전체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교회 운영에 반영하는 체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은 갈등이 심화되면 와해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6) 영적 통찰력의 회복

사탄의 다양한 공격에 대하여 목사는 교회갈등이 나타날 때 그 갈등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곧 믿음에서 약간 벗어난 결정이나 판단, 또는 습관들이 있지는 않은지 진단해야 한다. 목사가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최고의

공격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영적 전쟁에 대한 건전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설교나 성경공부, 신앙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갈등 해소를 위해 성도들에게 자기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며 필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영적전쟁에 대한 주제로 특별 세미나나 집회를 가지는 것도 좋다. 교회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목사와 성도가 인식해야 한다.

목사의 영적 혼란과 탈진에 의한 갈등에 대해 소강석 목사는 크게 목사 자신과 관련해서 생긴 갈등, 충동이나 마찰과 관련해서 생긴 갈등, 목사 리더십과 관련해서 생긴 갈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⁷⁾ 첫째, 만약 교회에서 발생한 갈등이 목사 자신과 관련해서 생긴 갈등이라면 먼저 목사는 소명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관리이다. 목사의 자기관리의 인프라는 불붙은 소명감을 회복하는 것이다¹⁸⁾.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목회 성공은 소명에 성공하는 것이며 교회성장, 교회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명의식 속에서 항상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둘째, 충동이나 마찰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예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목사가 먼저 성도들에게 멘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동체적으로 섬기는 실천교육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운동을 펼치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목사는 항상 윈-윈(win-win)의 유형으로 갈등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목사의 리더십과 관련해

17) 소강석, “신도시 목회 교회갈등 해결이 중요하다”『월간목회』(통권 335호 2004. 7), 179-187.

18) Gibbs, *Leadership Next*, 180.

서 생긴 갈등의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목사는 언제나 통찰과 예견의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직 교회의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갈등관리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조급해 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본인이 주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외부 기관(노회, 연회, 총회)의 개입을 적극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목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소명에 충실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갈등 관리 과정에는 목사의 인격과 성실성, 지적 수준 같은 합리적인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영성이나 신적 만남(Divine contact)¹⁹⁾같은 초합리적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시 말해 교회운영에 있어 아무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합리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초합리적이고 초월적인 영역도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²⁰⁾

5. 갈등관리 스타일

앞에서는 갈등의 원인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살펴보았다. 흔히 사람들이 갈등을 만나게 되면 대체로 네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19) 신적 만남(Divine Contact)은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리더십을 가르쳤던 클린톤(Robert Cliton) 교수가 주장한 9가지 멘토링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대부분의 멘토링이 멘토와 멘티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지만 성경 역사를 살펴볼 때 정말 중요한 경우 하나님에 의해 직접 통제되는 멘토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무엘과 다윗, 아나니아와 바울, 브리스길라 부부와 아블로의 만남을 제시한다.

20) 박진석, 『리더십 바톤터치』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08), 243.

보인다. 그것은 회피, 양보, 경쟁, 타협이다.²¹⁾ 여기서는 갈등관리 스타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회피(Avoidance)

회피는 문제가 사소할 때, 관계가 별로 중요치 않을 때, 자신이 큰 힘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을 봉쇄시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 회피는 갈등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기의 견해를 밝히기를 보류하는 관리 스타일이다. 또 갈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는 행동이다. 회피 스타일의 사람은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잠잠히 관망하던가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않든가 또는 교회를 옮겨 버린다. 이들은 자신을 갈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관심이 있지 복음전파나 교회성장에 큰 관심이 없다.²²⁾

2) 양보(Accommodation)

양보는 모든 갈등과 분쟁은 나쁜 것이며 그저 조용히 참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양보는 갈등상황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원하는 바를 밝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쉽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뜻을 따르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스타일의 사람은 일보다는 관계, 진리보다는 은혜, 자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또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관계유지를 위해, 진실을 포기한다.²³⁾ 이들이

21) 현유광, 『갈등을 넘는 목회』, 219.

22) Jim Van Yperem. 김종근 역.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울: NCD, 2003), 151.

23) *Ibid.*, 134.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현실적 안정을 추구한다. 양보는 모든 것이 조직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는 실상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적 리더의 능력은 건물을 세우거나 조직을 확장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영적 리더의 진정한 능력은 자신이 양육하고 세운 사람이 전임자가 사라진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신만이 교회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았고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라는 판단에 앞서 본인과 조직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영원한 담임목사는 없다. 리더십 계승을 통해 유산의 법칙(The Law of Legacy)을 만들어 내는 목사가 영적 리더십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²⁴⁾

3) 경쟁(Competition)

경쟁은 자신이 정당하고 정당한 것이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취하는 대표적 행동양식이다. 경쟁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 시키며,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하여 무력화시키거나 억압하려는 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경쟁적 태도를 지닌 사람은 대체로 자신감이 넘치고 때로는 공격적이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 교회 안에 있는 공격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헌신된 사람들로서 교회 일에 열정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자신을 깨트리

24) John Maxwell, *The 21 Irrefutable laws of Leadership*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401.

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사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자 한다. 이들은 권위나 지위에 대한 애착이 유별나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상승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관계를 희생할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강하게 밀어 붙인다. 물리적인 힘의 사용도 서슴지 않으며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²⁵⁾

경쟁으로 인한 교회갈등의 대표적 사례는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자주 나타난다. 청빙위원회에서 담임목사 후보자를 두 명으로 압축하여 공동의회(사무총회)에 추천할 경우 교인들이 최종 투표를 하게 된다. 문제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 청빙위원회의 의견이 양측으로 대립하면 그 영향이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우 한 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할지라도 반대편에 섰던 청빙위원이나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지지하지 않고 비토 세력이 되는 일이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담임목사는 목회 리더십을 발휘하기 대단히 어려우며, 저항이 심할 경우 결국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게 된다.²⁶⁾

4) 타협(Compromise)

타협은 최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완전한 교착상태보다는 나은 다른 해결방법을 찾는 자세이다. 또한 타협은 시간이나 자원에 한계가 있을 때 사용한다. 따라서 타협은 갈등 상황에 부딪친 양측이 각각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위기관

25) *Ibid.*, 189.

26) 대표적인 교회가 대구의 S교회이다. 청빙과정에서 표출된 교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는 최근 10년 동안 담임목사가 3번이나 교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세도 크게 위축되었다.

리 스타일이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추구하다가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양측이 다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 타협을 하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타협은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타협은 상대방의 요구와 자신의 요구의 중간 지점에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교회 싸움에는 승자가 없다. 타협은 갈등 상황에 부딪칠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상대방을 어느 정도라도 만족케 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다. 결국 타협은 관계와 일, 자기와 상대방 모두를 고려해서 일을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동역자 바나바와 큰 갈등을 겪게 된다. 그것은 마가의 동행문제 때문이었다. 바울은 선교여행 중간에 임의로 이탈한 마가를 거부했고, 바나바는 조카였던 마가의 동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 대해 성경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행 16: 39)라고 표현한다. 이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로 떠난다. 기독교 초기 중요한 인물들의 갈등이라 혼란스럽고 두 사람의 만남이 돌이킬 수 없는 결별로 보이는 것 같지만 이후 사도 바울이 그의 여러 서신에서 마가를 칭찬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적절한 타협으로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갈등관리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타협이다. 타협이란 갈등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의 붕괴를 피하고 양편이 어느 정도 유익하고 만족스런 답을 찾는 방법이다. 나도 이기

27) 골로새서 4: 18; 디모데후서 4: 10

고 상대방도 이기게 하는 윈/윈(win/win)전략이다.²⁸⁾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전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협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갈등을 겪고 있는 양편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한다. 이런 경우에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6. 맺는말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갈등은 분열과 파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할 때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도 있다. 교회 또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셨다. 따라서 목사는 교회 내 갈등이 발생하면 무시하거나 피하기보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²⁹⁾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갈등을 통해 교회 구성원 모두 승자가 돼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교회갈등을 연구했던 할버스타트(Hugh F. Halverstadt)는 교회갈등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무엇이 기독교인다운 교회싸움이 되게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건설적인 과정이 살아 있어야 한다. 교인들이 기독교인다운 갈등의 과정에서 다른 동료 교인들과 서로 다투는 것은 보다 거룩한 자질

28) 현유광, 『갈등을 넘는 목회』, 226.

29) 황성철, 『교회 정치 행정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4), 247.

과 은사를 활용하고 도출해 내기 위한 상호작용의 한 방법이다.³⁰⁾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는 목사는 가치관과 행동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 구성원들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목사는 시대의 변화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여기서 시대의 변화란 교회가 직면한 환경과 사회적 상황, 교회 내부의 인적구성,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등을 가리킨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갈등 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핵심 리더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다가올 세대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이후 이방인 전도에 대한 갈등이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협의해서 내린 결정은 교회갈등 관리가 복음전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위기관리 능력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교훈과 아울러 교회운영에 다수가 수궁할 만한 원리와 적법한 절차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교회갈등은 어찌 보면 교회성장을 위한 또 다른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그 갈등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무조건 상대방을 이기려는 태도 보다는 현재 갈등을 통해 목사 자신과 교회의 상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교회갈등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발견하려는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의 의사소통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

30) Hugh F. Halverstadt, *Managing Church Conflic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3.

로서 갈등 상황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자기성찰과 교회 공동체의 진단을 통한 교회갈등 관리가 바람직한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의 소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Management Method of Church Conflict

Yong Rak Lee

Church conflict is a serious problem to interfere for church growth. However, even if we look at the history of the church, conflicts within the church existed from the beginning. Conflicts arise because each person has a different way of recognizing and solving problems. There are various causes of the church conflict. Although, conflict is a visual obstacle to the growth of the church,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church conflict occurring in the ministry of Korean church.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ause of church conflict in depth. Human history can be said to be the history of conflict. Conflicts can bring division and destruction, but when they are overcome, growth and development can be achieved. Jesus also dealt with the conflict between his disciples. Therefore, the pastor must actively strive to identify and resolve the cause of the conflict. Pastors who are most desirable to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must be qualified to lead their members as people who match their values and actions. Therefore, pastors must also have the ability to know and deal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Here, changes in the times refer to the environment and social situations faced by the church, the human composition within the church, and factors that may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church. In a way, church conflict is another opportunity for church growth. Therefore, when a church conflict or dispute aris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pastor himself and the church through the conflict rather than trying to avoid it unconditionally or win

over the other party. Additionally, a biblical attitude to discover spiritual lessons through these church conflicts is required. And, the pastor needs to examine the overall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himself and the church members. Also, as God's people, Christians must learn the role of harmonizing in conflict situations. The management of church conflict through such self-reflection and diagnosis of the church community can achieve healthy church growth, and through this, the church will be able to play a role in giving the world a gospel wish.

Key Words

Church conflict, Church growth, Conflict management, Communication, Leadership

논문 기고자 **Email**

lyrak1009@hanmail.net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규칙

제1조 (정의)

이 규칙은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 부설기구로 조직된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한국군선교신학회 운영 규칙”이다.

제2조 (명칭)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라 칭한다.

제3조 (소속)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내에 둔다.

제4조 (목적)

1. 군선교사역을 통한 민족복음화의 전략인 비전2030 실천운동을 신학(선교, 실천)적으로 정립
2. 다원종교 사회속에서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군선교 전략 및 전술의 계속 개발 및 적용
3. 21세기 세계 종교 상황과 문명충돌 현상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군선교사역 방향확립

4.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이버 이단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
5. 실천신학 분야는 군종목사, 군종목사후보생, 군선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6. 한국교회 성장에 군선교가 미친 영향을 역사신학적 측면에서 정립 및 미래방향 제시
7. 군선교사역이 한국교회의 21세기 청년전도의 중심 및 교회부흥을 향한 비전2030 실천운동과 병영 및 사회에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위한 사역의 결실을 맺도록 역할

제5조 (조직 및 임기)

1. 군선교신학회는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신학연구위원장 1명, 교육위원장 1명, 일반 연구위원 등 30명 내외로 조직한다.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전체사역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에 대행한다.
2. 분과별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정책위원, 군종목사위원
3. 연구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4.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총무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5. 효율적인 학회운영을 위해서 신학연구위원회를 둔다.
6.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 (연구위원 선발)

1. 각 신학분야별로 초교파적으로 선임한다.
2. 본 학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선임하여 본회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7조 (신학연구위원회)

1. 구성 : 신학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7개 분야별 각 1명씩 7명, 당연직 사무총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제8조 (교육위원회: 군복음화 아카데미)

1. 구성 :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3명, 당연직 사무총장, 총무 2명 등 6명으로 구성한다.
2. 회의 : 정기회의는 3월, 7월에 개최하며,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갖는다.
3. 교육프로그램 전담(군종목사, 군종목사후보생, 군선교사, 기독교준부사관단 수련회)

제9조 (운영방향)

1. 전체회의 : 신학회장이 소집한다.
 - 가. 정기회의는 연 1회 10월 중 소집한다.
 - 나.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소집한다.
2. 한국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개최

가.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 또는 사회상황에서 발생하는 핵심이슈를 정하여 개최한다.

나. 대주제는 ‘비전2030실천운동의 신학적 조명과 미래’로 한다.

다. 매년 주제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3. 군선교신학 연구논문집 출판 사업

가.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Ebook, PDF파일, 책-도서)하도록 한다.

나. 각 분과별 연구위원들은 격년마다 1편씩 제출을 의무적으로 한다.

다. 군선교신학논문집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인 기획논문을 우선하여 논문집에 수록한다.

라. 편집 등 효율적인 출판을 위하여 제반업무는 신학연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4. ‘군선교교역자’라는 호칭을 ‘군선교사’와 병행하여 사용한다.

5.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군종목사, 군선교사, 군종목사후보생 등의 선교, 목회, 상담 등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제10조 업무관리

1. 본 학회와 관련한 제반적 업무관리 및 운영 등 실행은 본회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선교팀)에서 총괄한다.

2. 본 학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위원은 필요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3. 본 학회의 운영규칙 개정은 본 학회 정기회의에서 개정하여 본회 법인이사회 인준으로 개정한다.

4. 이단 사이버 대책

가. 군내 이단 사이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군내 이단 사이버 침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한다.

다. 1004군인교회 이단 사이버 기준설정 결의

① 군내 침투 이단에 대한 예방 및 대처 기준 설정

- 군중목사파송 10개 교단 중 1개 교단이라도 이단/사이버로 판명 시에는 이단으로 제재

② 교단 차원의 이단/사이버로 규정된 것을 한기총 등 연합기관에서의 상이한 조치가 나올 시에는 교단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5. 군선교 정책발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의 신학적 발전과 정책, 전략, 전술 등 발전에 책임적인 역할을 다한다.

6. 연구위원은 군선교신문, 단행본, 교계언론매체, 각종학술지 등에 군선교 관련 기고를 적극 실천한다.

7. 본 학회는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을 위하여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중심으로 제반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제 정 : 2004. 11. 19

1차개정 : 2009. 7. 27

2차개정 : 2012. 10. 23

3차개정 : 2013. 11. 18

4차개정 : 2017. 2. 2

5차개정 : 2019. 10. 31

6차개정 : 2021. 3. 17

군선교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이하 본 학회)의 연구와 학술 활동이 군선교를 위한 신학의 정립을 모색하며, 교회의 복음 전파와 신자들의 신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연구와 논문 작성 시 건전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적 선언)

1. 본 학회는 학술활동과 신앙적 양심에 책임을 다하는 연구를 지지한다.
2.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있어 날조, 위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직, 간접적 부정행위를 배제하며 이를 부인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는 그것을 본회의 연구 발표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학회는 이중투고를 금지하며 공동연구에 있어 합리적 저자 배분과 공정한 권리배분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4. 본 학회는 모든 학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그 연구결과가 풍성해지

는 것을 지지한다.

5. 논문 작성시 ‘논문 제목, 필자 성명, 소속, 전공,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성명, 영문 소속, 영문 요약, 영문 주제어 6개순’의 제반 항목을 창의성 있게 충실히 완성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개인적인 제보 혹은 심사위원회에 의한 확인 및 논문 검증시스템 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로 그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일차 본인에게 연구윤리의 위반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확약 받은 후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순서로 시행한다.
3. 모든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은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2012년 8월)에 의거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승인하며, 그 내용이 심대한 연구부정행위일 경우 정부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본 학회는 타 학술기관이나 학술 활동에서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기독교 정신과 명백하게 위배되는 쟁점이 발생한 경우(이 경우 본인의 투고신청서에 윤리규정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확약하게 한다)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되었다는 고발이나 정황이 발생하였을 때(이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연구 논문의 심사에 반드시 윤리규정을 이행하였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10인 이상 회원의 요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 학회의 학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의 임시 위원회로서 그 사안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존속한다. 본 학회의 회장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연구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이사회와 협의, 학계의 중진 가운데서 학문의 명망이 높은 자 또는 교계의 중진 가운데서 목회의 명망이 높은 자로 이사회와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내용)

1. 위원회는 해당 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 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모든 점에서 혐의 없음

- 나. 조건부 승인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상반되지 않지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 보완 후 재심사 : 기존의 연구가 상당히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고 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 라. 부결 : 기존의 연구가 본 학회가 추구하는 기독교 가치관과 심각하게 충돌되거나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현저하게 충돌되기에 본 학회의 연구물로서 인정될 수 없음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부칙 (2016. 7. 27. 연구윤리규정 제1호)

이 규정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¹⁾

1. 논문작성 시 주의 사항

- 1)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으며,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학위 논문 포함)에 게재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 2) 분량은 A4 용지 15~25매를 기준으로 한다.
- 3) 주는 각주를 사용하고 논문(발제 기고, 자유 기고)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 4) 영문 제목과 영문 이름 및 영문 초록(Abstract)을 제출하되, 영문 초록은 논문의 대의와 논지가 잘 전달되도록 300단어 정도로 작성한다. 초록의 끝에는 필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첨부한다.
- 5) 주제어(Key Words)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 6) 논문의 글꼴은 신명조 11호, 행간은 160%, 각주는 바탕 9호 행간 130%로 한다. 용지 여백은 좌/우 30, 위 20, 아래 15로 한다.
- 7) 게재 원고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 제목 (2) 필자명(간략한 프로필) (3) 논문 본문 (4) 참고문헌

1) 군선교 논문집 투고자는 반드시 <군선교신학회 논문투고 규정>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려조치 됩니다.

(5) 영문 초록 (6) 주제어(Key Words)

8) 투고 논문이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 제1저자 및 공동 저자를 구분하고 그 소속을 명기한다.

9) 논문 작성법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투레비안’ 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참고〉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 6th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10) 원고 접수처는 아래와 같으며, 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 한국군선교신학회〉 E-mail: meak2020@hanmail.net

11) 투고된 논문은 한국군선교신학회의 심사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군선교신학」 논문집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의 실례

1) 단행본²⁾

<단행본의 기본 표기 양식>

| | | |
|------|---|--|
| 국내서적 | N |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
| | B |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
| 외국서적 | N |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
| | B | 저자명, 서명(이탤릭체로).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

<저자 1인의 경우>

N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97.

2) 아래에서 N은 각주를, B는 참고문헌을 각각 의미한다. 한글 서적 표기는 ‘아래 한글’의 ‘Ctrl F10’을 누른 후 ‘반각기호(도형)’에 들어가, 책은 「」으로, 논문집일 경우 「」로 표기한다.

- B**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8.
- N** Nathan E. Han,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57.
- B** Han, Nathan E. *A PARSING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cottsdale: Herald Press, 1971.

<저자가 2인 이상의 경우>

- N** 장종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22.
- B** 장종현, 최갑중. 『사도바울: 그의 삶, 편지, 그리고 신학』.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 N** Stanley M. Honor and Thomas C. Hunt,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37.
- B** Honor, Stanley M. and Hunt, Thomas C.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 3rd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 1978.

2) 편저

- N**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12.
- B** 김우창, 김형규 (공편). 『문학의 지평』. 서울: 고려대출판부, 1984.

N Carl F. Henry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25-26.

B Henry, Carl F. ed. *Basic Christian Doctr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3) 번역서

N 자크 르고프,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화과지성사, 2011), 100.

B 르고프, 자크. 『서양 중세 문명』. 유희수 역. 서울: 문화과지성사, 2011.

N Michel Foucault,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B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trans. A. M. Sc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150.

4) 논문

| | |
|-----|---|
| 학술지 | 저자, “논문 제목(명),” 「학술지명」 권수(발간연도), 인용 페이지. |
| 논문집 |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발행지: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
| | 〈논문 저자와 논문집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저자, “논문 제목(명),” 『도서명』 편집자 (발행지: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

<논문의 기본 표기 양식>

<학술지>

N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159.

B 이규철. “클로비스의 세례.” 『인문학 연구』 47 (2013).

N Gerald Bonner,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35.

B Bonner, Gerald. “Pelagianism and Augustine.” *Augustinian Studies* 23 (1992).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집 저자가 동일한 경우>

N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34-35.

B 김명수. “한국의 교회 부흥.”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논문집: 논문 저자와 논문 편집자가 상이한 경우>

N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380-381.

B 홍수길. “신약신학의 동향.” 『진리와 자유』 신학대학협의회편. 서울: 자유출판사, 2001.

N Thomas Walter Manson,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14-15.

B Manson, Thomas Walter.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and others.” *The Romans Debate*. ed. Karl Paul Donfried. Peaboy: Hendrick-son, 1977.

<학위논문의 경우>

- N**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55.
- B** 이석우. “군목의 역할 속에 나타난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육군 군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N** Hyung-Ki Rhee,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88.
- B** Rhee, Hyung-Ki. “A Study of Man in Erasmus & Luther.” doctoral dissertation, Drew University, 1980.

<인터넷 사이트의 논문>

- N** Evans Chan,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 B** Chan, Evans. “Postmodernism and Hong Kong Cinema,” *Culture* 10. 3 (2000), Project Muse. 20 May 2002 <<http://muse.jhu.edu/journals/pmc/v010/10.3chan.html>>.
- 5) 영화작품: 영화명, 감독, 주요배우, 배급자와 연도.
- N**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 B** *It’s a Wonderful Life*, Dir. Frank Capra. Perf. James Syewart, Lionel Barrymore, and Thomas Mitchell. RKO. 1946.

3. 원고 작성방법

- 1) 도표는 반드시 “표”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 2) 장절의 표기는 I, 1, 가, 1), 가), (1), (가) 의 순으로 한다.
- 3) 연대의 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한다.
- 4) 서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5) 인용문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 6) 인용문이 2행 이상인 경우에는 별행으로 처리한다.
- 7) 필자가 덧붙인 설명은 [] 안에 넣어 원문과 구분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 안에 ‘원문’이라고 표시한다.
- 8) 서양어의 서명이나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명기한다.
- 9) 페이지 인용의 경우 쪽이나 p.를 붙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 10) 각주와 내주를 모두 인정하지만 가능하면 각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1) 각주 방식
 - (1) 처음 인용할 때는 위의 제시처럼 자세히 소개한다. 두 번째 부터는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하고, 제목의 경우 단행본과 논문에서 적절하게 두세 단어를 취하여 저자, 저서(논문명), 페이지의 순으로 처리한다.

〈단행본〉 Fitzmyer, *Luke I-IX*, 220.

〈논문〉 Barrett, “Westcott,” 12.

〈번역서〉 브루스, 『신약사』, 121.
 - (2) 국문인 경우는 성명을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 (3) 계속 등장하는 동일한 책이나 논문은 반복하여 쓰지 않고

*Ibid.*를 사용한다.

(4) 바로 앞에 인용한 자료를 다시 참고할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자료가 들어가면 *Ibid.*를 쓸 수 없다.

12) 본문 말미의 참고(인용)문헌에는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
한다.

부록 2

군선교신학논문집 출판현황

| 구분 | 발간일 | 논문 제목 | 제출자 | 총면수 |
|-----|-----------|---|-----------|------|
| 제1권 | 2004.5.30 | 비전2020실천운동과 한국교회의 역할 | 곽선희 목사 | 343면 |
| | | 기조강연 -비전2020실천운동의 신학적-실천적 고찰 | 이종윤 목사 | |
| | |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하여- | | |
| | |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 군진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 | | |
| | | 군선교 신학의 정립 | 정성구 목사 | |
| | | 군복음화 50년의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중심으로- | 오덕교 목사 | |
| | | 21세기 한국교회와 군선교 비전 | 박종화 목사 | |
| | |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종정책 | 김정우 목사 | |
| | |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 주연종 군종목사 | |
| | | 애국심과 신앙심 | 황우여 장로 | |
| | | 예장통합측 군선교 비극과 비전2020실천운동 | 김수진 목사 | |
| | | 한국 군목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 -해군·해병대를 중심으로- | 조성현 군종목사 | |
| | |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 -기독교문화의 관점에서- | 임성빈 목사 | |
| | | 군종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한국 군종의 미래는?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군선교 사역자 간의 윤리적 제언 | 박기영 군종목사 | |
| | | 제2권 | 2004.5.30 | |

| 구분 | 발간일 | 논문제목 | 제출자 | 총면수 |
|-----|-----------|---|----------|------|
| | | 오늘날에도 거룩한 전쟁이 있는가? -구약성경에서 본 진멸하는 전쟁- | 김정우 목사 | |
| | |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서적 이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 강사문 목사 | |
| | |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관한 연구 | 최석환 군종목사 | |
| | |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 | 김일수 목사 | |
| | | 다종교 군 공동체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전략 연구 | 이석우 군종목사 | |
| | | 세계 종교 상황과 기독교 | 전호진 목사 | |
| | | 포스트모던주의의 문제점과 극복에 관한 소고 | 이종윤 목사 | |
| | |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정의 | 박영관 목사 | |
| | | 금욕주의 빛 아래서의 어거스틴의 결혼관 | 이규철 군종목사 | |
| | | 군인교인 신앙성장을 위한 목회상담 임상사례 | 김상만 군종목사 | |
| 제3권 | 2005.6.10 | 귀납적 설교의 비결 | 곽선희 목사 | 390면 |
| | | 기독교 영성과 예배 | 이종윤 목사 | |
| | | 생명윤리와 신앙 (기조강연) | | |
| | | 생명윤리와 신앙 | 채수일 목사 | |
| | | "생명윤리와 신앙"에 대한 논찬 | 김영철 목사 | |
| | |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평화와 생명윤리 그리고 양심의 빛에 대한 기독교의 역사적 모색을 중심으로- | 이규철 군종목사 | |
| | |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생명윤리적 양심의 비판"에 대한 논찬 | 유경동 목사 | |
| | | 군선교를 위한 기부문화에 대한 성경적 이해 | 강사문 목사 | |
| | | 어거스틴의 "대화록"의 기본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이규철 군종목사 | |
| | | 성경에 나타난 이교와 이단들 고찰 | 박영관 목사 | |
| | | 군종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이념(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홍치모 장로 | |
| | |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의 치유를 위한 군목회 돌봄 프로그램 연구(CARE 4단계를 중심으로) | 안남기 군종목사 | |
| | | 군인교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 발전 | 정두영 목사 | |
| 제4권 | 2006.6.15 |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 곽선희 목사 | 500면 |

| 구분 | 발간일 | 논문 제목 | 제 출 자 | 총면수 |
|-----|--|---|----------|------|
| | | 교회 공동체와 국가 | 이종윤 목사 | |
| | |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전략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 | | |
| | |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 | 우기식 군종목사 | |
| | |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에 대한 논찬 | 전호진 목사 | |
| | |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 -누가 군대의 이웃인가?- | 허영식 군종목사 | |
| | | "군 개혁2020에 따른 군선교2020의 전략"에 대한 논찬 | 김성봉 목사 | |
| | |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 | 주연중 군종목사 | |
| | |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논찬 | 박종화 목사 | |
| | |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구약성서적 이해 | 강사문 목사 | |
| | |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 | 장승권 군종목사 | |
| | | 중세를 적신 어거스틴 | 이규철 군종목사 | |
| | | 조나단 에드워즈와 구원과 성화 | 오덕교 목사 | |
| | | 변화하는 세계와 기독교인의 윤리 | 임성빈 목사 | |
| | | 군소 이교와 이단종파들 고찰 | 박영관 목사 | |
| | |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 민상기 군종목사 | |
| | | 청중예의 적응에 관한 연구-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 최석한 군종목사 | |
| | | 기독교 장병의 신앙 정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 박기영 목사 | |
| | | 우리나라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포교와 예방론 고찰 | 김광호 목사 | |
| 제5권 | 2007.4.16 | 1907년 대부흥운동과 비전2020실천운동 | 이종윤 목사 | 354면 |
| |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 집단세례 | 김인수 교수 | | |
| |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 | 강웅산 교수 | | |
| | "부흥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논찬 | 이규철 군종목사 | | |
| |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 -군종목사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 윤병국 군종목사 | | |
| | "미래 군 구조 개편과 군선교 개선 방안"에 대한 논찬 | 박종화 목사 | | |
| | 민족 통일에 대한 성서적 이해 | 강사문 목사 | | |

| 구분 | 발간일 | 논문제목 | 제출자 | 총면수 |
|--------------------------------|----------|--|-----------|------|
| | | 미국에 있어서의 근본주의 운동과 신복음주의 운동에 관한 연구 동향 | 홍치모 장로 | |
| | | 칼빈의 기도신학과 실제-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과 소신지서 주석에 나타난 칼빈의 기도 중심으로- | 최석환 군종목사 | |
| | | 'Pontifex Maximus'로서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 이규철 군종목사 | |
| | | 한국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 | 박영관 목사 | |
| | | 집단개종의 역사적 고찰과 합동세례 보완책 제안 | 전호진 목사 | |
| | | 군선교와 세례운동 | 우기식 군종목사 | |
| | | 신세대 장병의 군 적응을 돕는 기독교적 방안에 관한 연구-집단상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김현택 목사 | |
| 제6권 | 2008.5.8 | 바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고향-복음화된 통일조국이어야 한다- | 이종윤 목사 | 227면 |
| | |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 김성봉 목사 | |
| | | "병역 제도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에 대한 논찬 | 강사문 목사 | |
| | |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 | 최희범 목사 | |
| | | "연합을 통한 한국교회 군선교"에 대한 논찬 | 우기식 군종목사 | |
| | |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인격지도 교육을 중심으로) | 이종윤 목사 | |
| | |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군종제도"에 대한 논찬 | 정성구 목사 | |
| | |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 반박 | 이규철 목사 | |
| | | 국내외의 군소 이교와 이단 집단들 고찰(2) | 박영관 목사 | |
| | | 군장병들을 위한 성경읽기 | 강사문 목사 | |
| | | 국제화 시대 한국 군대의 국제적 책임 | 전호진 목사 | |
| | | 군교회와 노년기 | 우기식 군종목사 | |
| | | 군선교를 위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한국 장로교 초기 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 최석환 군종목사 | |
| | | 제7권 | 2009.5.20 | |
|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 김진섭 목사 | | | |
|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찬 | 이규철 목사 | | | |
|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 | 주연종 군종목사 | | | |
| "군선교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연구"에 대한 논찬 | 김성봉 목사 | | | |
|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 | 이광순 목사 | | | |

| 구분 | 발간일 | 논문 제목 | 제 출 자 | 총면수 |
|----------------------------------|-----------|---|------------|------|
| | |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여성의 역할(여성 군종목사 제도 신설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 임낙형 목사 | |
| | | 다른 종교인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태도 | 강사문 목사 | |
| | | 모니카의 사랑에 대한 《고백론》의 반향 | 이규철 목사 | |
| | | 군인교회에 침투하는 기독교회의 이단들에 대한 대책 | 박관영 목사 | |
| | | 위원입교인규도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 최석환 군종목사 | |
| | | 비전캠프(Vision Camp)와 군선교 활성화 | 한생현 군종목사 | |
| | | 군 자살 예방에서의 비전캠프의 역할: 종교적 접근을 중심으로 | 김세훈 대위 | |
| | | 르네 자라르(R. Girard)의 희생양 이론을 통한 군선교신학 정립 모색 | 서민우 상병 | |
| 제8권 | 2010.10.5 | 군선교 사역을 위한 성례전의 성경신학적 의미 -구원을 위한 인침과 징표로서의 성례전Biblical- | 이종윤 목사 | 320면 |
| | |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 하여 | 김세광 목사 | |
| | | "군선교사역을 위한 성례식: 기독교 정체성 강화와 관련 하여"에 대한 논찬 | 권오민 군종목사 | |
| | |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 | 정비호 군종목사 | |
| | | "군선교 현장의 성례식 적용"에 대한 논찬 | 최희범 목사 | |
| | | 기쁨과 행복한 군 병영생활을 위한 제언 | 강사문 목사 | |
| | | 자살 생각을 가진 용사들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접근 | 김동연 군종목사 | |
| | | 교회사에 나타난 군종활동의 역할과 의미 | 주연중 군종목사 | |
| | |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교회를 중심으로 - | 오덕교 목사 | |
| | | 어거스틴의 "기독교 교육론"에 나타난 성서 해석의 원리 | 이규철 목사 | |
| | |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 안 연구 | 최석환 군종목사 | |
| | | 다자중심적 종교다원주의와 군선교 | 강찬영 군종목사 | |
| | | 다종교 군문화권에서 본 군선교에 대한 신학적 고찰 | 이석우 군종목사 | |
| | | 제9권 | 2011.10.20 | |
| 기독교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 | 강사문 목사 | | | |
| "기독교 군인의 국가관과 신앙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찬 | 우기식 군종목사 | | | |
|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 | 주연중 군종목사 | | | |

| 구분 | 발간일 | 논문제목 | 제출자 | 총면수 |
|------|------------|---|--------------------|------|
| | | "기독교 국가관에 근거한 전쟁에서의 애국심과 개인윤리"에 대한 논찬 | 오덕교 목사 | |
| | | 어거스틴과 '정당한 전쟁' | 이규철 목사 | |
| | | 요한계시록에서 십사만 사천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 김추성 목사 | |
| | | 다문화시대와 민족주의, 교회의 역할 | 임성빈 목사 | |
| | | 민족과 함께 걸어온 한국교회의 발자취 | 김수진 목사 | |
| | | 한국교회 부흥의 방해 요소 | 안명준 목사 | |
| | | 군목과 지도력 | 안광춘 목사 | |
| | | 전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 김동연 군종목사 | |
| | |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화 | 정성구 목사 | |
| | | 『목사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 방안 연구 | 최석환 군종목사 | |
| 제10권 | 2012.10.10 |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의 성경적 전거와 실제 | 이종윤 목사 | 293면 |
| | |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 박종화 목사 | |
| | | "건강한 병영과 1004군인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에 대한 논찬 | 주연종 목사 | |
| | | 선사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최석환 군종목사 | |
| | | "선사인캠페인 실천 사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찬 | 김진섭 목사 | |
| | | 광야-사막에 피어난 다윗의 신앙과 삶(시 23: 1-6) | 강사문 목사 | |
| | | '되찾은 아들 비유'가 주는 죄와 벌의 의미 | 김일수 목사 | |
| | |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접근 | 안명준 목사 | |
| | | 우정에 대한 어거스틴의 담론 | 이규철 목사 | |
| | | 호주 군선교 정책과 미래적 전망 | 김상만, 김택조, 이정우 군종목사 | |
| | |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 김동연 군종목사 | |
| | |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교 장병 양육 연구 (2825부대 산동교회를 중심으로) | 오희준 군선교사 | |
| | | 비전캠프를 통한 입소자의 공동체성 고취 및 선교의 가능성 연구 | 유현 군종목사 | |
| | | 21세기 한국 군선교에 적합한 양육 시역 모델에 관한 연구 | 홍석균 목사 | |
| 제11권 | 2013.10.30 | 비전2020실천운동의 역사적·비평적 연구 | 이종윤, 김대덕 목사 | 420면 |

| 구분 | 발간일 | 논문제목 | 제출자 | 총면수 |
|------|---------------------------------------|---|--|------|
| | |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 -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 | 정재원 군종목사 | |
| | | "비전2020실천운동의 중간평가 및 제안-1004군인교회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 이규철 목사 | |
| | |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 | 주연종 목사 | |
| | |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요소가 가지는 영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군선교 회원 교회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 강사문 목사 | |
| | | 비전2020실천운동의 순항 궤적 평가 | 이규철 목사 | |
| | | 『조선예수교장로회훈상예식서』에 나타난 세례식 순서에 관한 연구 | 최석환 군종목사 | |
| | | 하나님과 이웃 섬김에 대한 이론과 실제 | 강사문 목사 | |
| | | ACT(수용전범치료)소개: 기독교와의 만남 | 김동연 군종목사 | |
| | | 한국교회의 신학적 문제점 | 안명준 목사 | |
| | | 경제위기에 대한 성경적 진단과 신앙적 대처방안 | 김성봉 목사 | |
| | | "여호와와 전쟁신학"이란 안경으로 읽는 성웅 이순신 | 김진섭 목사 | |
| | | 순교자 박연세 목사의 민족운동의 행적 | 김수진 목사 | |
| | | 아랍 스프링 이후 아랍 국가의 정치적 상황 연구 | 전호진 목사 | |
| | | 군 상담의 이해와 발전적 제안 | 김상만 목사 | |
| | | 논문공모작 | 장병 인권에 관한 군선교 전략과 과제 -군종목사 후보생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 |
| | 집단개종과 진중세례 그리고 진중서약식 | 강찬영 군종목사 | | |
| 제12권 | 2014.10.7 | 군인교회의 성숙한 예배와 설교, 찬양의 모범 (기조강연) | 이종윤 목사 | 393면 |
| |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발제I) | 김진섭, 이승진 민상기 목사 | | |
| | 군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설교 사역 방안 (논찬I) | 최희범 목사 | | |
| |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발제II) | 김동연 군종목사 | | |
| | 대대급교회 사역 활성화 방안과 네트워크 동역 (논찬II) | 최석환 군종목사 | | |
| | 구약절기와 신약 교회력의 만남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 김진섭 교수 | | |
| | 항거할 수 없는 은혜 | 정성구 교수 | | |
| | 개혁파 교회의 연합 활동과 신학의 일치성에 관한 연구 | 김성봉 교수 | | |

| 구분 | 발간일 | 논문 제목 | 제 출 자 | 총면수 |
|------|------------|--|----------|------|
| | | 폭력에서 사랑으로 | 안명준 교수 | |
| | | 군선교를 위한 '뱀티즘' 세례자 교육방안 연구 -한국 장로교 초기문헌의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 최석환 군종목사 | |
| | | "당신의 진정한 갈망이 당신의 기도이다"에 담긴 어거스틴의 기도의 영성 | 이규철 목사 | |
| | | 가족미술치료 난화기법의 이해와 적용 | 김상만 목사 | |
| | | 논문공모작 좋은 자기표상 형성을 위한 관계성 연구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적 돌봄을 중심으로 | 김현택 목사 | |
| |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지적 자산과 향후과제 -군선교신학논문(1권-11권) 내용을 중심으로 | 신종훈 전도사 | |
| 제13권 | 2015.10.27 | 군인권과 선교활동 그리고 예배회복을 위한 강해설교 | 이종윤 목사 | 390면 |
| | | 군인권과 선교활동 | 김일수 장로 | |
| | |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 | 이규철 목사 | |
| | | "대대급교회 활성화를 위한 예배 형식과 교육체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한 논찬 | 이승구 목사 | |
| | | 성경에 나타난 군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1) | 강사문 목사 | |
| | | 효과적인 군선교 전략을 위한 3대를 잇는 성령님의 교회 같은 가정과 가정 같은 교회 | 김진섭 목사 | |
| | | 개혁된 교회 | 김성봉 목사 | |
| | | 군선교를 위한 교육신학 사상연구 | 최석환 목사 | |
| | | PTSD와 이야기 치료와의 대화 | 김동연 군종목사 | |
| | | 목회리더십 계승의 성경적 방법연구 | 이용락 목사 | |
| | | 대대급부대 세례신자 양육방안에 관한 연구 | 전요섭 목사 | |
| | | 논문공모작 청년비전캠프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맥락의 개선방안 | 신종훈 전도사 | |
| | | 외상상황하에서의 군종상담 연구 | 전석원 외 2명 | |
| 제14권 | 2016.7.28 | 오늘의 설교개혁 | 이종윤 목사 | 270면 |
| | | 토라 613계명의 현대적 의미와 적용 | 김진섭 목사 | |
| | |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 | 김성봉 목사 | |
| | | Vita Augustini에 나타난 히포수도원의 영성 | 이규철 목사 | |
| | | 노래치유 중심 표현예술심리치료 경험분석 | 김상만 목사 | |
| | | 힐트너(Seward Hiltner)의 목회신학에 대한 연구 | 최석환 목사 | |

| 구분 | 발간일 | 논문 제목 | 제 출 자 | 총면수 |
|-----------------------|------------|--|-------------|------|
| 제15권 | 2016.10.6 | 파트너십과 합작을 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에 쓰임 받자 | 이종윤 목사 | 285면 |
| | |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 | 인만국 목사 | |
| | |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 | 정재원 군종목사 | |
| | | “군종목사와 군선교사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강화방안 연구”와 “군선교사 제도혁신방안 연구”에 대한 논찬 | 이규철 목사 | |
| | |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 | 강사문 목사 | |
| | | 동성애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군선교 | 강찬영 군종목사 | |
| | | 남북통합과정에서의 군선교 | 오상익 군종목사 | |
| | | 장병의 군복무 중 종교변화와 군선교 전략 연구 | 김성훈 군종목사 | |
| | | 군장병의 위기 대응방안으로서 신앙활성화에 관한 연구 | 황미선 목사 | |
| 제16권 | 2017.10.10 | 동성애와 군형법 제92조의 6 개정안에 대한 소고 | 이종윤 목사 | 341면 |
| | |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 | 길원평 교수 | |
| | | 길원평 교수의 논문 “군대 내의 동성애 심각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논찬 | 전요섭 교수 | |
| | |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 | 이상현 교수 | |
| | | 이상현 교수의 논문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죄의 합리적 개정 제언”에 대한 논찬 | 김일생 교수 | |
| | |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와 지도력에 관한 연구(III) | 강사문 교수 | |
| | | 칼빈주의적 미래 인간상 | 정성구 목사 | |
| | | 신학적 해석학에서 본 과학 | 안명준 교수 | |
| 게르만족의 침탈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응 | 이규철 목사 | | | |
| 제17권 | 2018.10.11 | 한국 군선교의 진전과 과제 | 이종윤, 이규철 목사 | 391면 |
| | |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 오덕교 교수 | |
| | | 오덕교 박사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에 대한 논찬 | 주연중 목사 | |
| | | 구약성경에 나타난 군 지도자들과 지도력에 관한 연구(IV) | 강사문 교수 | |
| | | 이스라엘 독립 70주년과 현대사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7대 신비 | 김진섭 교수 | |
| | | 이슬람에 대한 루터의 염려 | 김성봉 교수 | |

| 구분 | 발간일 | 논문제목 | 제출자 | 총면수 | |
|--|------------|---|--|------|--------------------------|
| | | "성직자와 여인들의 교제에 관한 교훈"에 담긴 어거스틴의 금욕적 자기관리 | 이규철 목사 | | |
| | | PTSD의 이해와 군상담예의 적용 | 김상만 목사 | | |
| | | 국방부 군 종교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 전요섭 교수 | | |
| | | 정의로운 전쟁의 윤리와 군선교 | 강찬영 군종목사 | | |
| 제18권 | 2019.10.10 | 병역대체 복무제 진단과 기독교 입장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신학적 비판- | 이종윤 목사 | 432면 | |
| | |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 | 김윤태 교수 | | |
| | | 김윤태 교수의 논문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에 관한 기독교 입장: 양심인가? 종교적 신념인가?"에 대한 논찬 | 김일수 교수 | | |
| | |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 | 정세준 군종목사 | | |
| | | 정세준 목사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평가와 향후전망"에 대한 논찬 | 강찬영 군종목사 | | |
| | | 구약성경에서 본 군 지도자들과 그들의 지도력(V) -다윗 왕과 예언자 예레미야 | 강사문 교수 | | |
| | | 이슬람에 대한 칼뱅의 견해 | 김성봉 교수 | | |
| | | "만유의 평화는 평온한 질서다"에 함축된 평화에 대한 어거스틴의 비전 | 이규철 목사 | | |
| | | 위기상담의 이해와 군상담예의 적용 | 김상만 목사 | | |
| | | 한국 군 군인가족의 영적 지지를 통한 목회상담 | 전요섭 교수 | | |
| | | 군선교의 공공성 회복과 그 과제 | 강찬영 군종목사 | | |
| | | 기획논문 | 양심적 병역거부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적 양심 이해를 중심으로 | | 이규철 목사 |
| | | 성평등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 | 길원평 교수 | | |
| | | 제19권 | 2020.11.13 | | 비전2020실천운동지역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
|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 | 이정숙 교수 | | | | |
| 이정숙의 논문 "비전2020실천운동의 교회사적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찬 | 최석환 군종목사 | | | | |
|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종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홍창식 변호사 | | | | |

| 구분 | 발간일 | 논문 제목 | 제 출 자 | 총면수 | |
|---|------------|---|------------------------------|----------|-----|
| | | 홍창식의 논문 "군인의 종교의 자유와 군선교 -군인의 선교의 자유와 종교중립의무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 김일수 장로 | | |
| | |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김진섭 교수 | | |
| | | 예술심리치료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 김상만 목사 | | |
| | | 키릴로스의 세례교육 | 김선영 교수 | | |
| | | 남성 군종장교와 여성 군인 | 전요섭 교수 | | |
| | 기획논문 | 구약성경이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역대하 7:11-22, 특별히 13-14절이 제시하는 그 원인과 해법 | 김진섭 교수 | | |
| | | 포스트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제언 -군선교에 관한 이종윤 박사의 신학적 통찰을 중심으로 | 이규철 목사 | | |
| | | 화해의 공공신학과 군선교의 과제 | 강찬영 군종목사 | | |
| | 일반논문 | 존 로스의 요한복음 7: 53-8: 11 삭제 비판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 탁명진 목사 | | |
| | 제20권 | 2021.10.26 | 진리란 무엇인가? | | 곽요셉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 | | | 전요섭 교수 | | |
| 전요섭의 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군 목회상담의 과제"에 대한 논찬 | | | 강찬영 군종목사 | | |
|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 | 임정인 군종목사 | | |
| 임정인의 논문 "기독교 군 병사의 종교적 실천과 종교적 대처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찬 | | | 김이영 교수 | | |
| 일반논문 | | |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가? | 강사문 명예교수 | |
| | | | 반달족의 침공에 대응하는 어거스틴의 목회 돌봄 영성 | 이규철 목사 | |
| | | | 이야기심리학의 이해와 군상담 | 김상만 목사 | |
| | | | 효과적인 군 상담을 위한 전인건강과 치유의 이해 | 전요섭 교수 | |
| | | | 사회적 책임(CSR, CSV)과 군선교의 과제 | 강찬영 군종목사 | |
| 제21권 | 2022.10.25 | 이 천국 복음 | 곽요셉 | 456면 | |
| | | Vita Augustini 28-31에 비친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 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 | 이규철 목사 | | |
| | | 이규철의 논문 "어거스틴의 사역이 한국군 전시 군종활동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찬 | 이석영 군종목사 | | |

| 구분 | 발간일 | 논문 제목 | 제 출 자 | 총면수 |
|------|------------|--|----------|------|
| | |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임정민 군종목사 | |
| | | 임정민의 논문 "육군 장병의 부정정서 및 직무스트레스와 전투 수행의 관계에서 군종목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논찬 | 전요섭 교수 | |
| | | 성경적 종말론의 올바른 이해를 향한 개관 : 이스라엘과 교회 관계를 중심으로 | 김진섭 교수 | |
| | | 전시 미군 군종활동을 통한 한국군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 | 전요섭 교수 | |
| | |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군 신앙전력화 추진에 담긴 함의 | 이규철 목사 | |
| | | MBTI의 이해와 군상담에의 적용 | 김상만 목사 | |
| | 일반 논문 | 정신역동이론을 통한 장병들의 집단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 | 윤상철 목사 | |
| | | Missio Dei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 | 이용락 목사 | |
| | | 북한군 간부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주체사상 극복과 복음 수용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이은성 목사 | |
| | | | | |
| 제22권 | 2023.10.24 | Words matter! | 김철우 목사 | 280면 |
| | | 평화를 이루는 한미 연합 전시 군종활동 강화 방안 | 주연종 목사 | |
| | |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 | 안남기 목사 | |
| | | 안남기의 논문 "초기 성인기에 있는 용사들의 치유를 위한 목회적 돌봄"에 대한 논찬 | 김택조 목사 | |
| | | 바이킹의 회심에 함유된 신학적 시사점 | 이규철 목사 | |
| | |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 | 전요섭 교수 | |
| | 외국논문 |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 전요섭 교수 | |
| | 일반논문 |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본 군선교 전략 연구 | 오희준 목사 | |
| | | 진정한 강군(強軍)이 되기 위한 군종의 역할 | 정대호 목사 | |
| | | | | |
| 제23권 | 2024.10.22 |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 | 정비호 군종목사 | 264면 |
| | | 정비호의 논문 "군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전2030 실천운동'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논찬 | 최석환 목사 | |
| | |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 | 권수영 목사 | |
| | | 권수영의 논문 "인구 감소 시대의 청년 문화와 미래 군선교 전망"에 대한 논찬 | 나성한 군종목사 | |

| 구분 | 발간일 | 논문제목 | 제출자 | 총면수 |
|----|------------|--|--------|-----|
| | 연구위원 논문 | 진중군인교회 성장방안 재고(再考):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을 중심으로 | 이규철 목사 | |
| | | 코칭의 이해와 군예의 적용 | 김상만 목사 | |
| | | 군 상황에서 도덕적 상해의 심리적 이해와 군종목사의 상담방안 | 전요섭 교수 | |
| | | 복음의 증언: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를 중심으로 | 문시영 교수 | |
| | | 교회갈등 관리 방법 연구 | 이용락 목사 | |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 ㉔

군선교, 청년

1판 1쇄 발행 _ 2024년 10월 22일

발행처 _ 한국군선교신학회(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설기관)

주소 _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TEL _ 02-744-2662, 02-3675-2020

홈페이지 _ <http://www.meak.or.kr>

E-mail _ meak2661@naver.com

제작처 _ 콤란출판사

주소 _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편집부 _ 745-1007, 745-1301~2, 743-1300

영업부 _ 747-1004, FAX 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_ 0502-756-1004

홈페이지 _ <http://www.qumran.co.kr>

E-mail _ qrbooks@daum.net / qrbooks@gmail.com

한글인터넷주소 _ 콤란, 콤란출판사

등록 _ 제1-670호(1988.2.27)

제23권 군선교신학논문집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규철 목사

위 원: 이규철 목사, 전요섭 교수, 김상만 목사

담 당: 정찬영 팀장

값 15,000원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파본(破本)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